

변영섭 문화재청장
'근본 탐구'는 내 원력
내 자리서 최선 다할 뿐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0월 11일) · 주간

제966호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대지도론〉

성냄이 없으면 안온하고
성냄을 없애면 후회가 없다.
성냄은 모든 독의 근본이다.

東大 교양교육 불교 홀대 "진정 종립대학 맞나"

불교관련 교양 21개서 내년도 2개로 축소 '논란'

동국대가 추진하는 2014년 교양교육 개편안에 불교 교양 과목이 대거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소양을 지닌 인재 양성' 이란 종립대학 설립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동국대가 지난 5월부터 구성한 학부대학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새로운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2014년도 교양교육과정에서 불교관련 과목은 '자아와 명상'과 '불교와 인간' 2개에 불과하다.

이번에 동국대 교양교육과정은 기초교양과 핵심교양, 일반교양으로 구성돼 있는 교양과정을 △대학생활탐구 △더불어사는 삶 △글쓰기 △세계명작세미나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일반교양으로 등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2013학년 불교교양과목은 개설강좌 수는 502개 중 21개(전체 4%) 였지만 1학기 전체 교양 범주 11개 중 5개, 2학기 11개 범주 중 6개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포함돼 있었다. 학생들이 교양 수업을 통해서라도 불교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5월부터 회의를 시작한 학부대학 추진단은 10차례 회의 동안 불교대학 측을 배제했다. 자아와 명상과 불교와 인간 과목이 포함된 더불어사는 삶의 자아성찰 분야를 제외하고 개발위원에 불교측 인사는 전무했다.

2014년 시행을 앞두고 불교 제외 비판이 일자 9월 말에서야 불교대학 측 인사를 참여시켰다.현재 고전강독을 주내용으로 하는 세계명작세미나 분야에 1명이 10월부터 포함된 상태다.

개발위원으로 추진단에 참여한 고영섭 불교대학 교수는 "이미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안을 만든 상태였다"며 "뒤늦게나마 세계명작세미나 만큼이라도 불교경전을 각 세부 파트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지만 포함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13년 교양교육(불교관련)

기초교양
자아와 명상, 불교와 인간

핵심교양
불교로 보는 서양철학의 역사/ 삼국유사와 한국사상/ 현상학과 인지과학의 마음, 불교의 마음/ 아난과 조직관계 리더십/ 동남아시아와 불교문화/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불교와 현대물리학/ 현대사회와 명상/ 동아시아 불교문학과 문화콘텐츠/ 불교적상상력과 문학예술적상상력/ 한국불교미술의 이해와 감상

2014년 新교양교육(불교관련)

더불어사는 삶 – 자아성찰
자아와 명상, 불교와 인간

불교관련 과목 논의 중인 개편안
21세기 시민과정, 세계명작세미나

추진단에 불교대학 배제
비판일자 인사 참여시켜
불교대 "설립 취지 역행"
학교 "최종안 아냐" 해명

고 교수는 "2006년까지만 해도 6개 교양그룹 중 1개 교양그룹이 불교관련이었다. 예전에는 불교교양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지만 점차 줄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종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불교를 접하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불교대학 측은 글로벌 교육과 같은 사회적 역량 함량 부분에서도 불교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에는 핵심교양 중 '아난과 조직관계 리더십' '동남아시아와 불교문화' 등 관련과목이 시행됐다.

불교대학은 더불어사는 삶 중 인간 · 미디어 · 윤리, 지구 · 환경 · 공생, 다문화사회의 삶 분야 등에도 학생들이 불교적 소양을 지닐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2013년도 핵심교양에는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불교와 생명윤리학' '인지과학과 불교의 마음' 등 현대 각 분야와 불교가 접목된 과목이 다양하게 배치됐다. 불교대학 측은 '불교윤리'와 '불교생태' 전공자 등 관련과목에 대한 인적자원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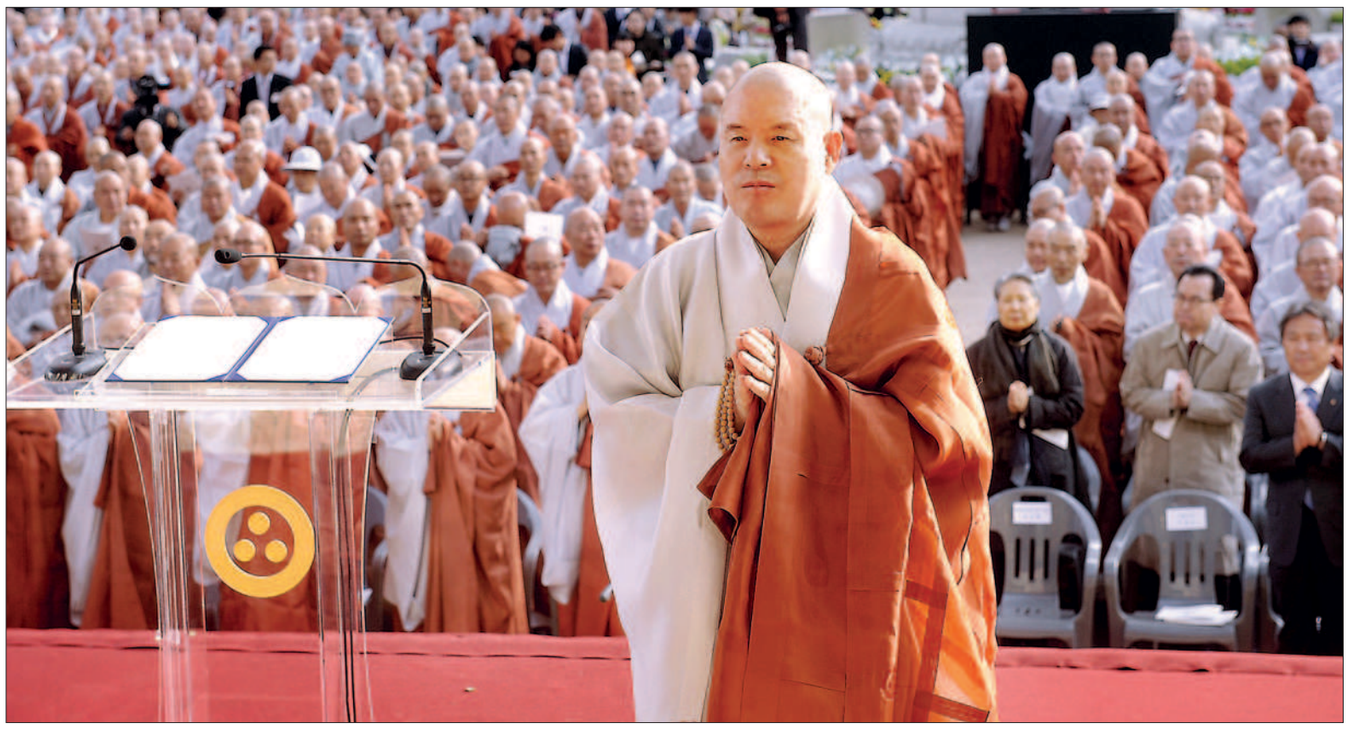
이런 비판에 대해 추진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훈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은 "리더쉽과 지역연구 등을 담당하는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은 경영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기에 불교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개편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전략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교양교육 과정 개편의 근본 취지는 인문학 교육 강화, 고전읽기 확대, 글로벌한 교양과 리더십 강화"라며 "특정과목이나 특정학과의 배제하려는 계획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 교계와 교수 등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1월 29일 최종안이 마련되고 총장 결제를 받아 12월부터 과목별로 교 · 강사 선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대학의 한 관계자는 "동국대는 국내외에서 불교학 특화에 강점을 띄고 있으며 이에 BK · HK 등 정부지원 사업을 따낸 바 있다. 대학원 입학자 또한 불교대학이 가장 많다"며 "이번 개편안은 종립대학의 특성과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은 11월 8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성과 쇄신은 三世 잇는 우리의 역사"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

종정법어 "원장 중심으로 화합"
박 대통령 '불교 중흥' 당부
정계 인사 등 2천여 명 운집

"오늘 제34대 총무원장 취임식에 임하면서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히 다짐합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취임 일성은 한국불교의 새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 시작됐다. 조계종은 11월 8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난 33대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한 것은 종단 배부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 중생의 삶, 사회 현실을 바로 보고 함께 보듬을 수 있는 한국불교를 이루고자 했던 염원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자성은 지난 역사를 되짚고 참회하자는 것이고 쇄신은 내일을 준비해 변화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자성과 쇄신은 과거와 현재, 미래 삼세를 잇는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향후 한국불교가 풀어야 할 과제들로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행정기관의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승려복지의 안정적 운영 △조계사 성역화 원만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단순히 조계종을 종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자승 스님은 "우리 사회는 조계종이 단지 구성원만을 위한 종교 단체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다"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출가 수행자와 불자들은 한국불교가 지닌 대승(大乘)의 가치를 실제 구현해야 한다. 제34대 총무원 집행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앞장 서 실행하고 이루어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는 화합이 근본이다.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이와 사가, 승과 속이 원융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제33대에 이어 34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신 자승 스님께서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어 달라"며 "총무원장 스님의 큰 원력이 우리 사회의 신뢰와 화합을 이룩해 나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불교 및 주요 정관계인사를 비롯해 이웃종교인, 자비나눔 방문처 인사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10.27법난 피해 스님·사찰 신청하세요

심의위원회, 2014년 12월 31일까지 접수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정만스님, 이하 법난위원회)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11월11일부터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다.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대상자는 △10.27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27법난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스님이거나 스님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등이다.

의료지원금 지급은 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피해경위서 1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서식은 법난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법난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난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66호 INDEX

시방세계 5
창립 10주년 맞은 정토회 '길벗'



종합 2·3
불교 수화동영상 46종 제작
천태종 · 조불련 영통사서 합동법회
석굴암 균열 대책 필요
불교중앙博 인각사 기획전

학술 9
동북아 힘모아 불교학 발전 나선다

해외 17
인도 불교 유적, 개발로 몸살

산사새아침이 당신의 민감한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산사새아침 생약 발효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은 기본재료를 1년이상 숙성 발효하여 옹기 소줏고리에서 12~13시간을 거쳐 증류로 받는 원료 그대로를 제품화 하였습니다. 특히, 아토피, 여드름, 기미, 주름개선, 미백, 트러블에 좋은 화장품으로 식약청 인정 및 특허제품입니다. '산사새아침' 제품의 천연 원료는 우리나라 토종 지렁이인 참지렁이(red worms)를 직접 사육하여 1년이상 땅속에 묻어 숙성 과정을 거쳐 우리네 선조들의 전통 전례법제 공법인 옹기(소주고리)로 한 방울씩 모아 하루 약 12시간 증류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옹기 소줏고리에서 증류로 받는 원료들

아토피성 피부청정
여드름성 피부청정
기미 & 주름 개선
피부트러블 청정

효능/효과
·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하여 피부청정을 도웁니다.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여드름을 유발시키지 않아 피부청정을 도웁니다.
· 아동기 약건성 민감한 피부, 건조(거친)피부, 윤기없는 피부를 산뜻한 피부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 세안 후 즉시 사용, 또는 메이크업 이후 가볍게 뿌려 주시면, 화장이 들뜨지 않고 밝은 피부톤을 유지시켜 줍니다.
· 피부건조, 각종 피부 트러블 등에 도움을 주는 탁월한 기능성화장품입니다.

사용방법
산사새아침 스킨케어는 기능성화장품으로써,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마다 적당량(1회 사용에 3~4번 분사)을 요구되는 부위에 직접 분사하여 사용합니다.
산사새아침 스킨케어의 내용물은 50ml이며, 약 300회 분사 가능합니다.
※ 사용 전, 위 아래(3회)로 정도 흔들어 사용하십시요.

1 산사사랑 스킨
천연 미네랄 성분이 피부속 깊이 흡수되어 트러블 진정과 항균효과를 지속 유지하며, 외부 세균을 차단합니다. 피부 내부로부터 과도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적절한 보습 효과를 지속시킵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항상 청결하고 산뜻한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2 산사사랑에센스
진피 내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강화시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며 탄력을 복원시켜 줍니다.

3 산사사랑 알로에 크림
천연 알로에베라젤이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있게 가꾸어 줍니다.



식약청 인정 및 특허제품
(특허 제 10-1230922호)

식약청인증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써 아데노신 0.04%를 함유하고 인공색소, 인공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천연 자연친화적 화장품입니다.

(주)산사새아침 ■ 본사&기술연구소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37-109 ■ 제조공장 :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 관동대학교 제 2학생회관 지하 1층

구입문의 : 033)641-2598
010-3718-1866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위한 해독제를 강구하라

모든 증상이 치유될 것이다.

한 상인이 도적 떼가 우글거리는 숲 속을 지나려할 때 무기를 준비합니다. 한 여행자는 전염병으로 황폐한 전염병으로 황폐한 지역을 지나려 할 때 여러 종류의 약을 챙깁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감정적인 복병들 즉, 분노, 욕망, 자만, 질투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감정들을 적절한 해독제로 언제나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경계하는 것은 진지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훌륭한 수행자들은 잠재돼 있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감정들이 유발시키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즉각적으로 해독제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면 장애를 이겨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행위 주체와 행위 대상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초월하는 법을 안다면 모든 생각이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도움 없이 뱀이 스스로 똬리를 풀고 앞으로 나아가듯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개념의 자국들의 근원을 찾아보면 이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은 본성 즉, 모든 것을 초월한 지혜와 떼어낼 수 없는 공성을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불교 수화동영상으로 법음 전한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 수화동영상 46종 제작·배포



김경환 조계종 1기 청각장애인포교사의 '반야심경' 캡쳐 사진.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하단 자막과 박자를 나타내는 동자승 모습 등이 함께 첨가됐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눈으로만 부처님 법음을 접할 수 밖에 없어 불교가 어려운 종교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들도 일반불자들과 평등하게 법음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불교수화동영상이 마련됐다. 삼귀의·반야심경·청법가 등 불교의식 10종을 비롯해 최신 찬불동요와 봉축주제가 등 46종이 수화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연내 전국사찰 및 복지관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은 11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수화동영상 시연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이날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종교였다"며 "청각장애인도 일반불자들과 평등하게 법음을 접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언제나 열려있다는 종교관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장애인전법단이 공개한 불교수화동영상은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회장 김장경)과 광림사 연화원(원장 해성)이 전법단 지원으로 1년 여 동안 제작했다.

동영상에는 김경환 제1기 청각장애인 조계종 포교사 등 30여 명의 수화 전문가들이 출연해 부처님 가르침을 수화로 표현했다.

연화원 해성 스님은 "40만 청각장애인 중 10%만이 불자인데 322개의 청각장애인 전용교회를 지닌 기독교계에 비해 불교계는 그 역할이 미미한 요인이 크다"며 "이번 수화동영상 제작 소식을 접한 불자 청각장애인들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다. 종단에서 장애인 포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야심경 등 불교의식 10종 포함

찬불가·동요·봉축가 등

2500개 전국 사찰 등에 무료 제공

포교원"또 하나의 역경불사"강조

해성 스님은 "어린이 법회 시에도 수화동영상을 활용해 자라는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교수화 통일에도 기여

이번 동영상을 직접 편집한 김장경 원심회장은 "그 동안 불교수화가 통일된 부분이 없어 의역을 하곤 했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불교의식이 통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강사마다 조금씩 다른 지도방법을 지녔다. 동영상 제작과정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불교수화를 정립한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원심회와 연화원은 청각장애인 4인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수화협의회를 구성해 각기 다른 불교의식에서의 수화용어를 정리했다.

특히 '아제 아제 바라아제'와 같은 수인이 포함된 진언 등에서도 수화 규칙을 정했다.

김 회장은 "먼저 수인을 보이고 수인의 의미를 모르는 장애인 불자를 위해 한글로 표현을 한다"며 "청각장애인들이 수인을 보면 말로 이해하려하기 때문에 짧게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포교원(원장 지원)은 이번 장애인전법단의 불교수화동영상 제작을 전법단 모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범어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역경불사를 통해 불교를 전했듯, 장애인전법단의 수화작업도 또 다른 역경불사"라며 "종단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전법단이 제작한 불교수화동영상은 원심회 홈페이지(www.wonsim.net)에서도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불심으로 공고한 평화통일 이룰 것"

천태종·조불련 개성 영통사서 대각국사 912주기 합동다례재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공동으로 11월 7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921주기 열반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영통사 낙성 8주년도 함께 기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공동으로 11월 7일 개성 영통사 경선원서 '영통사 낙성 8주년 기념 및 의천 대각국사 912주기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남북합동법회는 천태종총무원장 도정 스님, 총무부장 월도 스님, 사회부장 보광 스님 등 남측 대표단 20여 명과 리규룡 조불련 서기장, 차금철 부장, 리현숙 전국신도회 부회장 등 북측 대표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개성 영통사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천태교학의 원융한 가르침을 펼치시던 곳이어서 지난 8년 동안 남북불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불심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리규룡 조불련 서기장도 "현재 북·남 사회의 불신과 대립이 깊어져 남북 교류가 많이 위축된 상태"라며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목표인 만큼 관계 개선과 민족화합을 위해 불교계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과 조불련 차금철 부장이 함께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이 발원문을 통해 남북 대표단은 "우리 남북 불교도들은 불심으로 화합해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며 민족 내부의 반목과 불신, 긴장과 대결을 걷어내고, 공고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용맹정진하겠다"며 "통일조국, 현세지상정토를 일으켜 세우려는 우리들의 서원이 원만성취 되도록 무량한 가호와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홍보영상 '1700년 지혜' 제작

4개 국어… 해외공관 배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한국불교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기 위한 홍보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했다.

'1700년의 지혜'라는 제목의 홍보영상물〈사진〉은 8분56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됐다. 동영상은 1700년의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를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향후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의 새 홍보영상은 해외공관과 외국 소재 사찰 및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우선 배포된다. **신중일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❶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❸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12월 27일

❹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석굴암 곳곳 균열… 안전 대책 필요

'2012 석굴암보고서' 살펴보니 56곳 결함 확인

한국불교문화의 정점인 불국사 석굴암의 균열이 상당 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1월 8일 "석굴암의 균열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실제 문화재청을 통해 입수한 '2012년 석굴암 보고서'에 따르면 석굴암에 균열이 생긴 곳은 본존불과 대좌 주위의 사천왕상, 천정까지 총 56곳에 이른다.

당시 연구 조사는 △성능저하부 △변위 △압축강도 △균열거동 △진동 등 5개 분야에 거쳐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관찰 결과 이전 조사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대좌의 방향성 절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났다.

보고서는 "본존불의 대좌는 방향성을 가진 절리성 균열이 발달돼 있고 박리?박락에 따른 손상과 이격이 있다"면서 "본존불과 대좌 사이에는 불균등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 절리성 균열과의 상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실 천정에서는 균열, 흑화 및 보수 흔적과 변석이 조사됐으며, 내부 기둥은 파손과 박리, 균열이 발견됐다"고 기술했다.

변위, 압축강도, 균열거동, 진동 조사에서는 모두 향후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변화 추이를 살필 것을 보고서는 당부하기도 했다.

석굴암의 균열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균열 자체를 살펴보면 석굴암 조성 당시까지 소급할 만큼 오래된 것이라 '진행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는 전문가들은 석굴암을 여러 차례 보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석재를 사용하다보니 균열이 심해졌다면서 앞으로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석굴암 안전에 충분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석굴암 균열이 진행되는 것은 오래됐다. 시기도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하다"며 "이제는 제대로 점검해 본존과 대좌가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너짐 방지를 우선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상에 대해서는 "왼쪽 무릎 앞부분이 길게 금이 가 있다. 그것이 벌어지면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석굴암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제2석굴암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석굴암 보고서 수록된 대좌 균열 모습.

대좌 중심으로 절리 현상
불균등 하중 상관성 제기
문화재청 "모니터링 지속
정밀조사 통해 대책 강구"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균열과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 문화재 보수 공사는 매우 부실하다. 문화재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2석굴암에 대해서는 "현재 석굴암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성보 문화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현재 석굴암을 보존하는 데 국민의 원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과 지적에 대해 문화재청도 정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11월 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석굴암에 대해서는 1996년 매년 2~3회에 걸쳐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미세균열과 석재 풍화 등에 대해 과학적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존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콘크리트 등의 변형시설물과 훼손된 부분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을 찾아 복원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청년 불자, 농활로 밀양 돕기

불시넷 등 11월 1~3일 가을 봉사활동

청년 불자들이 송전탑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밀양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 평화재단 청년포럼 회원 23명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밀양 가을농활을 진행했다.

밀양 상동면 고정리 고답마을회관에서 머물며 진행된 이번 가을 농활에서 참가자들은 감 따기와 고추 수확, 콩 수확, 볏단 베기 등의 농사일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또한 회관 인근의 도곡 농성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지킴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11월1일 오후농활을 끝마친 참가자들은 밀양시내 번화가인 영남루 인근에서 밀양에 대한 각자의 바람을 적은 펫말을 들고 '걷기명상'을 진행했다. 명상에 이어 고답마을회관에서 '밀양 765kv 초고압송전탑반대 대책위' 활동가들과 함께 대책위의 입장을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2일에는 도곡농성장 지킴이 활동과 부북면 위양마을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3일, 오전농활과 함께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도곡 농성장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2박3일간의 농활일정을 모두 마쳤다. **신중일 기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 평화재단 청년포럼 회원들은 11월 1~3일 밀양 가을농활을 진행했다.

인각사와 일연 스님의 흔적 한자리에

불교중앙博 기획특별전 '역사의 향기를…' 내년 1월까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원학)이 인각사의 주요 발굴유물과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내용을 공개하는 전시를 갖는다. 기획특별전 '인각사와 삼국유사 ? 역사의 향기를 따라 천년의 숨결을 만나다'는 11월 12일~2014년 1월 12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8년 인각사에서 출토된 청동병향 등을 비롯해 불교문화재 총 77건 195점 (보물 5건 7점, 시도유형 3건 3점 포함) 등 인각사와 〈삼국유사〉 관련 유물을 한자리에 모았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인각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 이래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또한 일연 스님이 민족의 보전(寶典)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으로 이와 관련한 불교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았다"고 전시의 취지를 전한다.

'인각사와 삼국유사'는 △인각사의 창건 △일연 스님의 주석과 인각사의 비상 △〈삼국유사〉의 탄생지, 인각사 △ 천년고찰의 쇠락과 인각사의 미래 등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2008년 10월 26일 발굴된 불교금속공예품이 첫 공개돼 눈길을 끈다.

불교중앙박물관 김추연 연구원은 "불교금속공예품 10여점은 9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그 하나하나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다. 인각사 출토 불교금속공예품 중 청동병향로, 청동향합, 청동정병은 중국 하남성 낙양 신회선사 묘탑 발견 공양품과 비교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괄 출토품으로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이외에도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주요 발굴유물도 전시해 인각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동병향 등 발굴유물 첫 공개
인각사 관련 보물 등 193점 전시

이번 특별전에서는 일연 스님과 관련된 유물도 눈길을 끈다. 일연 스님은 어머니를 곁에서 모시고자 인각사를 하안소로 삼아 내려왔다. 이후 스님은 인각사를 고려시대 구산선문을 주도해 간 중심사찰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 스님이 입적한 후 인각사에는 '인각사 보각국존 정조탑비'가 왕명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김 연구원은 "이 비는 민지(閔漬)가 찬한 내용을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하여 조성했는데, 중국에서도 탁본을 요구할 만큼 유명했다. 더불어 조선시대 선비의 서법 연구를 위한 탁본의 대상으로 수난을 겪었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비의 탁본첩을 모아 과거 비의 모습을 그려보고, 현재 남아있는 보각국사비의 중요성을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탑본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조선초기의 범어사본을 비롯해 근대 간행된 〈삼국유사〉까지 시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온 고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에 담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단군을 제석천으로 숭상한 이야기, 역신을 물리친 처용, 아이의 눈을 뜨게 한 천수천안관음보살, 선덕여왕과 모란꽃에 관한 이야기 등을 소재로 관련 유물을 함께 전시한다. 아울러 〈삼국유사〉에 언급된 당시 고찰의 흔적과 불교미술품을 찾아보고 원효 · 의상 스님 등 당대 고승들의 행적과 저술했던 책을 소개한다. **정혜숙 기자**



인각사에서 출토된 불교 금속 공예품들. 불교중앙박물관은 11월 1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인각사 성보 기획 특별전을 개최한다.

천태종 복지재단 내년 예산 303억원

8일 이사회서 확정

천태종복지재단의 2014년 예산이 3백 3억 9백 6십 4만 1737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3년 1차 추경 예산 대비 23억 5225만 8951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도정, 천태종 총무원장)은 11월 8일 서울 관문사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14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외에도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2013년 추경 예산안 △산하시설 운영규정 변경안 △진해금강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임명의 건 등이 논의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재가연대 '올해의 재가불자상' 추천 공모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이수덕)가 '2013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를 추천받는다.

재가연대는 "2011, 2012년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원래 취지를 살려 불교와 사회발전을 위해 주체적이고 개척자적인 노력을 한 재가불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2013, 올해의 재가불자' 수상자는 2인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2013년도, 올해'의 의미 있는 이슈들과의 관련성, 참여불교정신에 비추어 본 사회적 실천성, 재가불자들의 의식과 신행의 바람직한 변화에 미칠 영향력, 올바른 사부대중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여도 등이다.

후보자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모두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후보자 개인 이력서와 추보자 추천서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며, 재가연대 사무처에 접수하면된다. 수상자는 12월 12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7시 우리함께 회관 2층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리는 2013 참여불교재가연대 '회원의 밤'에서 이루어진다. 수상자는 상패와 각 1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 《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 《직지》를 연기론적으로 풀어낸 《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禪)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직지》에 담긴 게송과 선문답에 대한 촌철살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시공을 초월한 지혜를 열어줄 것이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Tel. 02)732-2403~4 민족사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하게 사는 법

붓다의 인생 코칭

불교는 현실적이지 않다??
붓다가 일러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의 지침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 감정이 얼굴에 쉽게 나타나는가? 상사와의 갈등에 괴로운가?
현대사회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정확한 결단이 매순간 요구된다. 이 책은 빠른 결단을 내리는 법, 새로운 부서로 발령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등, 혼잡한 출퇴근길을 겪으며, 커피와 야근이 일상화된, 고단한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인생 코칭이다.

■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 유윤한 옮김 / 신국판 / 10,800원

Tel. 02)732-2403~4 민족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Tel. 02)732-2403~4 민족사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 요코야마 코이츠(横山紘一) 지음, 김명우 옮김 / 232쪽 / 10,800원 / 4×6판

Tel. 02)732-2403~4 민족사

일 주 문



안양교도소 독경대회 개최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11월 5일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화엄산림대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3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 '화엄의 세계'를 거행한다.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점안식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11월 20일 소조사천왕상 점안식을 거행한다.



법화경 일요경전법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11월 1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마곡사 심검당에서 법화경을 주제로 일요경전법회를 연다.



조계사 사천왕 점안식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1월 26일 조계사 일주문에서 사천왕 점안식을 개최한다.



천강월 전시 개최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은 제9회 개인전 '천강월'을 10월 29일~11월 3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가졌다.



'계율의 현대화' 심포지엄

김종규 교단자정센터장은 11월 28일 오후 2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불교의 현대화' 제2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도다완, 수행승 찻사발일 가능성 높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센겐시쓰 대종장 대담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11월 6일 서울 신라호텔 미팅룸에서 일본 다도계의 큰 어른이자 일본의 대표적 다도가문인 우라센케(裏千家)의 센겐시쓰(千玄室 · 90) 대종장(大宗匠)과 대담을 가졌다. 이는 세계일보가 마련한 행사로 이도다완〈사진〉이 일본의 대종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다완임을 인정받는 자리였다.

이번에 공개된 이도다완은 16세기(조선초)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품으로 모양과 비파색 등에서 이도다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박동춘 소장은 "이 다완은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고, 한번도 쓰이지 않은 채로 전해져 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도다완이 만들어질 당시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다도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정읍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 이도다완은 국내의 한 도자기 마니아가 소장해 왔는데 4년의 감정 과정을 거쳐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름 14cm, 높이 8cm, 무게 265g으로, 이도다완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이 이도다완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기자에몬(喜左衛門)'을 능가하는 미감을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조선초 제작 이도다완으로 추정

日국보 '기자에몬' 보다 완벽 평가

내면적 온기 생생히 전해지는 걸작



센겐시쓰 대종장이 인정한 '이도다완'.

박 소장은 "어린아이 피부 같은 촉감에서 내면적 온기와 깊이, 포용성, 도공의 심성, 예술미의 천연성이 생생히 전해지는 것 같은 걸작이다. 역사 이래로 우리의 미적 심미안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를 깊이 느끼게 해주는 다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소장은 "미술품 감정 1호인 이동천 박사를 통해 진품이라는 평가가 났으며 기자에몬 보다 완벽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것도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감정은 다완을 많이 사용해 안목이 높은 대종장을 통해 최종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이도다완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막사발로 알려져왔던 이도다완이 찻그릇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그릇이 가진 위엄이 대단하다. 이는 다완의 주인이 불교의 스님, 도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초의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차문화를 연구해오던 박동춘 소장은 이를 계기로 고려에서 조선초기의 차문화를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장엄한 불교의식에 현지인들 큰 관심 보여"

인도 마하보리사원 초청 영산재 시연한 봉원사 일운 스님

"우리 한국불교문화의 정수인 영산재에 대한 관심이 인도와 네팔 현지에서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 성지에서 공연하는 우리들을 보며 현지서 만난 관광객과 현지 불교 관계자들은 연실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며 '원더풀'을 연발했습니다. 우리 영산재가 세계인들에게 한발짝 성큼 다가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9박 10일간 부처님 7대 성지를 순례하며 돌아온 일운 스님은 그간의 감회를 이렇게 밝혔다.

첫 공연은 부처님 탄생 성지인 네팔 룸비니에서 시작됐다. 1시간 30분 동안 안산 천수사 육법공양팀의 공양 의식에 이어 바라춤과 나비춤, 요잡 등 영산재 의식의 핵심 작법을 선보였다.

이후 열반당인 있는 쿠시나가르 열반사에서 가사공양과 함께 공연을 했고, 마하보디대탑과 녹야원, 영축산 등에서도 작법무를 선사했다.

"이번 공연팀에는 안산불자들의 음성공양 모임인 사리자합창단과 영산재 보존회 스님, 육법공양팀 등 총 5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서 할 때만큼 모든 것이 갖춰진 공연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영산 작법 및 범패 의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붓다가야에서 열린 영산재 시연회와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봉원사 주지, 원안)

보통 영산재 공연에는 괘불이 등장했지만, 모두 공연 장소가 부처님 성지여서 별도로 필요가 없었던 것도 특징이었다. 특히 영축산에서는 빡빡한 일정 때문에 어둑한 새벽에 올라가 공연을 하기도 했다.

"저희 보존회를 초청한 마하보리사원 관계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 영산재를 직접 접해 보니 작법의 장엄함에 저절로 법열감을 느꼈으며, 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영산재가 선정됐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제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일운 스님은 앞으로 우리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1년에 1~2회씩 해외 공연을 계속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중국 허북성 옥천사에서 공연을 갖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평론 학술상 신규탁 교수 선정

〈규봉종밀과 법성교학〉으로, 시상식은 12월 19일



〈불교평론〉이 불교학 진흥을 위해 매년 수여하는 '2013년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로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불교평론〉 '올해의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신규탁 교수는 〈규봉종밀과 법성교학〉를 통해 중국불교사에서 '법성'이라는 개념을 발굴해 재해석하고 그 적용까지 원리를 확장했다"며 "법성의 관점에서 중국 화엄사상 · 선불교 · 정토사상을 비판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점을 높게 샀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어 "'법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논의를 더욱 탁마하여, 불교학은 물론 철학의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고 확장해가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연구비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12월 19일이다.

노덕현 기자

통합선교종 제1회 호국불교통일법회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이 주최하고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가 주관하는 '제1회 전국호국불교통일기원대법회'가 11월 1일 세종시 세종시민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스님, 명예이사장 화엄 스님, 부원장 상원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장 법혜 스님, 세종사암연합회 회장 수환 스님,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 협력관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108산사순례기도회, 7주년 기념법회



2006년부터 한국 신행문화에 새장을 연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혜자)가 11월 5일 도선사에서 7주년을 맞은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과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비롯해 이재오 국회의원과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등 사부대중 4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혜자 스님은 "도선사에서 순례의 첫 발을 디딘 후 7년간 85차례 순례를 마쳤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꿈만 같다"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보살행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금강합창단 '심인의 소리'



진각종 대구 금강합창단은 11월 2일 대구 아양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진기 67년 금강합창단 정기연주회 '心印의 소리'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회정 통리원장, 정효 대구교구청장, 금강합창단 지도스승 관명 정사 등 500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는 범종소리에 이어 죽비 2성으로 시작되어 '내 마음의 부처' '법고소리' '사랑하는 이여' '향수' 등을 선보이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적셨다. 특히 대구예술대 실용음악과 이상직 교수의 색소폰연주는 좌중의 호응에 흥겨움을 더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정토회 길벗은 11월 4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서 법륜스님 초청 법회를 가졌다. 법회를 마치고 봉사자와 스님의 기념촬영 장면. 이날 법회에는 5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 기획 · 홍보 · 진행 등을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003년 길벗은 7명의 수행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1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창립 멤버인 길벗 대표 노희경 작가.



길벗 창립멤버인 배종옥 씨의 JTS 거리 모금 캠페인 장면



길벗은 매년 2회 법륜 스님 초청 법회를 연다. 지난 11월 4일 법회에는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길벗은 매년 5월과 12월 명동에서 국제구호 단체 JTS와 제 3세계 어린이 돕기 거리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배우 한지민 씨는 매회 캠페인에 참여 홍보대사로 꾸준한 봉사를 펼치고 있다.

도반과 함께 10년 "행복의 길 찾았아요"

창립 10주년 맞은 방송·문화·예술인 모임 '정토회 길벗'

11월 4일 오후 6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은 정토회 길벗(대표 노희경)이 주최하는 법륜 스님 초청법회 준비로 분주했다. 여의도역에서 강연장까지 안내를 맡은 실외팀부터 손님들을 접수하는 접수팀, 그리고 차담팀, 실내안내팀, 영상팀, 물품팀 등으로 나뉘어진 50여 명의 봉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다하며 환한 미소를 띠었다.

오후 6시 30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로비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길벗 봉사자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익숙한듯 차분한 마음으로 접수를 받고 환한 웃음으로 차를 대접하며 강연장 안으로 손님들을 안내했다.

방송 · 문화 · 예술인으로 구성된 정토회 길벗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3년 11월 1일 소모임으로 시작한 길벗, 마음공부를 하던 7명의 수행자가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는 봉사자로 거듭나며 10년만에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로 거듭났다.

길벗 지도법사 보수 법사는 길벗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정토수련원의 깨달음의 장을 다녀온 드라마 작가 이금림 노희경 씨, 배우 배종옥 씨 등 7명의 회원이 모임을 갖다가 수행모임으로 발전을 한 것이 길벗입니다. 처음부터 무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21배로 가볍게 기도를 시켰는데 다들 반응이 좋았죠. 이후 108배로 절 배수를 늘리면서 모두들 수행에 재미를 붙였어요."

이렇게 4년을 이어오던 길벗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자 정식 법회를 갖기 시작했다. 2007년 10월 15일 정토회 서초법당에서 공식적인 길벗 법회를 처음 열고 이후 매달 방송 · 문화 · 예술인들을 위한 마음공부의 장을 마련해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길벗은 한 해에 두 번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을 빌려 법륜 스님 초청 법회를 연다.

법당이 아닌 여의도에서 법회를 여는 것은 종교를 초월해 방송 · 문화 · 예술인들이 좀더 쉽게 법문을 접할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다. 법회 기획부터 홍보 그리고 당일 행사진행 모두가 봉사자들의 노고로 이루어지며 행사비용까지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길벗의 여의도 초청 법회다.

길벗 총무 전혜진 씨는 여의도 초청 법회는 회원들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낸 법회라고 강조한다. "법륜 스님 초청법회는 2008년 11월 3일부터 시작해 이번이 13번째예요. 올해도 500여 분이 오셔서 강연을 들었어요. 초청 법회 한 달 전부터 회원들이 짬을 내 여의도는 물론 홍대 대학로 등 방송 문화 예술인들이 밀집해 있는 곳을 찾아가 포스터를 붙이고 시민들에게 초대엽서 나눠주기 등의 홍보를 하죠. 이후 행사장 대여, 물품준비 등을 거쳐 당일날 법회까지 봉사자들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땀으로 일군 법회다 보니 길벗 법회는 회원 모두가 주인이다. 2007년도부터 길벗에서 영상과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강두석 거사(KBS 영상미디어팀 부장)는 아내 송명심 씨와 함께 봉사와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불교를 접하면서 수행과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

노희경 작가 등 7명 수행모임서
100명 회원의 정기법회로 정착
매년 법륜스님 초청 대규모 법회
제 3세계 어린이 돕기 캠페인도

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법륜 스님을 통해 수행과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봉사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상으로 봉사하며 보람을 얻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청법회와 더불어 길벗의 또다른 큰 행사가 5월과 12월 명동에서 펼치는 국제구호단체 JTS와 함께하는 '제 3세계 어린이 돕기 캠페인'이다. 천원이면 아이들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고 5천이면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회원들이 모금통을 들고 거리를 나선 것이 벌써 7년째다. 방송인 김병조, 배우 배종옥, 한지민, 박진희, 임세미, 표민수 PD, 한지승 감독, 노희경 작가 등을 비롯한 회원 130여명은 이번 5월 캠페인에 참여해 7,823,450원의 모금을 했고 이는 필리핀의 아폴란 마을 초등학교 건립에 사용되었다.

거리모금의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병조 씨는 "재능을 가지고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더없이 큰 공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타자리라는 말이 있는데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모금활동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며 소감을 전한다.

배우 임세미 씨는 "길벗을 만난 이후로 세상에 쓰이는 일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봉사활동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더불어 산다는 것이 행복임을 알았다. 단돈 천원 한 장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배웠다"며 봉사의 기쁨을 이야기 한다.

길벗은 이렇게 10년 동안 수행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법을 전하는 일을 하며 개인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밝히는 일을 이어왔다.

길벗 노희경 대표는 "길벗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10년 동안이나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며 길벗활동을 하는 소감을 전했다. 길벗은 오는 12월 21일에도 명동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수행하고 나누면 일이 더 소중해져요"

정토회길벗 지도법사 보수 법사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삶의 척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외롭고 힘들어지고 내면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죠. 이럴 때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봉사를 통해 이웃과 나누다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수행모임으로 시작해 월 정기법회를 열고 제 3세계 어린이 돕기 캠페인까지, 수행 보시 봉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길벗 회원이 있기까지는 정토회 보수 법사〈사진〉의 지도가 큰 힘이 되었다. "처음에는 회원들이 108배도 하기 힘들어 21배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후 108배 기도가 정착이 되면서 10년씩 수행하는 회원들이 생겨 났으니 큰 발전을 했죠. 현재는 봉자들을 중심으로 1년에 두 번씩 집중정진을 통해 수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수 법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수행을 하고 고민을 나누고 봉사를 하다보면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나누는 일에도 적극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길벗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 스스로가 좋아졌어요. 특히 길벗에는 방송 쪽 회원들이 많은데 이 분야가 인기, 돈 등의 문제에 치우쳐 괴로울 가능성이 많잖아요. 회원들은 길벗을 통해 자기 삶의 중심을 잡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길벗이 직장 직능 분야의 좋은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거리모금에 참여한 길벗 봉사자들. 길벗은 오는 12월 21일에도 명동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을 연다.

시련이야말로
명상이
진정 필요한 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툼이 생겨 괴로울 때,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슬픔과 불안, 두려움, 분노로 마음이 괴로울 때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삶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두드릴 수 있는 문이다.
- 존 카밧진, 추천사 중에서

마음을 꿰뚫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가르침은 모든 위대한 스승의 특징이다. 잭 콘필드는 내적 평화와 치유를 위한 부드럽지만 매우 강력한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슴 뭉클하며 매우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완벽한 이 책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 릭 핸슨, 『붓다 브레인』의 저자

이 작고 아름다운 책은 보석이다.
이 책은 당신이 어려움의 한가운데 처했을 때 당신의 본질인 영혼과 사랑, 지혜를 다시 일깨우도록 도와준다.
- 타라 브랙, 『받아들임』의 저자



미국불교 5대 지도자 중 한 명인
잭 콘필드 박사의 8가지 명상

- 대지는 나의 목격자
- 연민 나누기
- 시련 속의 붓다
- 용서의 실천
- 치유의 사원
- 아픈 마음의 선(禪)
- 평온과 평화
- 최선의 의지

잭 콘필드 지음 | 정준영 옮김 | 192쪽 | 13,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명상!
하고 싶지만
왠지 어려운가요?

잭 콘필드 지음
추선희 옮김 | 156쪽
12,000원

초보자를 위한 본격 명상 입문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과 창의력
마이클 조던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기획력과 업무력 향상
평온한 마음과 면역력 증강

목동 국제선센터, 간화선 집중 수행

11월 29일~12월 1일…선방과 동일 방식 진행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는 스님들이 선방에서 생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되는 것이 특징이다.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29일~12월 1일 '간화선 집중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화두를 챙겨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겨나가는 지혜와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다.

템플스테이는 국제선센터 선감 탄종 스님과 국제차장 천조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스님들이 선방에서 생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불교와사상의학연구회에서 템플스테이 전과 후의 참가자들의 심리 변화를 측정해 참가자 본인의 심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선센터는 "참선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사람, 참선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른 지도가 필요한 사람 등 참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내 · 외국인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02)2650-2242

이나은 기자

"절반의 책임, 아빠(엄마)는 어디있나요?"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 포럼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정경연)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회장 이영호)가 11월 4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포럼 '절반의 책임, 아빠(엄마)는 어디있나요?'를 개최했다.



미혼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확보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는 2011년 4월 결성된 두리모지원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국 22개 기관 및 개인 회원이 소속되어 두리모(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이슈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양육 두리모 당사자 두명이 사례를 발표하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박사의 '미혼 한부모 자녀양육비 실태 및 확보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착한벗심리상담센터 권경희 대표의 '두리모 양육비 청구 관련 상담사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영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혼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을 위한 활동이 관심있는 사람들만의 공론화된 활동이 아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의 호응으로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두리모들이 자녀양육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촉구 서명용지를 전달하는 전달식이 진행됐다. 2012년부터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한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촉구 서명활동은 현재까지 약 5천여명이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촉구를 공감하여 서명활동에 동참했다. 이나은 기자

공생과정 졸업생, 자발적 수행 개발 '눈길'

한마음과학원, 10월 20일 수행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한마음과학원은 10월 20일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사례로 살펴 본 한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자발적으로 운영된 수행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마음공부 프로그램인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각자의 사회적 역량을 발판삼아 자발적으로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대행 스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사회교육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시작한지 10여 년이 되어간다"며 "그 동안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각자의 사회적 역량을 발판으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한마음과학원은 10월 20일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사례로 살펴 본 한마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자발적으로 운영된 수행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사례는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형제회와 경남한마음인성교육연구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이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형제회는 '보리문둥이들의 첫 발 내딛기'를 주제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법형제회는 "대구지역은 개인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모임과 계를 갖고 있는 곳이며 타 지역 보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곳이다. 이로 인해 가족과의 소통이 소홀해지고 사회적으로 황혼이혼과 청소년 인성문제, 자살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형제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장의 역할 속에서 나를 찾고 나누는 마음도리를 실천해 소통과 화합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자 프로그램을 기획 ·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형제회가 진행한 프로그램 '쉬어가는 길'은 입재부터 회향까지 5주에 걸쳐 진행됐다. 대구지원 법형제회 회원들과 자부회 회원들은 대행 스님이 가장의 역할에 대해 법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성찰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 화합 △우리는 한마음 한 가족 등 4단계 과정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어진 실천과제를 수행했다.

법형제회는 "가부장적인 지역적 성향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강의식이 아닌 실천과제에 대해 마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프로그램 후 참가자들은 서로의 유대감이 강화됨을 느끼고 가족 간 대화와 소통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11월에 참가자들과 함께 후속으로 심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한마음인성교육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발표가 이어졌다. 연구회는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에 교사불자회 및 진주지원 교사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들은 한마음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한나무 인성교육'을 듣고 발심한 조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과정'을 공식 승인받고 '인성교육을 위한 셀프리더십 과정' 연수를 8월 5~9일 창원 도계초등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인성교육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 조화로운 학생지도 및 학급운영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을 같이 탐구하고, 내면의 힘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데 귀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한마음과학원 김용환 기획조정실장, 이경욱 원광디지털대 교수 등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해 경남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구회는 "현재 인성교육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표면에 나타난 행동만을 교육의 대상으로 한 결과, 학생들은 잠재능력인 무한한 지혜와 능력 발현을 위한 학습의 기회가 없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결여돼 있다"며 "'한나무 인성교육'은 교사라면 누구나 쉽게 지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연구회를 조직해 경상남도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회는 "23명의 연수 대상자 가운데 불자는 12명이었으며, 기독교, 천주교 신자를 비롯해 무교는 11명으로 다양할 정도로 셀프리더십에 관심을 보였다"며 "23명 가운데 19명이 교사 자신의 셀프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됐으며, 대부분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인성교육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한마음과학원은 "10년간 안양 본원에서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 모임이 탄생하는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공생실천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마음공부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미황사 '대입수험생을 위한 마음학교'

11월 30일~12월 28일 30명 모집



미황사는 11월 30일~12월 28일 수험생들을 위한 마음학교를 연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대학입시로 지친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수험생을 위한 마음학교'를 연다.

'대입수험생을 위한 마음학교'은 5주에 걸쳐 미황사와 국립중앙박물관, 템플스테이관에서 열리며, 명상과 은유치료, 불교인문학, 템플스테이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차는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2차는 12월1일~29일, 매주 일요일 오후 2~5시에 열린다.

명상은 나 자신과 가족 주변의 모든 것에 밝고 맑은 마음을 회복하는 계기를, 은유치료는 새롭고 긍정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또 불교인문학은 불교의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기회를 준다.

템플스테이는 12월 6~8일 미황사에서 열린다. 참선, 108배, 다도, 땅끝 바닷가 걷기 등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지도법사는 참선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80회 진행한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상담학과 교수인 명법 스님이 참가자들과 함께 일정을 진행한다.

미황사는 "10대의 아이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에 몰입한 적은 있어도 단 1시간만이라도 자신에 대해 집중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초중고 입학과 달리 어른이 되는 문턱에 서있는 모든 것이 불안한 20살 즈음에 '마음학교'는 학교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차, 2차 각 15명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회비는 템플스테이 비용을 포함해 20만원이다. (061)533-3521

이나은 기자

공고 제2013-3호

10 · 27법난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1.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2013.11.11. ~ 2014.12.31.(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2)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4)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3. 신청서 접수기관

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직접(방문) 제출 : 일과 시간 내(09:00~18:00)
2) 우편 제출 : 신청기간 내 도달

나. 주소 : ㉮110-30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유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 2)의 서류 생략 가능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산정

6. 심의 · 결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 · 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7. 기타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내 「피해자 신고서식」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전화 (02)738-6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 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바리스타·외식인력… 불교 복지관이 '앞장'

정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국고 80억 원을 추가 투입해 7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2.5%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2014년까지 2.7% 상향시키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복지시설도 장애인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업체와 연계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전문기술을 익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직업생활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적응지도 등 다양한 직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강릉시장애인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을 운영해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보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된 장애인들은 감자떡, 수제비 등을 생산·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직업재활팀을 운영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능력과 욕구를 고려한 적합직종을 개발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외식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마중물'에서는 외식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훈련을 지도하고 있다(사진 왼쪽).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산업 현장체험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사진 오른쪽)

특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외식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마중물'이 인기다. '마중물'은 외식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과정으로, 디시, 프랩, 홀세팅 및 직장예절 등 전문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강생 가운데 70~80%가 취업하고 있다. 외부 장애인복지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이천에 위치한 760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 12건의 구인 업체를 개발해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복지관은 그린나래 카페를 운영, 지역 카페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들이 음료 제조, 서비스 예절 등의 훈련을 받은 뒤 실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맞춤훈련과 커피머신활용법 및 음료제조법 훈련을 통해 카페 업종직무의 체험 및 직업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러한 훈련을 거친 학생들이 사업체의 근무현장에서 업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훈련기간 동안 직업재활전문가가 직무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완전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하고 장애인 취업 지원에 나섰다.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제과제빵 기술을 훈련받아 기능사 자격을 취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업훈련을 통해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단순조립이나 포장을 통해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1년부터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복지관은 2011년부터 전문청소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개설된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2008년 '연화 직업재활원'을 설립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청각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자폐장애인)들이 화훼기술 및 압화(꽃누름) 기술을 배워 전국 꽃배달 서비스 및 압화 생활용품을 보급·판매하고 있다. '연화 직업재활원'은 2009년 2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 장애인들이 고용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는 국내 230개 우수 중소기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경주시장애인복지관, 금강장애인복지센터,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다수의 장애인복지관들이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복지 단신

동국대 일산병원, '무료진료' 실시

송산실버문화센터 어르신 100여명 지원



송산실버문화센터 운영위원장 일면 스님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 봉사단 직원은 양·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불암사에서 운영하는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최재혁)는 11월 2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병원장 채석래)이 함께하는 양·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송산실버문화센터 운영위원장인 일면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 봉사단 직원 33명이 함께했다.

이날 연우회 봉사단은 접수 및 체중·혈압·혈당체크를 시작으로 건강 상담, 물리치료, 침술처방, 약처방 등의 질 높은 맞춤형 양·한방 서비스를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이번 무료 양·한방 진료를 찾은 어르신은 "나이가 많아서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상담도 받고 싶었는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처방도 해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송산실버문화센터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진료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중림복지관, 연탄·김장 나눔 행사

우리은행과 생필품·후원금 전달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임직원은 취약계층 10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3000장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11월 2일 우리은행(본점 영업부)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10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3000장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나눔의 온기로 만드는 따뜻한 겨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각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

우리은행 2003년 동기회 회원은 후원금 300만원을 모금해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해, 중구에 위치한 경로당 2곳과 지역 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청소년 역량강화 PACE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 후원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잃어버린 나 찾으니 기뻐요"

과천복지관, 중년여성 자존감 확립 프로그램 진행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갱년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매일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기분 좋은 일이나 우울한 일이 있었다면 이 친구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10월 25일 과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복)에서는 15여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원예치료프로그램을 받았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55세부터 65세까지 과천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갱년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생각연습하기, 생각의 걸림돌 제거하기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4회기와 생화꽂꽂이, 나만의 액자 만들기 등 원예치료프로그램 4회기, 새싹 비빔밥을 만들어 지역 내 독거어르신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등 13회기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다.

은빛여성의 healing-up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는 2012년 대학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선정 된 상명대학교 봉사동아리 틔움의 대상작으로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대학생의 참여유도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참여기회 확대하고자 2009년부터 대학생프로그램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11월 지원 환자 선정

이광훈 씨 신경섬유종증 투병으로 후원 절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1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로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이광훈(27) 씨를 선정했다.

이광훈 씨는 신경섬유종증으로 투병하던 아버지에 이어 서서히 운동신경이 둔해지며 증세가 나타났다. 2차례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호흡곤란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기관지절개술로 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하고 있다. 시신경이 마비돼 망막 이식수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월 70만 원씩 들지만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해서 전혀 일을 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군의 어머니로서는 감당하기 버겁다.



신경섬유종증을 앓고있는 이광훈(27) 씨

생명나눔은 "아픈 가운데서도 눈물 삼켜가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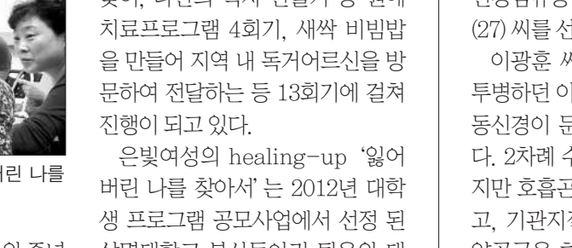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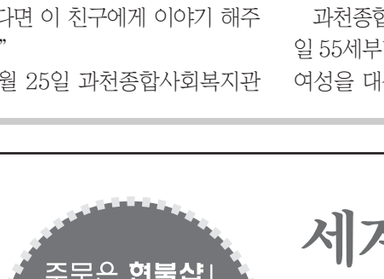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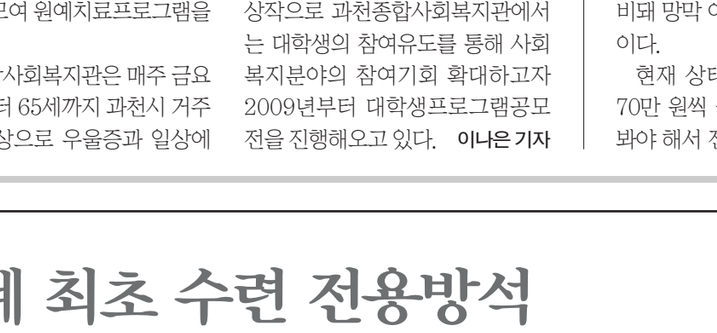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5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2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12월 6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만나는 이들과 ‘복’ 나누면 행복 보여요”

법안정사 관음재일 법회

성운 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관세음보살에게 정성을 다해 50일이고 100일이고 발원해 보라고 했다. 믿음을 가진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면서. 동시에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활로써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됨을 나누라고 했다. 거기서 분명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성운 스님은 확신을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 10월 28일 관음재일을 맞아 불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다잡아준 성운 스님의 법문을 들어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모든 종교의 목적은 중생제도에 있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10대 보살이 이 땅에 출현하신 목적은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아픔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제도하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자들 또한 깨달음을 이룬 후에 가장 먼저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이고득락이라 합니다. 고를 여의고 행복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비는 것은 구원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제도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타종교와 제도를 말하는 불교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누군가 ‘구원’ 해주는 것이고 제도는 스스로 고를 소멸하는 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성경도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평화방송도 자주 듣고 신부님들도 종종 만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취하면 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보류하면 됩니다. 무조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얽매여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 성인의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익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모두가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유가 그 죗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구원 받으려면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직접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용서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가 소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아담과 이브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원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한 번의 단순한 잘못으로 이렇게 큰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고통이 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에는 좋은 업과 나쁜 업이 있는데 보통 업하면 나쁜 업을 떠올립니다. 업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실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치에 밝지 않고 어두운 무명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거죠. 그래서 업이 쌓이고 고통이 옵니다. 엿과 비슷하다고 분필을 먹었다간 배탈이 나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무지와 무명으로 인해 고와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을 없애는 길은 무지와 무명의 소멸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망상, 번뇌, 탐욕을 소멸한 후에 완전한 자유, 열반을 얻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하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 여덟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주된 일이니까요.

정어, 정업, 정명을 통한 보시

또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번뇌, 망집, 탐욕의 소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하지 않고서는 업을 씻을 수가 없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성자들과 철학자들이 배움을 완성한 후에 하는 것이 말입니다. 복된 말이죠. 이를 도구로 중생들을 제도하니까요. 이 또한 나눔이자 보시입니다.

나누지 않고는 ‘업 · 불행’ 바꿀 수 없어
자신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면
이웃에 기쁨주고, 지혜 · 자비로 확대

말·행동·생활 정화가 수행… 매일 점검
“서로 믿고 서로의 관음 보살이 되자”

나를 제대로 이끌어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대화되면 자비입니다. 자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이 소멸되고 지혜가 나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인간 사이에 통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 업, 명이 정리 되어야 합니다. 어, 업, 명이 계로써 정리되었을 때 현실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너도 나도 평안해지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 업, 명을 정화해야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지혜의 힘이 나오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 업, 명으로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까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활로써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날 주판을 두드려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적자가 났는지 아닌지요. 자기평가와 자기점검을 매일 한다면 행복의 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어업명이 사람들한테 복되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지극히 참회합니다. 이것만 실천 수행하더라도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겪는 고통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된다면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도반에게, 나아가 사회에 자비심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운 스님은 … 속리산 법주사로 동진출가한 후 해인사, 대흥사, 화엄사 등 전국 유명 사찰에서 정진수행하였다. 사형 폐지운동협의회를 최초로 결성하여 활동하였으며 1980년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했고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였다. 그간 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표창,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고 2010년에는 만해대상 실천부문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불교사회복지론〉, 〈노인복지현장경험론〉, 〈부처님 고뇌의 미소〉가 있으며 편역서로 〈묘법연화경〉, 〈금강경 강해〉가 있다. 현재 인덕원 대표이사, 서울 삼천사 주지이다.

신뢰심, 청정심, 확정심

우리 모두 사는 게 괴롭고 마음 안에 있는 괴로움 때문에 이를 떼어버리고자 부처님 품을 찾아 왔을 것입니다. 고통이 소멸되는 데는 세 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뢰심, 청정심, 확정심입니다. 신뢰심이 강건해지면 믿음에 의심이 없는 청정심이 생기고 이는 다시 확정, 절대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변모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기본입니다. 가장 먼저 갖추어야할 것이 믿음이고,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은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관계 속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불평불만과 비난만이 나옵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긍정적 사고를 가진 도반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로를 믿고 아픔을 쏟아낼 수 있는 도반이 옆에 있다면 숨통이 트이겠죠. 그런 도반이 여러분에게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야 합니다.

주변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금덩어리가 나올 수도, 암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 법문을 듣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은 금덩어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어냅니다. 농부가 논에서 씨를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듯이 우리들에게는 사람이 논이고 밭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농사를 잘 지으면 좋은 작물이 나오겠죠. 돈, 명예 행복, 재수가 모두 인연 속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1년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10~15명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은 웃고 울고 찌푸리고 하겠죠. 서울시에 천만 명이 살고 있든 60억 명이 지구에 있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들이 나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하죠. 행복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10명 범위 내에서입니다. 나는 인이고 상대는 연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 작용하는거에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인연처를 명확히 아세요.

지금 여기서 행복해 지려면

어떠한 부를 갖다주고 명예를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해하고 탐욕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고통이 오기 마련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 100%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100%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불교에는 있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원이 있어 법당에 왔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주력하고 백팔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관세음보살 품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심으로 하다보면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절망하는 나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나’가 서게 되면, 관세음보살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내세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이 불행하면 내일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어제의 내일이 오늘이고, 내일의 어제가 오늘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오늘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해지려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신뢰심과 청정심이 굳건해져 확정심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자마자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50일 이전에 성취할 것이고 설령 100일내 성취 못하더라도 다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성취를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

거룩하고 성스럽고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에 기대면 고통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타력, 신앙의 가피입니다. 마음자리라는 것은 무한한 가피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끝없이 원하고 부르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마음법입니다. 마음에 먹구름이 끼이고 탐욕이 끼이면 내 눈 앞에 나타나는 모든게 탐욕이고 먹구름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거기서 깨어날 수 있을 때 습관과 악습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속에 천국, 지옥이 있고 불행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때, 탐욕을 씻고 자족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쌍둥이 자녀를 먹여는 살려야겠는데 밥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 밤에 폐지를 줍고 다녔습니다. 한발로 기어 다니면서 폐지를 주웠는데 겨우 3만원 벌더랍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더랍니다. 천원을 받아 천원을 다 쓰면 돈이 없고 천원을 벌어서 이천원치를 쓰면 부족한데, 천원으로 5백원만큼만 쓰니까 자족하더라는거죠. 탐욕에 쫓기지 않는 삶을 스스로 터득해 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는 집에서 외발로 뛰어다니면 아랫층에 사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바로 부처요, 예수입니다. 행복의 참 모습이고 그 자신이 바로 등불이 되죠. 삼각산에 꽃이 피어서 온 사방에 그 향기가 진동해도, 등산객들이 밟고 다니는 꽃 한 송이 속에서도 삼각산을 능가하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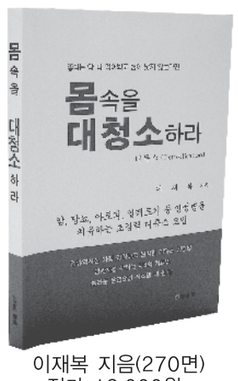
어떻게 살아가든, 자족한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의 자리요, 번뇌에서 해탈하고 열반의 진정한 자리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동북아 불교학’ 세계 불교학 발전 나선다

동국대, 도쿄 · 베이징 · 타이완대와 불교학 네트워크 결성

동국대가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타이완대와 함께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들 4개 대학은 2014년 첫 불교학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불교학 연구 및 교류에 나선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11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타이완대와 함께 내년 5월 동국대에서 ‘동아시아 불교 전통과 근대불교학’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열며 2년 마다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및 교류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국의 불교학 연구를 대표하는 곳이다. 동국대는 ABC(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을 진행 중인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 중국은 베이징대 철학과, 일본은 SAT(대정신수대장경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진행한 도쿄대 인도철학과, 대만은 CBETA(Chinese Electrinic Tripataka Collection)을 운영하는 타이완대 불학연구중심이 참여한다.

제1회 학술대회에서는 각 대학에서 2명과 함께 서구 불교학자 2명 등 발표자 총 10명이 발표한다. 세계화를 위해 논문과 발표 · 토론 등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발표자료는 영문 단행본으로도 출판할 예정이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이번 4대 대학 불교학 네트워크를 위해 직접 베이징대, 도쿄대, 타이완대를 찾아가 협의를 진행했다. 베이징대학 철학과 리스롱 교수, 도쿄대학 인도철학과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 타이완대 불교연구중심의 샤오리화 교수 등을 통해 이번 10월 각 대학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2014년 5월 제1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매년 워크샵 · 대회 · 영문단행본 발간
불교아카이브, 일 · 대만 노하우 접목
세계불교학계 동북아 중심 주창 기대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한국 대학이 나섰기에 껄끄러운 중일관계와 중 · 대만관계 등을 중재해 이번 계획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중일 동아시아 21세기 대장경 결집기대

김종욱 원장은 이번 4개 대학의 불교학 네트워크에 대해 “21세기 글로컬 대장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이번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 인문네트워크 형성과 세계학계의 선도 △한문불전 정본화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21세기 글로컬 대장경 구축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의 담론 생성과 동아시아 체제의 모색을 이끌 예정이다.

김 원장은 “ABC사업은 고해상도 원본 사진과 독자 개발한 한자 글꼴, 한국불교문헌의 집성 및 자국어 번역 등 지금까지 전산화와 아카이브 사업에서의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첨단 방식”이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웹 검색시스템 등 대만 CBETA와 일본 SAT의 노하우를 공유해 ABC사업의 결과물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중국은 역사분야의 동북공정에 이어 한문 전적을 집대성해 중국의 역사적 지적 소유권을 확대하는 ‘역외 한적공정’을 진행 중이다”며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학계의 공동대응을 위해서도 이번 대회의 정례화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측은 특히 이번 한중일 불교학 네트워크가 인도 · 티벳 중심의 불교 연구와 서구 중심의 세계 불교학 흐름을 동아시아로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동북아 불교는 무한한 문헌 자료와 함께 현재도 사회에 살아있는 문화”라며 “동아시아 불교학 네트워크가 세계 불교학을 이끔과 동시에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의 담론 형성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 공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강산 유점사 복원에 불교계 관심 갖자”

대륜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한목소리

신라고찰로 금강산 4대사찰 중 가장 크고 웅장한 대찰로 뽑혔던 유점사 복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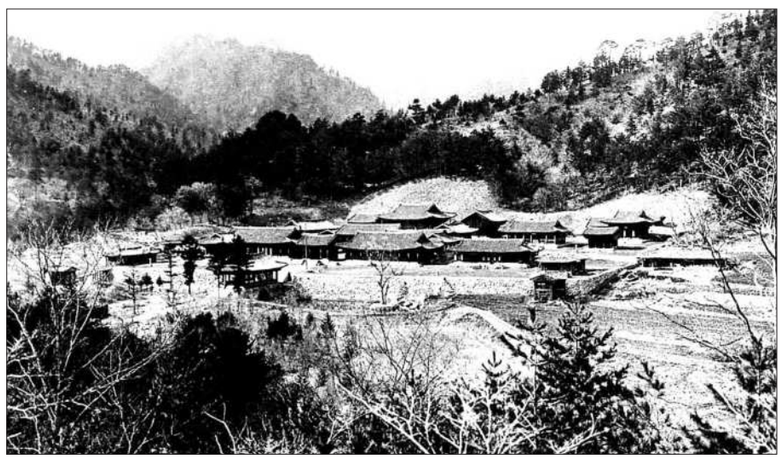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혜일)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는 11월 1일 ‘금강산 유점사와 경성포교당 법륜사’를 주제로 서울 법륜사 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금강산 유점사는 신라시대 창건돼 조선 태종 8년 3000여 칸으로 중건된 고찰로 금강산 4대 사찰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대찰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중 소실된 이후 휴전선 근처에 위치한 까닭으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세미나는 1929년 유점사에서 경성포교당으로 개설한 서울 법륜사가 유점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오경후 선리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조선후기 유점사 법맥과 수행 전통의 가치’에서 “금강산 유점사는 불교탄압이 극심했던 조선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 신성성과 신앙성으로 왕실과 지배층의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며 “더욱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의 불교계를 주도하는 요람이었다”고 유점사 위상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계의 유점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말도 이어졌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유점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께서 이곳에서 승병을 일으켜 지휘하셨고, 민족 항일기에는 31본산 중 하나로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거쳐간 곳”이라며 “불교계가 유점사 복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고양시청 학예연구사도 ‘유점사 범종의 제작 시기와 발원 계층’에서 “조선초 왕명으로 전국 유명 사찰에 불경 인경과 사찰 종수를 담당한 선승 학조가 국립춘천박물관 소장된 ‘前 유점사 동종’을 제작했다”며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금강산 유점사가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고성 유점사의 옛사진. 대가람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조각승 여찬의 활동과 불상 연구’,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조각승 여찬의 활동과 불상 연구’ 등 유점사의 위상과 활동 승려 등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2014년 상반기 중으로 ‘개성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세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사업 ‘최우수’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2013년도 인문한국(HK) 사업 평가에서 43개 연구소 중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함께 연세대 국학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강대 동아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등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HK사업은 인문학진흥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지원하는 인문학 및 해외지역연구 분야 연구소 지원사업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최근 하버드대학의 75번째 동양학총서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 인도, 동아시아, 그리고 티벳에서 유가사지론과 그 수용〉을 영문으로 공동 출간함으로써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 불교학을 중심으로 진입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이들 5개 연구소는 11월 14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인문한국(HK), 세계와 소통하다’ 포럼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김기봉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의 사회 속에 조성택 고려대 교수, 김태승 아주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노덕현 기자

고산문화재단 ‘가야’ 재조명 학술세미나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은 11월 16일 오후 1시 부산 혜원정사 대강당에서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연산동고분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백승옥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지역국가론’을, 김세기 대구한의대 교수가 ‘고고학적으로 본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연산동고분군’을 발표한다.

부산시지정기념물 제2호인 연산동고분군은 현재까지 고분 18기가 확인됐고 갑옷과 투구 등 2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한편, 혜원정사는 11월 17일 연산동고분군 앞에서 거칠산국 왕족 추모 및 연제구 평안을 위한 ‘제4회 연제구 거칠산국 고분군 왕릉제’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선불교 국제학술세미나

동아시아의 선불교와 철학의 관계를 고찰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박문현 · 곽만연)는 11월 23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동아시아 선불교, 철학적으로 사유하다’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사쿠마 겐유 고마자와대 교수의 ‘일본 선불교, 철학적 사유하다’ △천용거 절강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중국 임제종의 인성철학 사고 및 그 현실적 의의에 대한 고찰’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한국 선불교의 세 지평-그 철학적 회고와 전망’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보조지눌과 퇴옹성철의 불성론과 수증론’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신라사학회 제130회 학술대회

신라사학회는 11월 16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 제130회 학술회의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범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수태 충남대 교수의 ‘신라 신문왕대 친영례 시행’, 홍성익 강원대 교수의 ‘신라말 강원지역의 선종불교 전래와 창작과정’, 권영오 대저중학교 교사의 ‘신라 하대 시기 신라말 인식’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종교문화비평학회 ‘감각의 종교학’ 심포지엄

종교문화비평학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13년도 하반기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감각의 종교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고 · 중세 그리스도교, 티베트 불교, 현대 영화, 생태 의례, 사이버 의례 등 다양한 종교전통과 종교현상을 다루는 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행사에서는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티벳 탄트라 불교수행에서의 감각활용’, 우혜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사이버 불교의례의 구성과 감각의 배치’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최고 유망 전문자격증!

직업능력 개발원 등록 NO.2008-0538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위한 특별과정

■ 주관 및 시행 : 한국심리상담협회
■ 수험자료제공 : 한빛자격교육원「부설심리상담교육원」
■ 시 행 일 정 : 2013년 12월 14일(토요일) 오후 2:00～4:00
■ 시 험 장 소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제주, 기타「전국 동시실시」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구분	시험과목	출제문항	합격기준
1차 시험	ƒ‹심리학개론 ƒ‹임상심리학 ƒ‹이상심리학 ƒ‹교육심리학	각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1, 2차 동시 시행 (절대평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	ƒ‹심리상담 및 진단실무	단답형 및 O, X형 (20문항)	

☞종교지도자(스님)에게는 5% 가산점이 인정되며 합격 후 직무연수 교육은 재택으로도 가능합니다.

■ 등록대상 : 스님 및 불교관련 업무자로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이 풍부해지면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관련된 문제가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부부, 직장문제, 가정문제, 노인문제는 물론 종교단체(사찰, 교회)등에서도 가정사역, 치유사역 등 상담과 관련 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이 크게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에 심리상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및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 지도자님 및 종교관련 분야 업무자들에게 크게 부합되는 자격증이라 사료됩니다.

「합격을 위한 특수문제 별도 제공해 드립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등록문의 한빛 자격교육원 02)547-5346

통신판매 NO. 제2012-서울광진-0873호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풍문화축제 인기

11월 1~3일, 백양사에서 3년만에 보살계 수계법회 겸해 열려

붉은 빛 애기단풍이 물든 가을에 불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잔치가 펼쳐졌다.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11월 1~3일 백양사 경내에서 단풍축제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1일 오전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3년 만에 마련된 백양사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로 시작됐다. 백양사 본ㆍ말사 신도 10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방장으로 추대된 지선 스님이 전계사로 법문했다.

지선 스님은 법어에서 "보살의 계율은 삶을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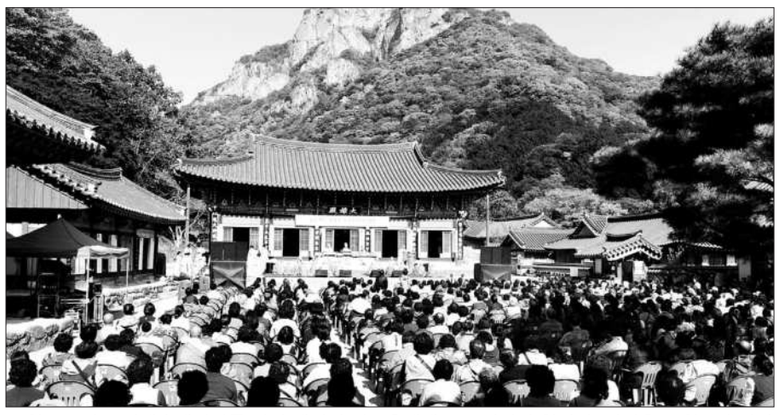
이날 참여한 신도들은 대승보살의 실천덕목인 48경계를 수지했다.

보살계 수계법회 이후 행사는 신도들이 참여하는 전통문화공연 '우리가락, 힐링이 되다' 로 이어졌다. 국악인 오정혜 씨의 사회로 창작국악그룹 도드리, 불교성악가 유현주, 승무 김주연, 전통문화연구소 회원들의 강강수월례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단풍축제가 한창 열리는 백양사 쌍계루 일원에는 전통사찰음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미각을 깨우는 맛, 담백(淡白)' 이라는 주제의 사찰음식 전시회 또한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사찰음식 전문가인 천진암 주지 정안 스님의 음식 조리 시연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오래전 사찰 부엌을 모형을 그대로 재현한 세트장과 사찰음식 안내 도우미가 나서기도 했다. 백양사 측은 행사장 주변으로 백양사의 사찰음식을 판매하는 부스가 마련해 시민들이 직접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1000여 명 수계법회 동참
축제 기간 20만명 방문 집계
사찰음식 시연 코너 등 큰 인기


11월 1~3일 보살계수계법회를 겸한 백양사 단풍축제에는 20만명이 찾았다. 사진은 11월 1일 열린 보살계수계법회 모습.

행사의 2일째에는 최근 음반준비를 하고 있는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과 인디어 수니, 곽우영의 통기타 음악과 박수현, 정혜정의 시낭송이 펼쳐져 가을단풍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의 마지막 11월 3일에는 열정과 흥겨움의 무대가 펼쳐졌다. 개그맨 김상호의 사회로 가수 박상철, 윤태규, 퓨전국악 아이리아, 벨레보체솔리스트앙상블 등이 출연해 흥겨움과 가을 낭만을 보여주었다.

주지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백양사가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백양사 단풍축제가 열린 3일간 20만 명의 구름인파가 몰렸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 농ㆍ특산물 판매는 관광객들이 북새통을 이뤄, 축제기간 7000만원의 달하는 매출을 올려 주변 음식ㆍ숙박업소도 모처럼 호황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백양사 단풍은 11월 중순까지는 절정에 이른 애기단풍을 볼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종교인 모여 평화합창제 열다


10월 31일 열린 종교평화제 마지막 공연에서 4대 종교 연합 합창단이 노래를 선보이고 있다.

군산지역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화를 노래한 자리가 마련됐다.

군산시 종교인 연합회는 10월 31일 군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4대 종단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시 종교평화합창제' 를 개최했다.

음악을 통해 상생과 화합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종교인 평화 합창제는 동국사 종걸스님, 원불교 최세종 교무, 천주교 박종탁 신부, 새길교회 정민 목사 등 군산지역의 종교지도자들과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동국사와 흥천사의 연합합창단인 그린비합창단(지휘 오종숙)이 '경사로다' ,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등으로 서막을 열었으며, 개신교 새길합창단(지휘 박호영)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노래했으며, 이어 원불교 원음합창단(지휘 정성웅)이 '기도' , '호심' 이 잰행됐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창제를 주관한 천주교 평화합창단(지휘 오봉천)이 '묵상' , '주님의 사랑' 등으로 무대를 장식한 후, 모든 출연자와 관객들이 함께 '잊혀진 계절' 을 부르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지난 2011년 군산지역 4대 종단 지도자들은 '군산시 종교인 연합회' 를 구성해 각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각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평화합창제를 마련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마다 종단 별로 합창제를 순차적으로 주관하기로 하고 원불교, 불교에 이어 올해 천주교가 세 번째로 주관했으며, 내년에는 기독교가 주관하게 된다.

종걸 스님은 "각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합창제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증심사에서 오백나한대재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인 증심사 오백나한전에서 열린 나한대재에는 300여 불자들이 함께 기도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11월 5일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받는 오백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제 13호)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백나한대재' 가 봉행됐다.

이날 대재가 열린 오백나한전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다시 지는 전각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 속한다. 특히 한국전쟁 때 사찰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오백나한전만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돼 왔다.

오백나한전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난, 가섭존자, 10대 제자, 16성중, 500아라한이 모셔져있다.

행사는 증심사 자향회의 육법공양 의식에 이어 전통불교영산회 호산 스님과 회원 스님들의 영산재 기도와 법요식이 진행됐다.

행사에서 대중들은 대재가 진행되는 동안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법문에서 "나한(羅漢)이란 수행자의 최고의 경지이자, 큰 스승으로 나한기도는 이런 나한의 깊은 뜻을 알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며 "불자 각자가 끊임없는 정진으로 나한과 같은 길을 걷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밤샘 독서프로그램 진행



밤을 새워 이어진 행사에서는 흥덕중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북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1월 1~2일 고창 흥덕중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운사에서 밤샘 독서 프로그램 '선운사 책으로 물들다' 가 개최했다.

1년 중 가장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선운사를 책으로 물들이겠다는 의미를 담은 '선운사 책으로 물들다' 프로그램은 단체 독서와 강연, 그리고 북 콘서트와 자유 독서로 이어졌다.

강연에는 고창 출신으로 한국문단의 젊은 시인을 대표하는 김근 시인이 나섰고, 북 콘서트는 통기타 그룹 이하이안이 맡았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의 즉석 시낭송까지 이어져 산사에서 맞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했다.

밤샘독서 참가자들에게는 김근 시인의 시집이 선물로 주어졌고 밤을 꼬박새우며 책을 읽은 학생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주어졌다.

선운사 밤샘 독서는 흥덕중학교가 학교 특색사업으로 진행중인 '흥책망책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 독서를 최우선에 두고 책읽기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 독서우체국, 빈 공간마다 미니도서관인 쌈지문고를 개설하고 독서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주 안국사, 무주절경 담은 사진작품 전시

전북 무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무주사진가협회(회장 이윤승)는 10월 21~27일까지 산상 전시회를 안국사에서 개최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길이 머무는 산 속의 사진전시회'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 전시회는 무주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지난 1년동안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 무주 구천동등 아름다운 절경을 소재로 적상산의 아름다운 단풍과 적상호의 일출, 적상산에서 본 능선, 장군봉, 안렴대 등을 담았다.

이번 전시회가 열리는 적상산 안국사는 사면이 층암절벽으로 둘러싸여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면 마치 여인들의 치마와 같다고 하여 적상(赤裳)이라 이름 붙여졌으며, 천일 · 송대폭포, 장도 · 장군바위, 안렴대 등의 자연명소와 적상산성, 안국사 등 유서깊은 문화 유적이 자리 잡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진 옴천사 청소년 가장에 장학금 전달



강진 옴천사(주지 정암)는 10월 30일 전남 강진군청에서 지역 청소년 가장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진원 강진군수, 정암 스님, 김용호 강진군새마을회 회장 등 강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에서 정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지역이라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손가정의 학생들과 청소년 가장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사회복지과를 통해 어려운 청소년가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옴천사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장학금과 생필품들을 청소년 가장들에게 전달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사찰'

44주년 맞은 삼광사 신도회

35만의 신도를 자랑하는 부산 삼광사신도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했다. 1969년 10월 15일 한 가정집에서 150여명으로 출발한 신도회는 부산 광명사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삼광사 창건불사를 주도 했다. 이 작은 원력의 씨앗이 현재는 35만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형 사찰로 성장했다. 삼광사의 눈부신 도약과 발전의 중심에는 항상 삼광사신도회(회장 이헌승)가 함께 있었다.

삼광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삼광사신도회의 힘이 컸다. 사찰이 있고 신도회가 발족한 것이 아니라, 신도회가 발족하고 사찰이 창건 된 것처럼 사찰운영의 주체가 사부대중이 항상 함께 참여하고 조율해 왔다. 바로 '참여와 소통' 에 있다.

삼광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다. 그 결과, 신도회 집행부의 14개 전문적 분과가 사찰종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종무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우선, 지역중심의 신행단체가 만들어졌다. 부산 16개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17개 지회가 조직되어 지역밀착형 신행공동체를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바쁜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주경야선' 을 주창하는 종단의 뜻을 받들어 '24시간 수행도량' 으로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산문을 개방해 왔다는 점이다.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부산 삼광사신도회가 11월 1일 창립 44주년 법회를 가졌다.

35만 신도 결집해 단체 구성
참여와 소통 문화 자리 잡아

1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삼광사 지관전은 대규모 법회 뿐 아니라, 사계절 24시간 기도객을 맞이하는 24시간 수행시설을 갖추고 있다. 참여와 소통의 사부대중 공동체, 24시간 개방된 법당 외에도 이웃들의 눈과 마음을 밝히는 배움의 길을 열어 준 한글학교, 생필품 지원사업, 목욕봉사 등을 통해 한결같이 지역의 빛과 벗이 되어 왔다.

제11대 주지 무원 스님이 취임하면서 삼광사를 '함께 찾아가는 힐링사찰' 로 선포하고, '지혜롭게 비움 · 행복하게 채움 · 아름답게 동행 ·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 을 모토로 삼광사 신도뿐 아니라 지역을 넘어 모든 사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삼광사가 이토록 발전하기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역대 주지 스님과 신도회장 및 간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 방면으로 신도들의 불자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살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불교를 삼광사에서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월 1일 오전 10시 경내 지관전에서 개최된 삼광사 신도회 창립 44주년 법회에는 장도정 총무원장 스님, 이문덕 종의회 의장 스님과 임혜경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여러 기관장과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동명대 '세계 선(禪)센터' 10월 31일 개원

내외국인 위한 수행 프로그램 제공

내국인은 물론,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의 선수행학교, 힐링, 가족행복나누기 등 한류문화의 글로벌 체험과 외국대학문화교류 등의 중심 기관 '세계 선(禪) 센터' 가 10월 31일 부산 동명대(총장 설동근)에 개원했다.

동명대는 10월 31일 교내 동명관 4층에 170명이 동시 이용 가능한 수련장, 다도실, 탈의실, 샤워실, 선원장실 등 총800㎡(240평) 규모의 세계선(禪)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동명대는 4년의 준비 끝에 세계선(禪)센터를 설립 교내 부속기관화함으로써, 전교생 인성교육과 한국문화 가치 재발견의 장으로 활용하며 부산을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체험, 외국대학과 문화교류 등의 중심기관으로 활동 할 계획이다.


동명대는 10월 31일 교내 동명관 4층에서 세계선(禪)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초대 선원장 수진스님(해인정사 주지)은 "세계선센터는 타 대학 학생과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전 교육원장 무비스님,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과 동명대 설동근 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함께 했다.

박경수 지사장

황해사 창건 43주년 기념법회

전통음식문화축제도 개최

천태종 포항 황해사(주지 이문덕)가 11월 5일 창건 43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을 비롯해 천태종 종단 스님과 황해사 신도 천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와 함께 황해사는 사찰 경내에서 전통 음식문화축제를 열었다.

황해사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전통 음식문화 축제는 사찰음식 문화 선양과 지역민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한편, 천태종 포항 황해사는 지난 1970년 창립한 후 1998년 현재의 5천여평 사찰부지에 사찰을 건립 지역사회 복지 활동과 포교에 힘을 쏟고 있다.


황해사 43주년 기념법회 장면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생명나눔, 11월 19일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제8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가 11월 19일 오후2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1부에는 100원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도, 2부는 유진박, 국악팀 하랑, 소프라노 박지인 등이 출연 희망의 노래로 진행될 예정이다. 후원금 전액은 난치병 환우 치료비로 사용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연등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양물

등을 밝힘으로써 번뇌와 무지에 싸인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고자 했던 것이 등공양을 있게 한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불교가 도입된 이후 등공양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정월 보름에 왕이 황룡사로 행차하여 간등(看燈)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곧 연등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정월 보름과 이월 보름에 국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연등을 밝히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국가적인 행사로 열렸는데, 의종 때에는 백선연이 사월초파일에 연등회를 시행하고, 고종 때에는 최이가 연등회를 열어 밤새도록 즐겼으니 이것이 오늘날 사월초파일 연등행사의 전신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한성장안에서 열린 관등놀이는 한성팔경의 하나일 정도로 큰 구경거리였다고 한다.

얼마 전 진주에서 열린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 장군이 진주대첩을 거둘 때 동원했던 군사전술이 시원이라고 하나, 이 역시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연등회와 무관하지 않다. 요즈음 서울 한 복판인 청계천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등불축제 역시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로 밝힌 연등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보면,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 등불축제를 여는 것이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불가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등공양의 전통이 숨어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사찰에서 사월초파일날 연등을 달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밤에는 거리행진을 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이 땅 모든 곳에 두루 비치기를 기원하는 연등회를 여는 것은 이제 국가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사월초파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달았던 연등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어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고 찢어져 너덜거리는 것을 보면 당혹스러울 정도이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달았던 연등을 하나의 장식물처럼 사찰에서 재활용하는 것 역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연등을 잘못 관리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등공양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된다.

사찰에 다는 연등은 등공양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공양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부처님오신날 달았던 연등을 철거하지 않거나 장식물처럼 재활용하는 것은 연등을 잘못 관리하는 예들이다. 사진은 대구광역시 ㅅ사찰. 연등을 나무에 장식물처럼 재활용하고 있다.

약사여래부처님이 상주하시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중생의 고통중에 병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중한 병고는 대부분 전생의 업장이 발현한 것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치병 난치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치유합니다. 의중대왕이신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업장소멸과 병고치유로 병마에 신음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열어드립니다.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현지사 고성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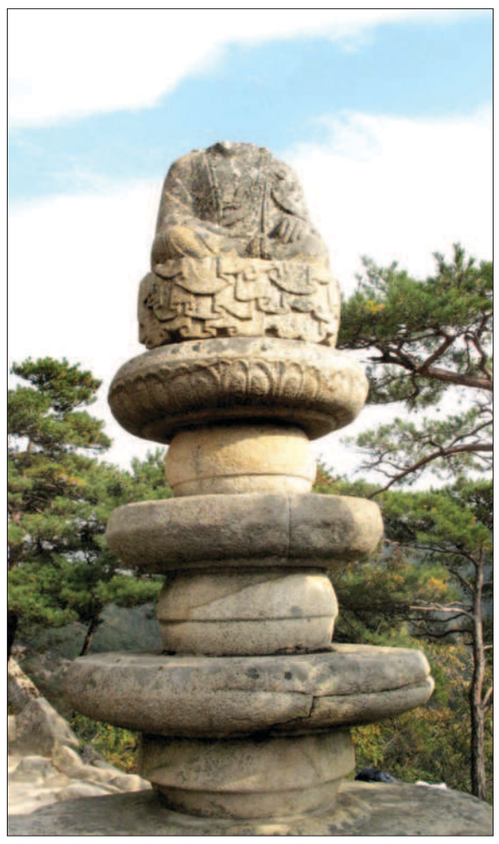
약사여래부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의 치유사례 – 서울시 천호동 유길순 불자)
뼈속까지 전이된 유방암 말기, 고통으로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못하던 제가
약사여래부처님 가피로 지금은 앉고 눕고 서고
뛰어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 온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배를 바닥에 깔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내면서 한달 반쯤 지났을 때 약사여래부처님께서
알게 모르게 온 몸을 차례차례 치유해주시는 가피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약사재일 – 매월 음력 8일 (9시 30분) 봉행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 공양 · 기도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길 7 전화 033)681-5515
영산불교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팩스 033)681-5538
※ 약사재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심을 선언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영산불교 현지사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 불적답사 회원들이 남산 용장사지 삼층석탑을 답사하고 있다.


용장사지의 삼륜대좌석 여래좌상. 매우 독특한 양식이다.


약수곡 제4사지의 불상에 대해 최민희 소장이 설명하고 있다.



답사회원들이 남산 금오봉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암 봉우리 올라선 석탑은 신라 佛心의 상징

신라인들의 수미산을 찾아서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경주 남산에도 내려왔다. 가을의 한 가운데에 찾은 경주 남산도 울긋불긋 단풍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주 남산에는 주봉이라고 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모든 봉우리가 저마다의 다른 높낮이와 특색과 이야기를 가진다. 경주 신라문화원 남산 불적답사단이 11월 답사에서는 남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금오봉에 올랐다. 약수곡에서 용장계까지 남산의 처처가 노상 불교 박물관이듯이 두 골짜기와 계곡에도 수많은 절터와 불상들이 존재한다.

산길 따라 펼쳐진 약수곡 사지들

남산을 오르기 위해 선택한 곳은 약수곡이다. 약수곡은 현재 경주교도소의 뒤편으로 이 길을 따라 오르면 금오봉이 나온다. 약수곡 내에는 5곳의 사지와 석조여래좌상과 마애대불, 2구의 불상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무문토기, 고분군들이 산재해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약수곡 입구에서 900m정도 올라가면 제1사지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5개 사지 중 유일하게 탑지가 확인된다. 사지의 가장 상부에는 무너진 탑재들이 즐비하다. 현재는 지대석과 상층기단면석과 갑석, 탑신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탑이 소규모이면서도 이중기단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능선을 따라 오르면 제3사지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초석과 광배편들이 발견됐다. 특히 광배편들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 결실돼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양면에 당초문 등이 조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은 광배편에서 양면불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일전 보리사 불상 광배 뒤편에 약사불의 조각된 것을 답사를 통해 확인했었다"며 "이는 양면불을 조성하려했던 것이다. 이곳의 광배편을 보면 제3사지에는 양면불을 조성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근에는 제4사지가 있다. 이곳에는 머리 없는 불상 한구가 덩그러이 놓여있다. 엄지손가락도 잘려나갔고, 상대석과 중대석은 석불과 따로 떨어져 흙에 절반쯤 묻혀 있다. 결가부좌로 앉은 석불은 풍만한 몸체로 우견편단의 가사를 입고 있고, 상대석에는 연꽃이 위로 향하고 있는 앙련(仰蓮)이 24개 새겨져 있다.

금오봉, 용장사 그리고 김시습

약수골을 따라 1시간 여를 오르면 금오봉이 나온다. 남산의 북쪽에 있는 봉우리로 해발은 486m이지만 그 길은 만만치 않다. 남산의 금오봉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동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산으로 전해진다. 최 소장은 당나라 유학생들이 많았던 통일신라시대에 봉우리의 명칭이 붙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오봉을 나오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이중 남산의 특징을 이해가 위해서는 용장계에 꼭 가봐야 한다. 무슨 생각으로 남산에 불상과 사찰, 탑을 조성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용장계에서는 총 22개소의 사지가 분포돼 있다. 이중 가장 유명한 곳은 용장사지다. 용장사는 설잠스님, 즉 매월당 김시습이 주석한 곳이다.

김시습은 5세부터 시를 지을 정도로 신동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최고 성군인 세종도 그의 재능을 출중히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김시습은 1455년 세조의 단종 폐위사건으로 세간 정치에 환멸을 느껴 21세에 나이에 출가해 설잠이라는 법명을 받는다.

약수곡 제3사지 부재에서
양면불 증거 찾을 수 있어
險路인 용장계 따라 가면
석탑과 불상이 곳곳에 산재
용장사지엔 김시습의 향훈이

그 후 김시습은 남산 금오봉에 들어와 용장사에 주석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지은 곳도 바로 용장사이다. 또한 김시습은 용장사에 주석하면서도 영월에 유폐된 단종을 잊지 못해 뜨락에 핀 꽃들을 보며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김시습이 지은 시조 '용장사유회시(茸長寺有懷詩)'를 보면 그가 남산과 금오봉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다.

'용장 산골짜기 깊으니(茸長山洞幽)/ 오는 사람 볼 수 없네(不見有人來)/ 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나고(細雨移溪竹)/ 비낀 바람은 들매화 곱게 흔드네(斜風護野梅)/ 작은 창가에 사슴 함께 잠들었고(小窓眠共鹿)/ 낡은 의자에 앉으니 몸과 마음 식은 재로다 (枋椅坐同灰)/ 초가집에 딸린 밭두둑이 알지 못하는 사이(不覺茅 畔)/ 들에는 꽃들이 지고 또 피어난다(庭花落又開)'

하늘 높이 오른 석탑에는….

용장계를 따라 30분정도 가니 기암절벽의 사잇길이 나온다. 바위와 바위 사이 험로를 타고 넘으니 깎아진 절벽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아담한 탑이 눈에 들어온다. 보물 제186호 용장사지 삼층석탑이다. 이 탑을 보지 않고는 용장계를 왔다고 할 수 없다.

남산에 산재한 대부분의 탑들이 그렇듯 용장사지 삼층석탑 역시 조형 방식이 독특하다. 기단을 만들지 않고 1층 몸돌부터 바로 탑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식은 남산 탑곡, 대지암곡, 늠비봉 석탑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신라인들은 하층 기단없이 기암절벽 위에 탑을 조성했을까? 최 소장은 부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 한 신라인들의 불심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남산의 기암을 기단으로 삼고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에 이르고자 했던 염원이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의미의 불상도 석탑 아래 존재한다. 바로 보물 제187호 삼륜대좌석 여래좌상, 일명 미륵장육상이다. 직육면체의 자연석을 가공해 하대석으로 삼고 그 위에 3매의 원형 대좌석을 잇달아 앉힌 모습이 독특하다. 가장 위에는 불두(佛頭)가 결실된 불상이 앉아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 당시 용장사에는 대현 스님이 주석했는데 이 스님이 불상 주위를 돌면 이를 따라 머리를 돌렸다는 기록이 있다.

용장계를 내려오니 석탑이 아득하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명인 '다문제일' 아난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절벽에 홀로 서서 발뒤꿈치를 들고 용맹 정진을 했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 남산의 기암 위에 우둑이 서 있는 탑들은 아난다와 같은 신라인들의 불심과 구도심의 소산이 아닐까. 그들에게 남산은 부처님 세상, 도솔천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경주 남산=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12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신라의 호국신앙을 찾아서
- 일시 : 12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봉행
대법사 창건 기념 철야정진기도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창건을 봉축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 바랍니다.







700고지 정상 약사기도도량 대 법 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 2리 109-1번지

몸 아픈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 납시다.

일 정 |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오전 11시 시작
입 제 | 첫 철야기도 2013년 11월 2일
문의 및 접수 | 033)342-3372
070-4155-3372

행

미얀마 불교 이야기
15. 미얀마 불교와 중국

중국, 불교 매개체로 미얀마 교류 확대

인도행 구법길에 미얀마 거론
불교문화 통해 우방국 관계
1789년부터 교류, '종교 결연'



미얀마 빠옥 총림에서 YeOo 사야도(큰스님 · 가운데 의자 착좌)와 수행중인 중국인 수행자들의 모습. 한국불교계는 중국 불교계가 문화혁명으로 인한 법맥 단절을 한국으로부터 이어가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중국은 미얀마 등 상좌불교로부터 그 맥을 살리기를 추구하고 있다.

미얀마에는 중국계 사람들이 많다. 미얀마와 중국은 인접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미얀마로의 이민은 시작되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한 때 중국의 구법승들이 인도로 내왕하는 통로로 미얀마를 이용했다. 중국의 구법승들은 사천성과 운남성 그리고 벵골만을 거쳐 북인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옛 선지식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현재 유용한데 북벵골만과 미얀마 그리고 중국을 연결하는 약 1100km의 송유관이 설치돼있다.

현재 미얀마에는 어디에나 중국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근현대에 미얀마로 이주해온 화교 또는 화인들이 눈에 띈다. 그들은 중국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미얀마 이름을 사용한다. 때문에 미얀마에서 누가 중국계인지는 이름 가지고는 잘 알 수 없다.

미얀마에서 만난 사람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신이 중국에서 이주해 온 3세대 또는 4세대 사람임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계 사람들은 미얀마 경제부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만나는 사람의 60% 가량이 중국계 미얀마인이라 할 정도다.

동남아나 인도 등지에서 현지인들이 동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흔히 일본인 혹은 한국인이냐고 묻는 반면에 미얀마에서는 자연스럽게 중국인이냐고 묻는 경우도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다.

화교 출신도 많지만 국가차원에서 미얀마에 투자한 부분이 가장 많은 국가 또한 중국이다. 미얀마에서 글로벌 기업이 거의 대부분 중국자본이라 한다. 중국은 대부분 광산개발이나 수력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미얀마의 미국과 서방 등에 대한 개방노선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이외에는 일본이 미얀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본뿐만이 아니라 인적교류와 미얀마에 대한 지역학 차원의 연구도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중국과 일본의 자료에 의지해 중국과 일본의 틈새를 뚫고 들어가려는 형국이다.

중국계 영향 크지만 문화 정체성 지켜

외부의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 오면 그 문화도 함께 이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보인다. 특히 미얀마의 종교문화 부분은 더욱 그렇다.

미얀마는 중국의 오랜 교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인접한 한국, 베트남 등과 달리 중국문화를 크게 수용하지 않았다. 미얀마에는 마찬가지로 인도문화 또한 많이 수용되지 않았다. 인접한 지리적 요건과 많은 교류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나 자이나교 문화는 미얀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금 미얀마의 힌두교문화는 주로 인도 이주자에 따른 것으로 그 영향이 미약하다. 종교문화적으로는 외부에서 미얀마에 수용된 유일한 것이 바로 불교이다.

미얀마의 이러한 특성으로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중국계 미얀마인으로 인한 대승불교문화의 도입과 영향력 확대는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미얀마 길거리에서 중국계 대승불교 사찰을 보게 되면 반가울 정도다.

대부분의 중국계 미얀마인들은 원주민인 미얀마인들과 종교문화에 있어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좌불교문화 속에 하나가 되어있다. 불교행사에서 또는 수행처에서 만난 많은 중국계 미얀마인들은 미얀마 전통의 상좌불교에 대한 깊은 신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300년 불교교류와 '진주목걸이' 전략

사실 양국의 불교교류는 30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와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불교교류를 시작한 것은 미얀마 마지막 왕조인 꼰바웅 왕조(1752~1885)의 보도페야(Badawpaya: 1782~1819)왕 시대부터다. 1789년 보도페야 왕은 중국으로부터 '불치(佛齒)' 복제품과 불상을 선물받았다. 중국정부는 2011년 11월 영광사(靈光寺)의 부처님 치아사리를 미얀마에 보내달라는 미얀마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2011년 11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48일간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등의 도시에서 치아사리 이운식이 개최됐다. 이 이운식(移運式)에는 1000여 명이 운집했는데 미얀마와 중국의 주재 대사와 각국 주요 정부 관료들이 참석했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몇 주 동안 이와 관련해 미얀마에서 열린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영광사와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 간 '종교 결연'(religious ties)을 맺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불교를 통해 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불교문화를 통해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이자 우방이란 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인도와의 여러 측면에서 경쟁적인 입장에 있다. 지역전문가들은 불교문화권인 동남아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가 경쟁을 벌이는데 불교분야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은 불교를 통해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 불교문화권에서 인도를 견제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Indian Look East Policy)에 대응해 아시아에 있어 인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고립시키려는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파괴된 불교유적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원하고 외부적으로는 2006년부터 세계불교포럼을 주최해 남아시아는 물론 동남아 불교국과 종교적인 교류를 확대코자 하고 있다. 특히 매회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50여 개 국으로부터 1300여명이 넘는 세계 불교지도자를 초청하였다. 1차 세계불교대회에는 후진타오 중국국가 주석도 참석하는 등 국가적인 규모로 행사를 치뤘다. 마찬가지로 2011년 중국은 네팔의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Lumbini) 개발에 '$3bn project'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였다. 룸비니에 신축 공항과 이를 연계하는 고속도로와 호텔, 회의장과 연회장 시설, 불교사찰 그리고 불교대학의 건립을 지원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불교, 상좌불교 배우기에 앞장

필자가 2012년 초 양곤의 마하시 선원에 이어 몰라민의 빠옥 총림에 머문 적이 있다. 이곳은 많게는 7~800명의 대중이 모여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수행하는 도량이다. 마침 도착한 다음 날은 동아시아 음력 설날이어서 중국본토로부터 온 스님들과 신도들이 점심까지 특별식을 제공했다. 빠옥 총림의 도서관 건물 앞에는 중국계 스님들이 대거 모여 있었다. 모두 신심과 환희심에 넘치는 분위기로 충만해 있었다. 설날이라고 미얀마의 덕 높은 큰 스님을 모셔와 특별 법회를 개최했는데 중국 스님들이 도서관 강당에 모여 앉아 진지하게 법사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다. 미얀마어 설법을 중국어로 통역하는 법회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 끝까지 앉아있었다. 법사스님과의 질의응답에는 웃음도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넘쳐 있었다. 법회 이후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자 중국의 스님과 신도들은 미얀마 법사스님에 모두 맨 땅에 그대로 엎드려 예를 표하고 한 송이 꽃에서 비스켓 한 봉지, 양초 한 다발 등을 공양으로 올렸다. 참으로 존경과 헌신하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빠옥 총림에는 당시 약 227명의 각국 수행자들이 있었다. 59명으로 베트남인들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이 3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인은 27명으로 세 번째였다. 여기에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러시아 멕시코 등지에서 온 수행자도 있었다.

빠옥 총림의 주지스님은 외국인 수행자 중 항상 베트남과 중국이 1, 2위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문득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선불교가 중국본토에서 사라지고 한반도, 그것도 한국이 잘 보존하고 있어 이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역수입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상황은 사뭇 달랐다. 오히려 중국인들이 상좌불교를 공부하려고 이러한 곳까지 많은 스님과 재가자가 와 있다는데 놀라웠다. 이후 중국으로부터 온 스님들과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동아시아 선불교보다는 상좌불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미얀마 화교 경제적 영향 막대
중국도 '상좌불교' 배우기 열풍
수행센터 내 중국인 비중 1,2위

빠옥 총림에 오래 동안 머물며 수행던 한 국스님은 중국정부 차원에서도 동아시아 대승불교보다 동남아 상좌불교를 더 지원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스님은 중국선불교 등 과거 전통이 있더라도 현대 중국인들의 한문 독해력이 떨어져 당나라나 송나라 시대의 불교전적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에 머무는 동안에 양곤의 대학이든 수행처이든 그리고 양곤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빠옥 총림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국 불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로서 중국불교의 새로운 미래 모습을 가늠해보곤 한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日江 스님께서 정리하신 알기쉬운 상용의식과 신간저서 안내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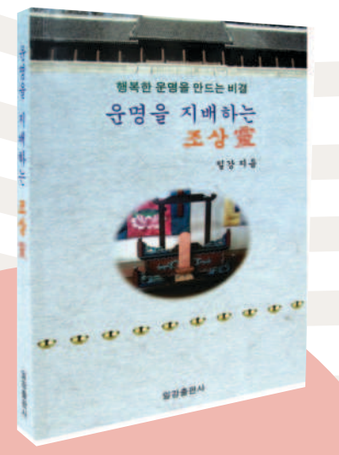
다비의식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 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신간 고사와 치성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상차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값: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46배판 I144쪽 I값 13,000원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⑦ 의상봉



“의상, 이리로 오시게”

의상봉은 해발 502m로 고양시 덕양구에 속한다. 의상대사가 머물렀던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성능대사의 〈북한지〉에는 의상봉이라는 이름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용출봉 서쪽에 있다는 미륵봉이 의상봉임을 나타내고 있어, 미륵봉과 의상봉이라는 이름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의상봉 아래에 있는 국녕사에서 의상대사가 참선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국녕사는 북한산성 축성 후 총 86칸에 이르는 큰 규모의 승영사찰로 창건되었는데 사찰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사명당 유정이 수도를 하던 터로 추정된다. 창건 후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1991년 화재로 모두 불에 탄 것을 능인선원에서 중창하였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의상봉과 원효봉은 신라의 두 고승이며 우리나라 불교의 커다란 맥인 원효와 의상을 상징하는 매우 유서 깊은 곳이다. 원효가 당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을 불러 의상봉에 안내하고 자신은 원효봉에 올라 서로 바라보며 참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오늘처럼 맑은 바람이 부는 밤이면 의상 스님은 삼매에 들곤 했다. 마당의 댓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자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깊은 선정을 할 수 있었다. 이 시간만큼은 신라로 돌아가 타국 생활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위로 받을 수 있었다.

당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오 년 여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신라가 생각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의상 스님은 선정에 들어 고향을 다녀오고, 황복사에 들러 은사스님 안녕하신가를 보고, 그리운 이들의 안부를 차례로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토록 보고픈 원효 스님만은 만날 수 없었다. 아무리 정신을 집중하여 몰입을 하여도 원효스님이 계신 곳은 커녕 그의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움은 커져만 갔다. 오늘은 원효 스님을 뵐 수 있을까.

의상 스님은 읽고 있던 경전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찬물로 얼굴을 씻은 다음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겼다. 잠깐 사이 깊은 삼매에 들어간 그는 오늘, 원효스님을 뵙지 않고는 회향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다졌다. 어느 순간, 바람이 멎고 사방이 고요해지더니 별 하나가 반짝했다 싶었는데 꿈결처럼 원효 스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의상, 의상, 이제 그만 하시고 이리로 오시게.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의상은 반갑고 놀라운 마음에 서둘러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갔다. 익숙한 산과 들을 지나 목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북한산 봉우리였다.

동이 트려면 먼 시간인데 누군가 봉우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별보다 반짝이는 눈빛하며, 큼직큼직한 손놀림을 보아하니 원효스님이 틀림없었다. 의상은 가까이 다가가 원효 스님을 바라보았다. 원효스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다. 그는 봉우리 둘레를 걸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살피고 있었다. 행여 밤사이 산짐승이 머물다 갔는지, 그래서 깨끗지 못한 흔적이라도 남겼는지, 봉우리 어느 한 귀퉁이라도 바람에 쓸려 떨어져 나갔는지. 그 손길에서 오래된 정성과 세심함이 느껴졌다. 원효 스님은 봉우리위에 함부로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며 풀뿌리를 손바닥으로 쓸어 내고는 의상을 향해 앉았다.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이 온 산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어서 오시게, 의상.”

“스님, 원효 스님! 참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님을 찾았는지요. 어찌하여 이제야 모습을 보이십니까.”

“허허, 나는 쭉 스님 곁에 있었는걸요. 행여 스님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하여 조심한 것 뿐이지요. 오늘 그대의 소식을 들었소. 당나라에선 스님을 일컬어 ’ 해동의 큰 나무 ‘라 한다지요. 스승이신 지엄 스님조차 ‘그 나무가 얼마나 큰 지 나뭇가지가 신라를 덮고 당나라도 덮을 것’ 이라고 그대를 칭송한다하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오. 하여, 내가 오늘 그대를 부른 것이오. 부디 더욱 정진하시어 이 나라에 부처님 법이 두루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신라의 별이 되어 주시오. 내 그대를 위해 이 봉우리를 마련했소.”

원효가 당에 있는 의상 위해 마련
의상 삼매 들어 당에서 건너와

원효스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달리 표현할 수 없었던 의상은 한동안 깊은 숨을 쉬어야 했다.

“스님, 이렇게 훌륭한 수행 처를 만들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비록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제가 어찌 공부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저를 위해 보살펴 주신 이 봉우리에 앉아 정진 또 정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바람이 부드럽게 의상의 얼굴을 훑고는 원효 쪽을 향해 지나가고, 어둠을 밀어내며 첫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다.

산 밑의 사람들 중 누구도 이 봉우리에서 참선하는 의상을 본 사람은 없었다. 다만 산짐승들은 알고 있었다. 당나라에 있는 의상이 높은 법력으로 삼매에 들면 몸을 자유로이 움직여 이 봉우리를 찾아와 원효 스님과 법담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이를 지켜본 산짐승들 사이에서 이 봉우리는 의상봉이라 불렸고, 세월이 흘러 어느새 사람들도 이곳을 의상봉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신라 ‘화엄종’ 의 창시자로서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전국에 수많은 사찰을 세워 신라불교의 번성을 이끈 의상. 그는 원효와 함께 신라 불교의 큰 별이었다.

〈얘기꾼〉 전현서

선율도 미소도 “아름다워라 백제 관음이여”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⑦ 나라 호류지

일본어로 ‘백제’는 ‘쿠다라(くだら)’라고 읽는다. 그들이 사용하는 특유의 한문 음훈이 ‘백제’라는 단어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음훈을 붙이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다. 다만 추청만을 해볼 뿐이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한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은 사견으로 “나라를 ‘나량(奈良)’이라고 쓰지만 이들은 ‘나라’로 발음한다”면서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백제가 ‘큰 나라’였을테니 이 말이 변용돼 ‘쿠다라’라고 읽고 있는 것으로 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관서 지방의 나라는 710년에서 784년까지 일본의 수도였고, 백제로부터 불교를 최초로 전파받은 곳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한반도 백제 문화의 영향이 가장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백제는 동북아 해상강국이었고 ‘큰 나라’였다.

일본 정치와 불교의 중흥을 이끌어 현재에도 추앙을 받고 있는 쇼토쿠(聖德) 태자 역시 고구려 승려인 혜자와 백제 승려인 혜총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5계를 수지했다. 그리고 호류지(法隆寺)와 사천왕사(四天王寺) 등 일본 각지에 많은 사원을 세웠다. 일본 고찰에 가면 쇼토쿠 태자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라의 호류지는 쇼토쿠 태자가 세운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이다. 스이코 양식인 금당(金堂)·오중탑(五重塔)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西院)과, 몽전(夢殿)을 중심으로 하는 동원(東院)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대표 문화재로는 약사여래상·석가삼존불상·아미타삼존불상 등이 있으며, 금당 내부의 벽화는 고구려 영양왕 21년(610)에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린 것이다. 이는 중국의 원강 석불과 경주의 석굴암과 더불어 동양 3대 미술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수백 점의 불교 문화재가 소장돼 있으며,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금당 벽화와 더불어 호류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바로 ‘백제관음상’이다. 아스카 시대에 조성된 이 불상은 일본 국보 1호 ‘목조미륵반가사유상’과 함께 일본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일본 목조미륵반가사유상이 한국산 적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백제 관음상은 백제 도래인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붙여진 이름이다. 백제의 조각이 일본 조각사에 공헌한 하나의 예이다.

일본 불상으로는 드물게 높이 2.8m에 달하지만 날렵한 몸매와 섬세한 손동작에는 절로 ‘아름답다’는 탄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일본의 평론가 가메이 가츠이치로는 〈야마토 고사 풍물지〉에서 백제관음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백제관음 앞에 서는 순간, 심연을 헤매는 것 같은 불가사의한 선율이 되살아 나왔다. 흰 불꽃이 하늘하늘 피어올라 그대로 영원 속에 응결된 듯한 모습을 접할 때 우리는 침묵하

쇼토쿠 태자가 발원 건립한
일본 현존 最古 목조 건축물
장엄한 백제관음엔 탄성만이

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나는 불교도가 아니다. 그러나 망연히 서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올렸다.”

한국 대표 문화재 평론가인 유홍준 명지대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2〉에서 백제관음상을 예찬했다.

“백제관음의 측면은 정말로 신비하고 아름답다. 거룩하고 우아한 몸매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왼손에 정병을 살포시 들고 천의 자락을 발아래까지 내려뜨린 채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아름다워라 백제관음이여’라는 탄성 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백제 관음상을 다시 올려봤다. 관음상 특유의 보일 듯 말듯 한 미소가 환희롭다. 백제의 기술로 만들어진 관음은 오늘도 중생들에게 ‘구세대비(救世大悲)’를 실천하라는 무언의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mot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호류지(法隆寺)의 대표 성보문화재 백제관음상. 백제의 조각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반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호류지 전경. 쇼토쿠 태자의 발원으로 세워진 일본 현존 최고 목조건축물이다.

지우스님과 함께하는 범음의 큰 메아리!

● 지우스님 독경 CD 신명나는 회심곡



* 지우스님 약력 *
-.1967년 대구 안국사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
-.영산재 범음범패 바라밀 예술단장(범패:바라춤,법북,회심곡)
-.문화공보부 등록제411호 홍보위원
-.동국불교 전법대학교 졸업(1992년 1기생)
-.영남미술작가협회 영남총본부심사위원
-.한양미술작가협회(영남총본부 초대작가)
-.현 바라밀예술단 단장
-.2003년 3월해군 참모총장 대장 장정길 감사패
-.2006년 5월제8군단장 중장 이상위 감사패
-.2007년 2월 군수사령관 중장 양원모 감사패
-.2007년 10월 제1군사령관 대장 김태영 감사패
-.2013년 4월 경북직업훈련교 도소장 이경우 감사패

● 각종행사 사진






바라밀 예술단이 하는일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 예수재,
49재, 구병시식, 차량고사, 안택 등
각종 불교행사를 깊은 신심으로
지극정성 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작법무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 법당마다 가득자리를 채운 지우스님 작품들



행사문의 : 010-8877-7878, 010-3597-1515

스스로 망상에 덮여 진리 놓치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9〉



범어사 주지

여래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것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이다.

여래께서는 늘 여여해서 오고 가는 바가 없다. 여래께서 세간에 짐짓 출현하셨다는 것은 출현한 바 없이 출현한 것이다. 삼계라는 것도 알고 보면 본래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또 부순다는 것도 방편설이다. 중생들은 삼계가 있는 것으로 속아서 고해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삼계 역시 없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없다면 삼계도 없다고 해서, 마음을 없애려고 한다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없애려는 마음이 다시 티끌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작은 티끌 하나를 100 조각으로 부수어 그 중 99개는 없애고 하나만 남았더라도, 대승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100개가 모두 없어져야만, 비로소 대승으로는 훤출하게 벗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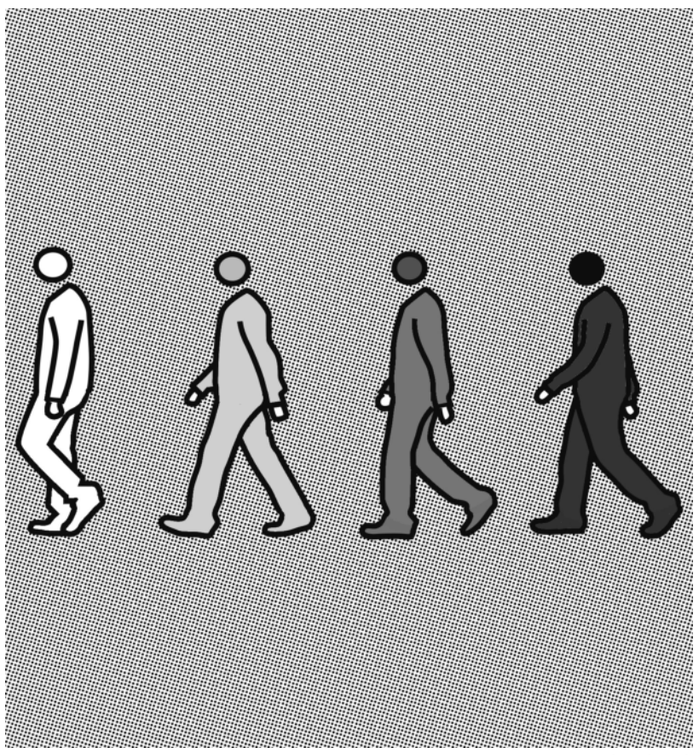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는 그런 어리석음은 다 허망한 것이다. 본래 쪼갤 것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믿음을 내고, 그것을 체험하여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두를 들 때도 쪼개서는 안 되고, 의심이 의정을 통해 의단으로 뭉치도록 지어나가야 한다. 대승의 공부는 번뇌를 모두 제거해서 보리를 얻는 게 아니라, 번뇌가 바로 보리라는 사실을 증득하는 것이다. '색즉시공' 이지, 색을 다 없애서 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100 등분이 완벽하게 없어졌다는 것은 티끌 번뇌를 다 제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체득했다는 말이다. 진리는 본래부터 눈앞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만, 스스로 망상에 덮여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자성을 요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없애려 한다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없애려는 마음이 다시 티끌이 되기 때문이다.

진리는 본래부터 눈앞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만 스스로 망상에 덮여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 마음 하나를 밝히는데 집중된다.

부처님께서 '삼계가 유심(唯心)' 으로 삼계가 다 마음으로 건립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인연들이 이런 저런 천차만별을 그림 그리듯이 펼쳐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 근본원인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 마음 하나를 밝히는데 집중된다. 결국 돈오 견성을 체험해야 황벽스님의 이런 가르침이 소화되지, 그렇지 않다면 다만 말이나 배우는 앵무새나 흙덩이를 쫓는 한나라 개에 지나지 않게 되어 마음 한켠에 항상 답답함이 남게 된다.

황벽스님은 초지일관 무위법을 가르쳤지, 유위법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다. 나아가 무위법에도 머물지 말라고 하셨다. 상(相)을 여읜 무위법을 소화해야지만, 나아가 무상(無相)마저도 넘어서는 돈오법을 터득하여 상이니 무상이니 하는 일체의 견해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다. 통찰지가 있는 사람은 짧은 순간의 인연이지만 이런 대목에서 소름끼치는 모습으로 자기를 탁 비춰 볼 수 있어야 한다. 순간적으로 척량골이 착 서면서, 그동안 정진한 것과 딱 계합되는 기연을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는 뼈저리는 정진을 통해서 이런 귀한 불법의 가치를 가납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뒤돌아서 편하고 쉬운 수행만 찾아다니면 불조의 혜명도 끊어지고 천하의 불법이 다만 값싼 싸구려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고, 더 이상 방편의 말들에는 끄달리지 않으며, 담담하게 마음을 수용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여유롭고 의연하게 정진해나가는 공부인의 모습이 귀한 시절이다.

16. 상당설법

황벽스님께서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심체(心體)를 지녔다.

지금까지 배휴 재상이 묻고 황벽스님이 대답하였는데, 여기서는 황벽스님께서 상당법문 하신 것을 배휴가 기록하고 있다.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말에는 가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 뜻을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면 공부인이 소화하기에 제일 껄끄러운 것이 이 말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이 금과옥조처럼 비쳐지지만, 불법에서는 '마음이 부처다.' 고 해도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다. 불법은 법안(法眼)과 불안(佛眼)을 말하는데, 이런 높은 안목에서는 모든 자취를 싹 쓸어버리지 한 물건도 남겨두지 않는다.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데, 하물며 이런 언구 따위야 더 말할 나위가 있을까. 하지만 상당해서 설법하는 인연이라면, 또 이런 말을 들려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나마 불법을 가장 요긴하게 일러주는 말이 이런 표현들이다. 마음이 곧 부처인데, 위 · 아래 없이 일체 중생이 다 개유불성(皆有佛性) 하고 동일한 마음 바탕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이고, 평등법이며, 무루법이자 무위법이다. 일체가 한 마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오셔서 오직 일심법(一心法)만을 전하셨으니,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장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지만, 어리석은 중생이 그림자에 속아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 마음을 깨달으면, 겉모양에 관계없이 일체가 본래 마음자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공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선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치가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말장난이 되기 쉬우므로, 경우 따라서는 주저 없이 쳐버리기도 한다. 이치를 붙드는 즉시 깨달음을 등지게 되는 것이 또한 마음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연 따라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치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단칼에 쳐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그 뜻을 잘 새겨서 이쪽저쪽의 양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㊺



모든 왕들이 정법正法으로 다스린다면 그 땅은 안온하고 풍족하게 되리라. 〈금광명경〉

'정치적' 과 '정치' 의 거리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독자들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의 일이다. 입학원서에는 7지망까지 학과 이름을 써넣도록 되어 있었다. 제1지망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영문학과. 그 다음 2지망 이하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에게서 메일이 왔다. 매우 조심스럽게 '정치학과' 를 써놓아도 되는지,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홍길동전〉에서는, "아들은 아는 데에는 그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도 아닌 것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지망 후보였던 '문화사학과' 가 당연히 2지망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정치학' 을, 2지망으로라도 선택한다는 데서 큰 부담을 느꼈음에 틀림없었다. 평소 아버지의 생각이 정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脫)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여러 편 쓴 것을 아이도 알고 있었다.

양해를 구하는 아이의 메일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간단하고도 흔쾌하게 "좋다" 는 답변을 보냈다. 어쩌면 이번에는 아이가 놀랐을지도 모른다. 평소의 태도와는 달리, 너무나 쉽게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영문학과를 졸업한 아이는 지금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 사이에 있는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정치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과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같은 차원일 수 없다. 실제 내가 비판했던 것은 '정치적인 것' 이지, '정치' 가 아니었다. 정치적인 것은 법(法)이 아니라 권력(人)을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럼, 정치는? 외면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다. 누구 말마따나 "중생의 번뇌 중 50%는 정치에서 온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교 역시 '정치적인 것' 을 미워할 뿐,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금광명경〉이다.

불교의 정치사상

정치는 세속의 일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세속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이야기가 불교에서도 나온다. 그렇다면 불교의 정치이야기를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불교 밖의 세속으로부터 들어간 것도 있다고 보아야 할까?

내 생각은 후자다. 세속적인 이야기가 들어간다.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세속적인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시공간적 배경을 '맥락(컨텍스트)' 이라 부른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특히 세속적인 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경전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도그마나 고집에 빠지게 된다. 종교에서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다.

〈금광명경〉은 왕(정치지도자)이 이 경전을 읽으면서, 그 경전에서 설하는 진리(正法)으로 정치를 한다면 국내의 문제나



그림 · 박구원

국제문제나 다 해결될 수 있다 말한다.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맥락은 불교가 국교도 아니고, 불교라는 종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속의 정치는 민주주의나 (세속적) 법치주의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러므로 〈금광명경〉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도 현실의 맥락을 고려하는 재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불교의 정치사상' 이 탄생되리라.

과연, 불교는 지금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에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한계나 부족한 부분을 불교가 채워줄 때, 또한 그러한 불교의 정치사상 역시 감안되면서 정치가 행해질 때 "그 땅은 안온하고 풍족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 오전 5시 50분 KBS 1TV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 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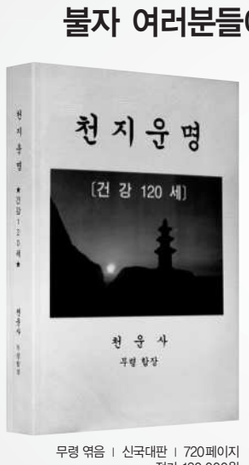
상담문의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조원 : 구암식품
■ 농협 : 227027-51-090791(예금주 : 남궁성균)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20페이지
정가 120,000원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책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100명께는 기존 출간된 천지운명 책 한권을 더 드립니다.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 운 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엽)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 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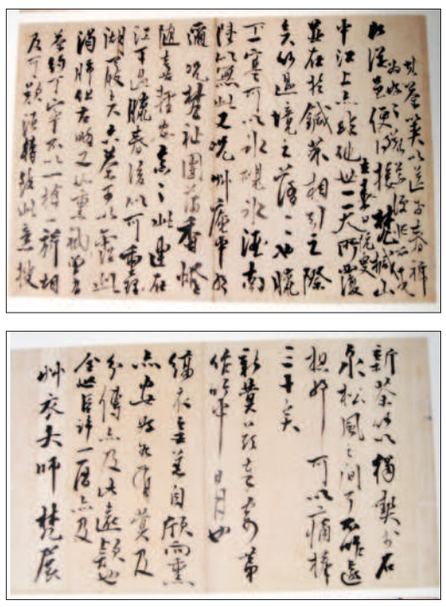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산중이나 강상 다른 세상 아닌데…

추사는 제주 유배에서 풀려나 강상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지금의 금호동 일대로 추정된다. 그는 이곳에서 초의가 보내준 차를 마시며, 연경에서 입수된 〈법원주림〉, 〈종경록〉등 불경을 읽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호에 연재할 〈완당전집〉 '여초의' 32신은 〈나가묵연첩〉에도 수록된 자료인데, 특이한 것은 '여초의' 32신의 말미 부분인 "新茶何以獨喫於石泉松風之間了~金世臣許一曆亦及"의 내용이 추신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나가묵연첩〉에서 확인되었고, 아울러 입춘(立春)에 쓴 편지였음도 밝혀진 것인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나가연묵첩〉에도 수록된 〈완당전집〉 '여초의' 32신.

곧 읍내 인편으로부터 스님의 편지를 받으니 산중이나 강상은 역시 다른 세상이 아니고, 한 하늘 아래에 침개가 서로 이끄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어찌 지난날엔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까. 세밑 추위는 벼룻물을 얼게 하고, 술도 얼게 합니다. (스님이 계신)남쪽 땅은 이런 일은 없을 듯 하고, 더구나 초암에는 더욱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근래 스님은 복되고 기쁨이 이어져 단포(團蒲)와 향등(香燈)엔 기쁨이 이어지고, 편안한지 늘 염려됩니다. 나는 쭉 강상에 있었는데, 12월이 지내고 봄이 온 후에야 호남에 갈 나막신을 매만질 수 있을 듯합니다. (그가 보낸)여섯 양의 차는 나의 메마른 폐를 적실 만하지만 너무 적습니다. 또 향훈스님이 (나에게)차를 준다고 약조를 했었습니다만 정령 한 잎의 차도 보내지 않으니 아쉽습니다. 이 뜻을 (향훈에게) 전하고, 그의 차 바구니를 뒤져서 봄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쓰기 어려고, 인편도 바빠하니 이만 줄입니다. 완 노인

새 차는 어찌 솔바람 불고, 물 좋은 산 속에서(石泉松風) 홀로 마시면서 멀리 있는 나는 생각도 나지 않으십니까. 삼십 봉을 쳐서 아프게 할 만합니다. 새 달력을 보냅니다. 다만 대 나무 우거진 (일지암)곳에서 세월을 보내시는지요. 호의도 별고 없으신지요. 자흔과 향훈도 편안하고 잘 지내지요. 이들에게도 각각 달력을 보낸 것이니 나누어 주시고, 아울러 이 멀리서 보내는 정성을 전해주오. 김세신에게도 달력을 전해주시오(卽從邑便得接梵[械] 山中江上亦非他世 一天所覆ᄉᆞᄆᆞ在於鍼芥相引之際矣 何過境之落落也 臘下一寒可以氷硯氷酒 南陸似無此 又況艸庵中耶 邇況梵祉團蒲香燈隨喜輕安念念 此連在江干過臘春後 似可重理湖 ㅛ矣 六茶可以霑此渴肺但太略 又與熏衲 曾有茶約丁寧 不以一槍一 ㅂ相及 可歎 須轉致此意 搜其茶ㅈ以送 於春禛爲好爲好 艱草便忙不式 阮 ○新茶何以獨喫於石泉松風之間了 不作遠想耶 可以痛棒三十矣 新黃玆奉寄 第作竹中日月也 縞衣無恙 自欣向熏亦安好 各有黃及分傳 亦及此遠款也 金世臣許一曆亦及)

초의의 편지를 받은 후, 그 기쁨을 "산중이나 강상은 역시 다른 세상이 아닌데, 어찌 지난날엔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는가"라고 하였다.

이미 입춘인데도 "세밑 추위는 벼룻물을 얼게 하고, 술도 얼게"하지만 남쪽 땅, 일지암에 있는 초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란다. 추위가 지나고, 봄이 오면 벗을 찾아갈 계획을 세우면서 "호남에 갈 나막신을 매만질 수 있을 수"있겠다는 추사의 말 속엔 풍류와 설렘이 함께 묻어난다.

그에게 초의가 보낸 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이미 여러 편의 편지에서도 확인되지만 간절한 걸명(乞茗)의 변은 "홀로 마시면서 멀리 있는 나는 생각도 나지 않으십니까. 삼십 봉을 쳐서 아프게 할 만하다"고 한 것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초의의 제자 향훈도 추사에게 간간이 차를 보낸 인물이다. 추사는 향훈을 위해 '다삼매(茶三昧)' 를 써 보냈는데, 추사의 절필(絕筆)은 이런 인연으로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법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부 원 장 석용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동원부장 석법원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본 탐구'는 내 원력 내 자리서 최선 다할 뿐

취임 240일 맞는 변영섭 문화재청장

'울산 반구대 암각화, 그리고 불교.' 올해 3월 18일 취임한 변영섭 문화재청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운동을 10년 넘게 일선에서 주도해 온 활동가이고 높은 신심을 가진 불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 사랑이 지극해 변 청장에게 세간이 붙인 별명은 '반구대 청장' , 일명 '반 청장' 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만큼 문화유산 보존에 깊은 애정이 있다는 이야기다.

11월 12일로 변 청장의 취임 240여 일을 맞았다. 첫 여성 문화재청장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0여 일, 학자이자 문화재 활동가에서 전문 행정가로 변모한 그간의 소회를 먼저 물었다. 소회에 대한 질문에 변 청장은 가장 먼저 1997년 제정 공포된 '문화유산헌장' 을 보여줬다.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유산의 자산'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헌장에는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당위성과 원칙이 담겨 있다고 운을 띄웠다. '원칙' 을 통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다.

"취임한지 어느새 200일이 넘었네요. 그동안 우리 겨레의 삶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을 훌륭하게 지키고 활용하는데 좋은 방안을 찾아 몰두해 왔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좀 별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제가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저에게 문화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문화재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폐사지 보존 · 활용 계획 수립

변 청장 취임 후 가장 이슈가 됐던 행보 중 하나는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해외 전시를 막아선 것이다. 그의 결정에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해당 전시 박물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간곡히 재요청함에 따라 반가사유상의 해외 전시가 이뤄지게 됐다.

변 청장은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보 문화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했다.

"국보 제83호는 그간 8회에 걸쳐 약 3,000일간 전시를 위해 해외로 반출된 바 있으며, 미국 내 다수 박물관을 순회하는 전시가 진행된 바 있어 물질적 피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운송 중 벌어질 불의의 사태를 염려해야 했습니다. 민족문화 보존과 문화 자존을 중시하는 국내 정서와 국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한 일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불교 문화재 보존과 활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폐사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실제 변 청장은 취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예방에서 폐사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2010년부터 전국 5400여 곳의 폐사지 조사사업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사업도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폐사지 보존 ·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을 수립해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산간오지 소재 석탑 등 '나 홀로 문화재' 에 대한 탐방프로그램 개발 · 운영, 역사적 · 학술 가치가 높은 중요 폐사지에 대한 발굴 · 정비 등을 통해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이 더욱 더 잘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원을 통한 폐사지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변 청장이 대표적으로 꼽은 폐사지 복원은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 정비 사업' 이다. 이 사업에는 황룡사 복원도 포함돼 있다. 10월 21일에는 황룡사 복원의 기반인 '황룡사 연구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폐사지 보존과 활용은 중요도와 위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황룡사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천년 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새로이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 미탄사지, 보성 개흥사지, 동해 삼화사지 등 중요 폐사지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문화재 정책 '새 틀' 제시할 것

국가 지정 · 등록문화재 중 종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2%. 그 중 불교문화재의 비중은 90%에 달한다. 불교문화재가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변 청장 역시 잘 숙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다. 변 청장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문화재 보존 정책을 위한 새로운 분법(分法)도 그 중 하나다.

또한 사찰과 문화재 주변 주민의 규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 호감 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 보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부처 · 지자체 · 종교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문화재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 시대에 맞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법 · 제도 측면에서는 문화 및 자연 문화재 자원의 총체적 보호와 유네스코식 보존체계 도입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현 문화재보호법을 '문화 및 자연유산기본법' 체계로 개편하고 기존의 매장법, 고도법 분법 외에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등과 관련 새로운 분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구대 보존' 의 인연

변 청장의 문화재 사랑 중 빠지지 않는 것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다. 1971년 최초로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문자가 없던 시절 그림으로 쓴 역사책이며, 우리나라 문화재의 맏형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 중이다.

2003년 한국미술사학회장 소임을 맡고 있던 당시 반구대 암각화와 인연을 맺었던 변 청장은 반구대보존대책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왔다. 그만큼 반구대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그의 명함에는 반구대의 그림이 새겨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도 반구대 보존 운동을 하면서 비롯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진을 통해 면담을 신청했고 수용이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들고 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굉장히 진중한 태도로 경청해줬고, 반구대 보존에 공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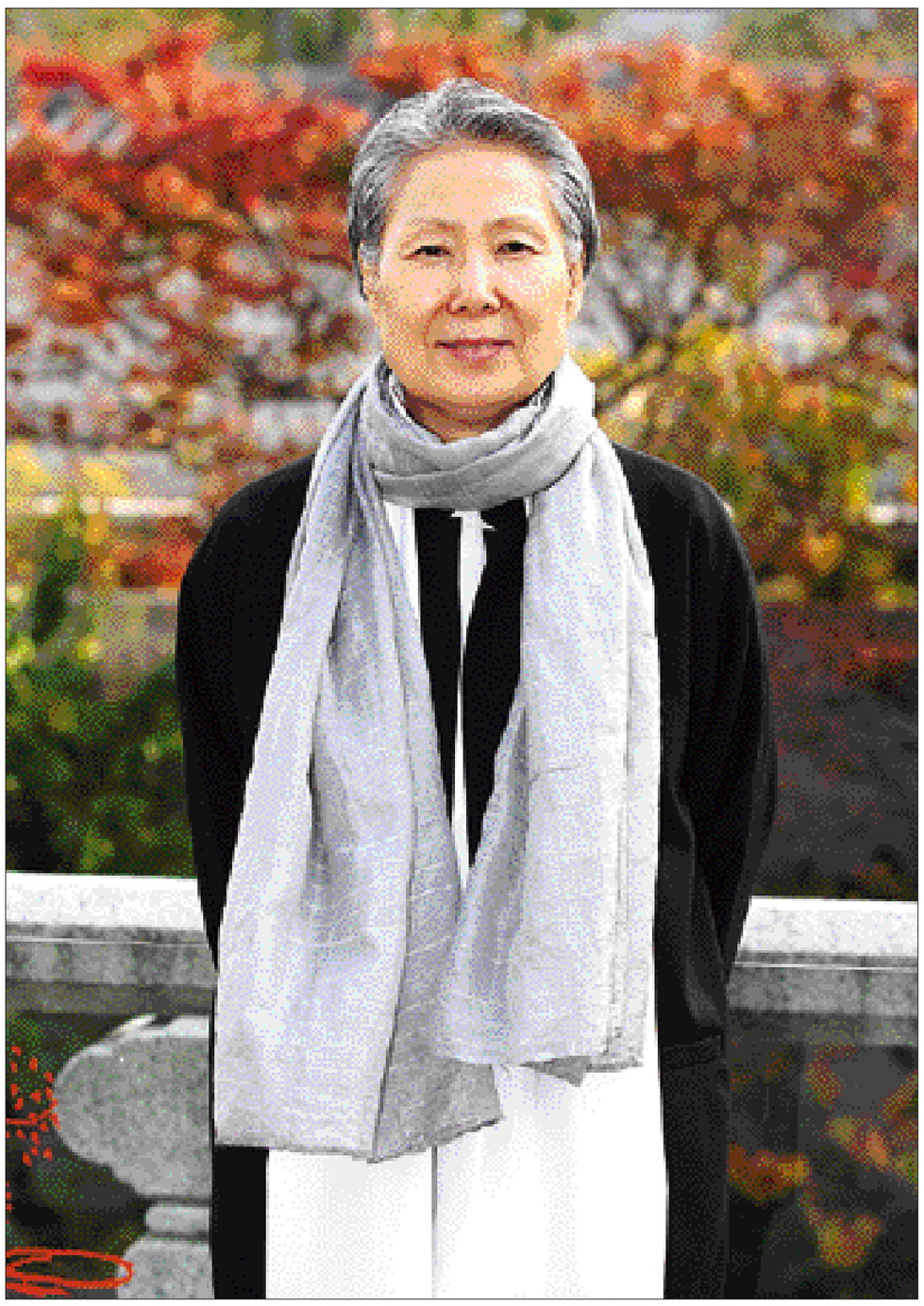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익산 미륵사지 복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변 청장은 폐사지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다.

어머니 영향 받은 母胎 불자
매일 108배… '고요한 소리' 활동
채식 고수 "육식, 業 먹는 것"

미륵반가사유상 반출 논란은
문화재 보호 원칙 지킨 소신
반구대, 세계 가치 가진 유산
"위기의 외아들 살리는 심정"

유산 온전한 보존 · 활용이 '문화융성'
"원칙과 소신 행정으로 이룰 것"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 1951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다. 안동여고를 졸업하고 1971년 이화여대 사학과에 입학해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부터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국사편찬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 한국미술사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반구대 보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여성 문화재청장에 임명됐다. 저서로는 〈화안-동기창의 화론(시공사, 2003년)〉, 〈미술인 강세황(한국문화예술진흥, 1995년)〉, 〈장서각소장 회화자료(한국정신문화연구, 1990년)〉 등이 있다.

표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현재 1965년 준공된 '사연댐'으로 매년 4~7개월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훼손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진 암석은 진흙이 퇴적돼 만들어진 '이암(泥巖)'이라 물에 매우 취약하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각각 댐 수위 조절과 생태제방 건립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해결안을 놓고는 벌써 10년째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변 청장이 취임 후 반구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반구대의 소중함과 보존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며 이 문제는 전기를 맞고 있다.

"힘이 들고 어려운 고비가 많았으나 쇠약해지고 울고 있는 반구대 모습을 보면서 차마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애타게 호소하며 다녔습니다. 만나는 모든 분께 '반구대 살려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위기에 처한 외아들을 구하는 어미의 심정이었다고 할까요."

나는 '평범한' 불자입니다

이내 변 청장의 불연(佛緣) 역시 매우 궁금해졌다. 임명 당시부터 변 청장은 불교와의 인연이 지중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변 청장은 "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불자"라고 손사래를 쳤다. 불심이 돈독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업무 스케줄에 쫓기면서도 매일 아침 108배를 거르지 않았던 그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불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불교와의 인연을 맺은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특별한 전기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불심은 정말 대단했어요. 항상 사찰에 공양을 올릴 때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강원도 심원사라는 사찰 창건에 주도적 역할을 하셨고, 오랫동안 신도회장으로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했으니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변 청장의 경우 이 영향이 사유로 이어졌다. 진리의 본질이 궁금했고, 인생 본분사의 근원을 알고 싶었다. 소설과 철학서, 고전을 찾아 읽었지만 가장 수긍을 할 수 있던 것은 불교의 경전이었다. 부처님 초기경전 번역단체인 (사)고요한 소리에서 윤문 봉사활동을 했던 것도 부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근본'을 찾고 싶어서였다. 채식을 하는 고수하는 것 역시 사회적 이유와 함께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전 한 사찰에서 법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님이 도축되는 가축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이를 먹는 것은 '업(業)'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곡물이 생산돼야 합니다. 제3세계 빈곤국가에서는 기아로 죽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방목하는 소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지구 오존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까지 변 청장은 불자로서 공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야할 길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다.

"저는 불자로서 아직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와 안목을 갖추기에는 멉니다. 다만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땅히 근본을 묻고, 찾고 싶습니다."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늘 품고 산다는 변영섭 문화재청장. 불자로서 문화재 전문 행정가로서 그의 '주인 찾기'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10월 21일 황룡사 연구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내빈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법일기

수행의 힘은 사람을 변화 시킨다

나를 출가로 이끈 선지식들

성철 스님 상좌로 국제포교에 헌신하다 10년 전 열반하신 원명 스님 추모집 〈나는 사람이 좋더라〉가 나왔다. 열반 당시 스님은 53세셨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슬퍼했던 기억이 난다. 너무도 젊고도 아까운 인재이기에 다비식에서 슬피 울던 불자들과 스님들을 나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아, 하늘을 가득 채우던 슬픔들 그리고 하염없이 쏟아지던 눈물들. 스님과의 인연은 내 나이 24세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영어와 불교를 동시에 가르치는 곳이 있다기에 호기심으로 찾아간 곳 종로구 소격동 연등국제회관. 내가 찾아갔던 날은 묘하게도 창립 기념법회가 있던 날 점심이었다.

주신 차와 떡을 먹고 접시를 가져다 놓기 위해 부엌에 들렀다. 설거지가 싱크대에 가득하다. 문득 어려서부터 절에 가면 늘 설거지를 도맡아 하시던 어머니가 떠오른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진정 복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행사마다 그 많은 설거지를 자랑스럽게 도맡아 하시곤 했다.

나 역시 어머니처럼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이런 나의 모습을 스님들은 아주 의아해 했다. 문득 찾아온 젊은 불자의 행동. 특히 영국인 무진 스님이 놀랐다. 나중에 들으니 당시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설거지를 하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무진 스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더니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서툰 한국말로 안내했다. 그렇게 만난 분이 원명 스님이다.

당시 스님께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후로 인연이 되어 스님을 돕게 됐다. 얼마동안 나를 지켜보신 스님들은 출가를 권했다. 하지만 당



그림 · 박구원

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던 나는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맞아.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 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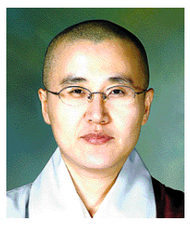
어느 날 무진스님과 원명스님은 나에게 해인사 5박 6일 수련회에 가라고 권유했다. 참가비도 대신 내주겠다며 회색 법복 한 벌까지 미리 사줬다. 출발하는 날 원명 스님은 "가서 원택 스님을 만나라. 그리고 참가비는 외상이라고 해. 그러면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해인사 주차장에 도착해 올라갔다.

해인사에 도착하니 원택 스님이 접수를 받고 계셨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고 "스님께서 참가비는 외상이래요"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며 스님 특유의 점잖음으로 답하신다.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과연 원명 스님께서 외상값을 갚으셨을까?

그렇게 수련회 3일째 되던 날, 아직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조금씩 걷히던 이른 시간.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나오는데 멀리 뜰 밖 위로 원택 스님이 보였다. 나는 합장반배로 신선한 아침에 뵙는 반가움을 표했다. 그런데 반배를 마치고 일어난 나와는 달리 스님은 여전히 반배를 하고 아직도 계신다. 민망하기도 죄송스러운 맘이 들었다. 그때부터 의문이 생겼다.

"스님은 어찌 어린 나에게 저리도 지극하게 합장을 하실까? 저런 여유와 고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런 성스러운 합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삶이라면 한번 해 볼만 하다."

생각해보면 한사람을 출가시키기 위해 많은 선지식들이 나타나신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선지식일수도 있다. 나에게 출가의 인연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출가의 마음을 갖도록 마음에 보리심의 씨앗을 심어 주고 공을 들여 싹을 틔워 주신 스님들의 힘은 말이 아니라 풍겨오는 수행의 힘이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수행자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내가 만난 스님들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수행자들 말이다. 원명 스님의 환한 미소가 너무도 그리운 가을이다. 내가 그때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듯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을까?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인도 고대 불교유적지, 개발로 몸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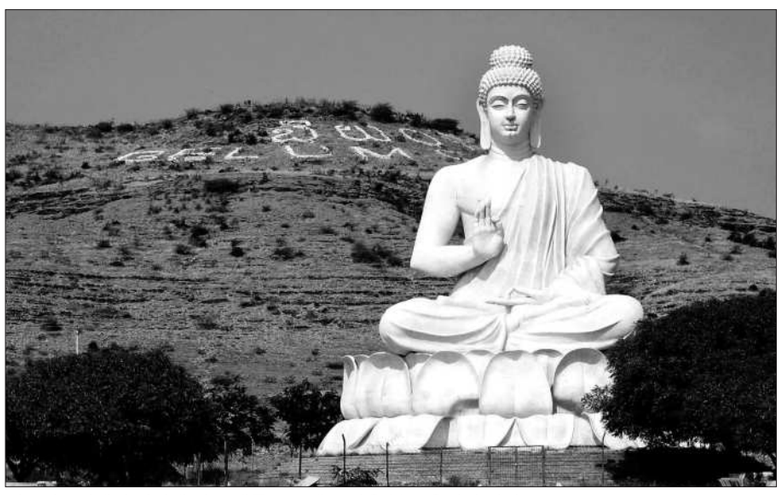
안드라프라데시 州 2천년 불교유적 사라질 위기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불교 유적지들이 주정부의 산업단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 관련 학계에서 '보존 계획이 시급하다' 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인도 타임즈(The Times of Inida)〉 지는 11월 7일 "대승불교의 시원이라고 불리는 안드라프라데시 주가 PCPIR 사의 석유화학 산업단지 개발로 인근 불교 유적들이 파괴되고 있다"며 "관련 학계에서는 기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파괴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드라프라데시 주는 대승불교의 장을 열었던 용수 스님이 수행했던 '콘다의 언덕' 이 있는 곳으로, 국내 불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간 이어져 내려온 불교유적들이 한 순간에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인도 타임즈〉에 따르면, PCPIR의 석유화학 산업단지는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에서 카키나다(Kakinada)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곳에만 16~18개의 불교유적지가 있다.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에 있는 벨룸 동굴에는 많은 불교 유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들 불교 유적지 가운데 이미 12곳은 PCPIR의 개발로 위협 받고 있다"고 지목한 관련 학계는 "이중에서 코투루 디바루(Kothuru Dibbalu), 보자나콘다(Bojannakonda), 파푸라라콘다(Pavuralakonda), 토트라콘다(Thotlakonda), 바비콘다(Baavikonda) 등 5곳은 주정부에서도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 유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유적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제한 레디(E Shivanagi Reddy, 안드라프라데시 주립미술관) 관장은 "산업단지 개발의 초기 작업인 '트렌치 굴착'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견되어, 개발을 잠시 멈추는 듯 하지만, 주정부는 이 지역을 '보존 지역' 으로 선포하지 않고 있어, 향후 파괴의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디 박사는 "이 지역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19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제하고 "당시 이 지역에서는 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 개발에 앞서 '유적 사전 조사' 를 실시해 줄 것을 주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발의 목적만 바뀌었을 뿐 이제는 PCPIR라는 다국적 석유화학기업이 들어와 이곳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 연방정부는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인도 석유화학 투자지역(PCPIR)은 면적 250㎢로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유수입관세 면제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그 지원도 전폭적이다.

인도 석유화학 생산 제품은 올레핀, 방향족, 합성섬유, 엘라스토머 등이며 연간 15%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폴리머' 수요는 여전히 세계 기준보다 작지만 지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폴리머 소비에서 두드러진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았다. 지난 2008년 인도 석화산업 판매금액은 400억달러를 보였으며 정부는 2015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의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도 타임즈〉는 "인도 석유화학산업은 지난 40년 전과 비교해 큰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이는 결국 인도에 산재해 있는 고대 유적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벌질 수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한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서양인 최초로 티베트 수도원장 된 미국인 스님

브릴랜드 스님 이야기 다큐멘터리, 국제영화제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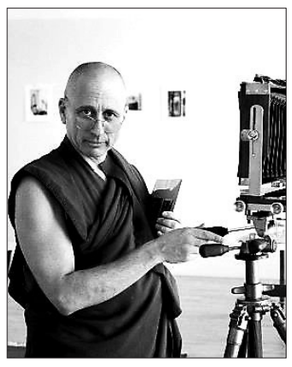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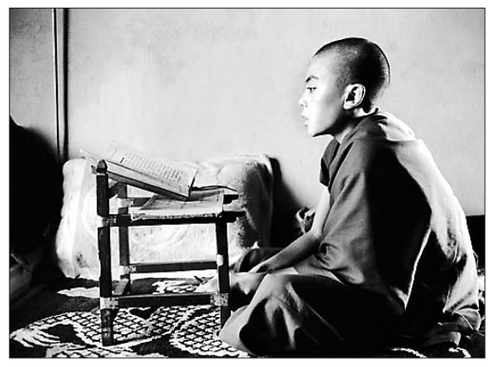
미국인으로 최초로 티베트 불교 수도원장이 된 니콜라스 브릴랜드(Nicholas Vreeland) 스님. 2012년 서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인도에 있는 티베트 라토(Rato monastery) 수도원장으로 지명됐다. 2천년이 넘는 티베트 불교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브릴랜드 스님은 몸담고 있던 라토 수도원이 위기에 처하자 카메라를 들고 티베트 스님과 불교문화를 담아낸 사진으로 전 세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수익금은 자그마치 4억원 이상이 모였고 이는 스러져가던 티베트 수도원을 일으키고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는 데 쓰였다. 달라이 라마는 브릴랜드 스님에게 '카메라를 든 스님(monk with a camera)' 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한때 미국 뉴욕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기도 했던 스님의 예술적 안목은 할머니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스님은 미국 유명 패션잡지 보그(Vogue) 편집장인 다이애나 브릴랜드의 손자다. 패션잡지가 처음 생길 무렵 뛰어난 감각으로 패션을 예술적인 경지에 올린 이로, 유명 디자이너들을 발굴해낸 장본인이다. 지금은 타계했지만 아직도 패션업계에서는 전설적 인물로 남아 있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에서 자란 스님은 브릴랜드 스님은 뉴욕에 티베트 센터를 세운 공라 린포체(Khyongla Rinpoche)를 만나기 전까지 화려한 삶을 살 줄 알았다. 불교를 접하고 평생 스승이 될 린포체를 만난 후 카메라가 도난당했다. 출가에 대한 암시로 비춰졌다.

드라마틱한 스님의 자전적 이야기가 '카메라를 든 스님(monk with a camera)' 이라는 동명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이 작품은 26회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26th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IDFA) 비경쟁부문인 '리플랙션 이미지' 섹션에 초청됐다.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IDFA는 다큐멘터리의 '칸 영화제로' 불리우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제다.



뉴욕에서 사진가로 활동했던 니콜라스 브릴랜드 스님(사진 왼쪽). 스님이 찍은 사진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판매돼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사진 오른쪽).

매력적인 요소가 가득한 스님의 이야기지만 다큐멘터리는 이에 머물지 않았다. 카메라는 2년간 스님을 따라다니며 티베트 불교가 현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정체성을 보존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감독인 가이도 산티(Guido Santi)와 티나 마스카라(Tina Mascara)는 다큐멘터리를 두고 "수도원에서의 삶과 티베트의 미래, 미국사회에서의 불교의 영향력, 찰나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과 사진의 의미 등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12일간 열리는 영화제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총 5일간 상영된다. 상영작들은 1~7번 정도의 상영기회를 갖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지역민이 그리는 불교벽화, 문화재 훼손?

무스탕지역, 전문가와 지역민 함께 벽화 복원


툽첸 수도원에서 무스탕 지역민이 벽화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히말라야 해발 3800M 고원 지대에 위치한 무스탕. 티베트 문화가 살아있는 이곳은 14~17세기까지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8세기 네팔에 합병된 후 외부 방문이 금지되었고, 1950년대 중국의 티베트 점거에 맞서 티베트인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자 무스탕으로 이르는 통로는 모두 차단됐다.

외국인이 여행시 650달러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고 그마저도 한 해 1000명으로 제한된 은둔의 땅에서 14년째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 이탈리아의 미술 복원 전문가인 루이지 피에니(39). 무스탕의 티베트 불교에 매혹된 그는 미국 히말라야재단의 지원을 받아 무스탕의 주요 수도원과 사원 벽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1999년부터 시작했다. 방치할 경우 30~40년 안에 모두 훼손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를 돕는 '견습생' 들은 지역주민들이다. 종교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단 생각에서 벽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복원해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35명의 주민들에게 붓을 쥐어줬다. 물론 소정의 훈련 기간을 거쳤다.

돌마(Dolma)라는 주민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다. 섬세한 붓을 들고 종교 예술을 복원하는 작업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복원가는 기존 벽화를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 역할이지만, 피에니는 지워진 부분을 기존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거나 스님과 신도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채워넣었다. 그의 이러한 방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의 불교 박물관인 루빈박물관의 크리스찬 루크차니츠 큐레이터의 말을 인용하며 "작업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다. 벽화 원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이를 연구하려면 예전 문서와 사진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무스탕 지역 스님들과 지역 지도자들은 피에니의 작업방식에 더없는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

배현진 기자

데미 무어, '마음과 삶' 회의 참석

달라이 라마와 나란히 앉아…수행자 삶에 깊은 관심 보여

헐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51)가 영성에 대해 언급하고, 인도 다람살라에 방문하는 동안 승가의 수행과 생활에 관심을 보였다고 〈타임즈 라이브(Times Live)〉 지가 11월 7일 보도했다.

무어는 '마음과 삶(The Mind and Life)' 주제 회의에 참석해 달라이 라마와 나란히 앉아 티베트의 전통 무용 공연을 관람했다.

〈타임즈 라이브〉 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주제로 한 토론자로 나선 무어는 그들의 삶이 일반인들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타임즈 라이브〉 지는 무어의 말을 인용, "이번 회의에서 달라이 라마와의 깊은 교감과 티베트 스님들의 자기 고백적 주제 발표 등에 힘입어 불자로서 특별한 무언가를 얻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헐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가 불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무어는 이번 회의에 이어 암리차르(Amritsar) 황금사원을 방문하는 인도 불교유적지를 방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전국의 태고종 종도(스님 · 전법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국의 태고종 종도(스님 · 전법사)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도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종단관 확립과 전법교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제가 체면 불고하고 이렇게라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입장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지난 10월에 전국의 태고종스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3종류(62매)를 3,000여 사찰에 발송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스님들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스님 한분이 면피하려고 운산스님이 보낸 것이냐며 인격을 모독하는 전화를 하였다고 하고 박인공 스님 명의로 한국불교신문에 광고를 하여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한용운 스님께서도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승려의 유형(類型)을 말씀하신바 있지만 총무원장 재임기간 경험을 통한 제 생각으로 우리종단의 승려를 구분하여 보면,

가. 총무원의 종책을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스님
나. 종단방침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말없이 협조하는 스님
다. 본인은 종단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파벌을 형성하여 종단사업을 비협조하는 스님
라. 종단의 종책내용도 모르면서 또한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종단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선동하는 스님
마. 종단을 위하여 일하는 스님들을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사실무근의 유언비어(거짓말)를 날조하여 유포하는 스님
바. 종단에서 무슨 일을 하던 나와는 관계없다는 듯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스님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종도들에게 서한을 송부하면서도 인공스님과 같이 서한 내용에 자신의 이름이 거명된 분들은 자기 입장을 변명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저를 이해하는 분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 그러나 저를 비판했던 일부 스님들은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자기수준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운산의 진실을 왜곡하여 또 다른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시키면서 중상모략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3. 제가 젊은 시절부터 총무원의 총무부장(종무위원) 15년, 사무총장 5년, 법인 행정원장 7년, 중앙종회 부의장 4년, 총무원 부원장 4개월, 총무원장 8년 등 30여년을 종단의 종무행정을 수행하면서 잘 한 것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를 범한 것도 있고 종단에 누를 끼친 것도 있을 것이며 일부 종도들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로 인해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미안한 생각과 함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4.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용봉 화상을 은사로 불교에 귀의(수계득도)한 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수행정진 하였습니다.

가. 승려로서 인간적으로는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보람있는 일을 하여야 하며 시종여일하게 본질은 변하지 않고 신의와 의리를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승려의 정체성을 일탈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과 하심하는 처세를 하면서 본분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나. 저는 1960년도에 동국대학교에 종비 장학생으로 입학하였고 금강산 유점사 경성포교당인 법륜사(대륜 종정예하께서 창건하셨고 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사찰)에 입방하여 (대륜종정예하의 손상좌가 됨) 사찰에서 수행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며 그때 종단지도자이신 덕암큰스님, 남허큰스님, 용명큰스님을 시봉을 하였습니다.

다. 저는 해인사의 주지를 역임하셨고 대 강백이셨던 변설호 큰스님께서 법륜사의 조실로 계셨기 때문에 내전(경장)을 지도받은 바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2년 4학기 중 3학기 수료)까지 공부하였으므로 내외전을 겸수하였으며 전통 대중사찰에서 큰스님을 시봉하면서 경장(경전)을 지도받으며 대학원까지 수료한 것은 부처님과 큰스님의 커다란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저는 1969년도 태고종의 전신인 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직원으로 임명받으면서 종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 저는 1964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용운스님이 창립한 한국불교청년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3사(봉원사, 백련사, 청련사)의 젊은 승려를 중심으로 오국근교수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한국불교청년회를 재건하였으며 유네스코에서 주관하여 조직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불교계를 대표하여 발기회원 단체로 참여 하였고 광화문의 교육회관 대강당을 매월 1회씩 빌려서 불교사상강좌를 개최하는 등 청년시절부터 사회적인 대중포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나. 남허 종무총장스님께서 1974년도에 3사의 젊은 승려들을 추천받고 저를 포함하여 7명 스님(세칭 7인방)을 부장과 종무위원으로 임명함으로서 제가 34세에 총무부장(종무부장)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6. 저는 침체된 종단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가. 저는 총무부장으로서 원장스님을 모시고 부장스님들과 함께 종단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모든 종책과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도정비를 위하여 종헌종법을 개정하고 종단발전의 기반(토대)를 구축하는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나. 한국불교 종단중 최초로 종단 대표를 종정에서 총무원장으로 종헌을 개정하였고 법계제도를 시행하면서 종덕명칭을 제정하였으며 총무원에서 주관하는 합동수계득도를 시행하여 수계득도자가 긍지를 가지고 초발심을 견지하여 수행하도록 전통과 현대를 조화하는 불교의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종도의 교육과 후학양성을 위하여 포교사대학(동방불교대학)을 설립하여 전통강원 교육과 함께 내외전을 겸수하는 최초의 교육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1954년도에 발단된 종단분규 이후 양 종단이 소송과 물리적인 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불교발전을 저해하므로 저는 당시 조계종의 손경산 총무원장 스님에게 남허 총무원장 스님 명의로 서한을 드림으로서 양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여 이후 조계종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7. 저는 총무원장으로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종무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가. 제가 총무원장이 되기 전에 종단은 총무원과 비대위로 양분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총무원장이 된 후 분열되었던 종도들을 결집, 종단을 안정시켜 침체되었던 종단을 활성화시킴으로서 태고종의 명예를 고양시켰으며 종단 최초로 국고보조를 받아 전승관(총무원사)을 건립하여 종도들로 하여금 전통종단의 긍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나. 국제적으로는 한국불교종단 중 유일하게 중국정부와 불교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대표적 불교교향악인 신주화악과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문화인 영산재 시연을 양국 상호교류 공연을 통하여 중국불교협회와 격상된 교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저는 원장으로서 종책을 수립하고 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념과 소신이 강하고 집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종무집행은 담당국장과 부장이 보고를 하면 저는 원장으로서 결재하고 승인을 하였으며 모든 실무는 부장과 국장 책임하에 집행하였고 종무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총무원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습하였습니다.

라. 전승관을 건립한 후에 모스님이 대검찰청에 운산이 종단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투서하여 대검찰청에서 총무원의 컴퓨터와 장부 등 일체서류를 조사하였고 제 개인의 은행거래 등 재산사항까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마. 당시 검찰이 제 개인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모든 재산관련 서류를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원래 없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횡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용도 이외의 다른 것에 썼다는 전용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 다만 정부지원금 60억원에 해당하는 종단자체부담금 60억원을 모두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상 전액을 조성한 것처럼 보고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되었고 종단에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담당부장이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는 어려움도 겪었으나 제가 자진하여 모든 책임이 원장에게 있다고 검사에게 말하여 담당부장은 빠지고 저만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선고유예 판결)

아. 종단의 모 스님이 악의적으로 대검찰청에 투서만 하지 않았더라면 종단의 명예도 실추되지 않고 저도 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종단의 공금 10억원도 손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정부에서 의료보험료를 책정할 때 개인의 수입과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보험료를 이천오백칠십원(2,570)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매월 고정수입이나 저축된 재산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료 2013년 8월 고지서 사본 첨부)

8. 저는 총무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 우리 종단의 부끄러운 실정이나 총무원에 일시에 30억원–40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30억원과 100억원을 횡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고 사실도 아니며 저를 모략하기 위한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는 스님은 종단에 매년 의무금과 분담금을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 제가 종단 일을 보면서 총무원의 공금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인색하고 인정도 없는 극히 사무적인 사람이라는 말까지도 들었으며 종단업무를 집행할 때 불교종단의 총무원장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타협과 화합으로 원만히 처리하려는 기본정신으로 종무행정을 수행한 관계로 종도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 저는 충남 청양의 선비집안(아버님께서 향교의 전교를 다년간 역임하셨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유교교육을 받았고 평생 독신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가족과 동기간의 정을 모르고 살았으며 재산이 있어도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돈에 대한 삿된 욕심이 없이 축재를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9. 호법원에서 운산을 멸빈시켰다고 하나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가. 인공원장과 운곡 호법원장 등은 운산을 종헌종법에 의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들은 징계법과 초심원법과 호법원법에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무원에서 작성한 소위 판결문에 서명 날인만 하였습니다.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행위로 무효이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저는 총무원의 부당한 조치를 불복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멸빈의 징계처분(초심원의 2011년 8월 19일자 판결 및 호법원의 2011년 10월 4일자 판결) 및 2011년 10월 11일 천중사의 주지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승소판결(2012년 4월 18일) 받았기 때문에 이 징계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다. 총무원에서 작성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종단과 봉원사의 명예를 지키고 연지원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위하여 총무원장으로서 종책적으로 집행한 사항이고 개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고 그 당시 중앙종회에서 인공의장이 봉원사에서 책임질 사항이라고 하였고 종회의원들도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더 이상 문제 삼을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합의 하였으므로 원천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라. 저는 평생을 사회적으로 종단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종단사에 범법자로 기록되게 되어 있어 명예회복을 위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취소시킬 것입니다.

10. 종단의 2009년도 까지 결정적인 변화에는 운산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 우리 종단이 1974년도에 남허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7부장 스님들을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종단을 활성화 시키고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해오는 동안 종단의 최고지도자에서부터 중앙3부 기관장과 부장 등 총무원직원에 이르기까지 그 인사에는 저와 인연이 없는 분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나. 그리고 종단의 제도를 바꾸고 변화할 적에는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총무원과 중앙종회와 사정원의 기관장과 원로스님들이 협조하여 종단이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부인하는 스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지금 생각하면 전승관을 건립한 후 제가 구상했던 종단개혁안이 2년동안 종단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우리 종단이 인공원장 시절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 전승관 건립후에 일부 스님들이 전승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저는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모든 의문사항을 조사 확인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는데도 그들이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은 그동안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 당시 모 스님이 대검찰청에 운산을 횡령혐의로 투서하지 않았다면 우리종단은 전승관 건립 후에 전 종도가 단합하여 개혁과 변화를 가져 왔을 것입니다.

마. 제가 총무원장 재임시 집행부에 함께 있었던 스님들 중에서도 종도들로부터 불신받는 스님들도 있었고 저를 비판하는 스님들 중에서도 종도들로부터 불신 받는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종단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 그 당시 저를 비판하는 스님들 중 모모의 중진스님에게 말없이 종단을 협조하는 스님과 건전한 생각을 가진 중진스님들이 앞으로 종단을 이끌어 가도록 인적 개혁을 하자고 여러번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종단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모 회의 주축회원들을 총무원의 부원장과 부장 등으로 임명하여 종단을 개혁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습니다.

사. 그러나 이들은 종단개혁의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고 평소 듣던 말과는 차이가 있는 그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또한 대검찰청에 투서한 자에 대한 심증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이 종단을 개혁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당시 저는 종도의 화합과 종단의 장래를 위하여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그 당시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종단 요직에 있는 몇몇 스님들에게 저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여 달라고 당부하고 8년 임기 2개월을 남겨 놓고 그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와 부원장을 비롯한 총무원 집행부가 동시에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종단을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제 개인의 자존심이나 체면은 뒤로 하면서 종단의 현실 문제를 타개하였고 미래지향적으로 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스님들은 운산이 모 회의 세력에 의하여 밀려난 것처럼 사실을 잘못 알고 있고 30여년간 장기집권한 운산을 사임하도록 한 모 회의 회원스님들이 앞으로 종단을 개혁할 수 있는 스님들이므로 우리는 그 스님들을 믿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하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 회의 회원들이 저에게 총무원장을 사임하라고 한 사실도 없었고 태고종 스님 누구도 그 당시에 저에게 직접 총무원장을 사임하라고 한 스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11. 저는 사람의 마음으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인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가. 저는 평생을 가장 가깝게 지내온 인공 스님을 후임 총무원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종회의원들에게 협조하도록 당부하여 당선이 되었는데 인공스님은 인간적으로 종단적으로 저를 배신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말로 제 인격을 모독하고 홍보함으로써 70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제가 국내외적으로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 서신을 스님 여러분께 드리는 것도 제가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제가 평생을 태고종과 삶을 함께 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한 태고종도라는 것을 믿어 주시고 명예회복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다. 저는 총무원장을 사임하면서 종단의 모든 일은 방하착하였고 심훈의 상록수 춘원의 유정, 무정, 원효대사 등 중 고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을 읽으면서 인정 많던 19세기를 상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 한국불교신문 11월 6일자 8면 광고를 보고 스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이러한 막말의 광고가 종단의 종보에 게재되었는지 우리종단이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고 개탄하면서 큰스님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비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 저는 그들의 해종행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우리종단의 스님 전법사 여러분들께 송부하였는데 인공스님과 능해스님은 우리 종단의 치부를 자랑이라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종보에 막말을 공개적으로 광고하여 또다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두분 스님은 총무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도 종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더니 사임한 후에도 잘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 합니다.

바. 제가 저질스러운 두분 스님이 광고한 것을 그대로 있으면 그 광고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그들과 함께 상식 이하의 짓을 해야 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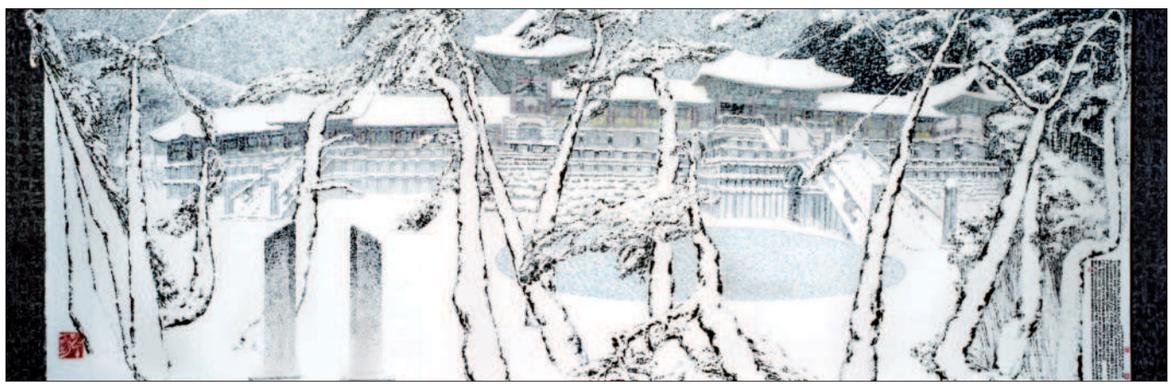
사. 인공스님과 능해스님은 제가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아니라고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하는데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궤변이라는 두 글자로 사리에도 맞지 않고 또한 진실을 왜곡하여 막말 광고를 하였으니 종단의 스님들은 타종단이나 사회에서 우리 종단과 스님들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걱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 말씀에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하시라도 그 내용을 알려 주시면 근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보낸 13종류의 서류를 못 받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면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단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찰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013년 11월 8일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이 운 산 합장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 '원융(圓融)'이 11월 24일까지 종로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눈오는 불국사를 8m 화폭에 펼쳐낸 '불국설경2013'

시공간 넘은 조화의 세계 '원융'

박대성 개인전 11월 24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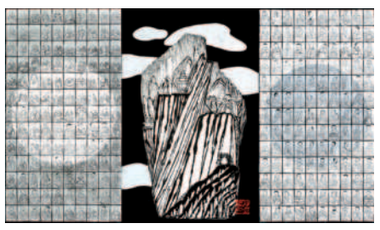
눈 오는 날의 불국사가 8m의 장대한 화폭에 담겼다. 세필로 섬세하게 표현된 건축물과 화면을 가로지르는 소나무의 역동적이 구성이 인상적인 '불국설경'. 평생을 글씨 연습에 매진한 박대성 화백〈사진〉의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필선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박대성 화백의 개인전 '원융(圓融)'이 11월 24일까지 종로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불국설경, 고미2, 원융, 남산, 부처바위, 봉암사 백운대, 운무 등 불교문화재와 전통의 미를 먹으로 표현한 5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경주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오고 있는 작가는 불국사 남산 등의 정경들을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아우르며 자신만의 시각으로 펼쳐낸다. 또한 옛것을 통해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는 다양한 불교문화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다. 그 중에서도 '원융'은 수묵산수와 나한상을 결합한 작품으로 과감한 화면 구성과 견고한 필력이 돋보인다.

작가는 어떠한 현상도 각각의 속성을 지닌 채, 동시에 서로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는 원융에 다다른다.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원융은 시공간을 초월해 정신적인 조화를 이루려는 작가의 노력과 상통한다. '원융'

수묵화와 오백나한 '원융'에 펼쳐
눈 오는 불국사 풍경 8m 화폭에
종교 초월한 화합의 세계 담고자



수묵산수와 나한상을 결합한 '원융'

은 막힘과 거리낌이 없이 두루 통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원효대사의 '원융무애(圓融無碍)'에서 가져왔다.

"우리 모두가 본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종교도 본모습을 잃어가고 정치도 본모습을 잃어가고 있죠. 자기의 모습을 지킬 줄 모릅니다. 원융(圓融)은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대자연의 섭리를 떠나서는 안 되며 본 모습을 잃지 않고 두루두루 화합하자는 뜻이 이번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그는 다섯 살 때 6·25를 만나 부모와 왼쪽 팔을 잃었다.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놀려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그는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 지내며 병풍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이렇게 묵화부터 고서에 이르기까지 독학으로 고행의 길을 걸어온 그는 1970년대 국전에서 입선과 특선 등 여덟 번이나 수상했고, 79년 중앙미술대전 대상을 받으며 화단에 이름을 알렸다.

한국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그의 작품은 호평을 받았다. 인기작가로 우뚝 솟은 1994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고 추상화·크로키·수채화를 공부하다 경주 불국사가 불현듯 떠올라 1년 만에 귀국해 그린 대작이 불국설경이다.

이후 경주에 머물며 불교문화재, 전통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그려내 온 박대성 작가. 고승들의 자취를 더듬기 위해 〈왕오천축국전〉을 집필한 혜초 스님의 자취를 따라 몇 번씩 실크로드 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 가톨릭 신자지만 작가는 종교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더 넓고 깊어지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기울인다.

내년 가을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에 그의 이름을 내건 시립미술관이 문을 연다. (02)720-1020

정혜숙 기자

티베트 분신 희생자 진혼춤으로 위로

내년 봄 개봉하는 사유진 감독의 'Peace in Tibet'



티베트의 독립을 외치며 분신한 티베트인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제작된 'Peace in Tibet'은 2013년 대원상 콘텐츠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티베트 불교 염불과 진혼무 그리고 희생자의 이름 불러주기가 혼합된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됐다.

여인의 춤사위는 때로는 격정적이었고 때로는 애절했으며 때로는 허공을 가로저으며 영혼과 맞닿아 있었다. 티베트 독립을 외치며 분신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무용가 최경실 씨의 춤이 사유진 감독의 영상에 담겨 새로운 장르로 탄생했다.

2013년 대원상 콘텐츠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Peace in Tibet'은 시사회를 마치고 내년 3월 7일 티베트 봉기대회에 앞서 개봉한다. 영화는 티베트의 분리 독립과 달라이라마의 귀환을 요구하며 분신한 티베트인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티베트 불교 염불과 진혼무 그리고 희생자의 이름 불러주기가 혼합된 새로운 형식으로 구성됐다.

사유진 감독이 티베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라고 전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들이 왜 이렇게 연달아 분신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죠. 70,80년대 한국에서도 전태일 열사 등이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외치며 분신을 했잖아요. 티베트의 현실을 알면 알수록 이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 감독이 영화 촬영을 계획할 즈음 또다른 희생자가 나왔다. 3월28일 티베트 암도 깐호지역의 모리사원 부근 교차로에서 28살의 꾼촉 땐진 스님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는 분신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외친 114번째 분신자이며 100번째 희생자였다

그들은 분신했지만 죽기보다는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 감독은 이를 춤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여느 다큐 영화처럼 과도한 해설이나 안내와 설명, 자극적인 자료 화면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영화 기법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 문제 세상에 알리고자 기획
무용가 최경실 씨의 춤 중심으로
희생자 100명 이름 불러주는 의식
영상으로 담으며 새로운 장르 개척
대원상 콘텐츠부문 장려상 수상



사유진 감독은 햇살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인권 문제를 시네댄스라는 새로운 장르로 표현해 냈다.

"지난 4월3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입구에서 100번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분신희생자 추모 및 평화기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영화 내러티브의 중요한 축이 춤이죠. 여기에 티베트 스님들과 참가자들이 분신 희생자 100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과정을 담아냈죠. 이는 진혼의 의미를 넘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Peace in Tibet'은 사 감독은 햇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영화다. 오랫동안 다큐 영화를 만들어 온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극과 다큐를 혼합한 새로운 장르로 펼쳐내고자 한다. "첫 프로젝트가 5.18 광주였어요. 앞으로 제주도 4.3 아우슈비츠 동학농민운동. 베트남 인민학살 등을 매년 씨네 댄스라는 새로운 장르의 작품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석용 스님 '종이, 꽃으로 피다' 전

11월 20일까지 소담한갤러리서

석용 스님(천태종 송탄 송덕사 주지)이 11월 20일까지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소담한갤러리에서 '종이, 꽃으로 피다' 지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화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잔칫상에 올라갔던 꽃들이다. 노란색은 양파와 치자로 빨강색은 소목(蘇木), 보라색은 머루와 지초로 물들이는 등 모두 산과 들에 피어있는 초목을 이용해 종이를 염색했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잔칫상에 사용됐던 꽃들 위주로 작품을 만들었다"며 "민간에서 주로 사용됐던 꽃을 이용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지화를 만든 이유는 승속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40여 작품을 선보인다. 스님은 "꽃 모양에 맞게 종이를 재단하고, 염색해서 말리고, 칼로 살을 접는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같다. 지극한 마음으로 종이 한 장 한 장에 마음을 다해 지화를 완성해 나갔다"며 작업과정을 설명한다.



자연재료로 염색한 종이로 제작된 석용 스님의 지화 작품

스님의 전시는 서울과 구인사로도 이어진다. 12월 5일~11일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에서,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에서는 12월 말에서 2014년 2월말까지 열린다. (043)420-7315 정혜숙 기자

BBS울산불교방송, 차문화한마당

BBS울산불교방송(FM 105.3Mh)이 '제5회 울산 차문화한마당'을 11월 15일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과 롯데백화점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공식행사인 1부 개막식과 2부 차학술 세미나,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개막식은 불교중앙차인회의 다도시연에 이어 개막선언과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인사말·축사,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으로는 울산BBS분다리카 합창단과 울산학춤보존회 공연이 마련된다. 2부 차학술 세미나에서는 예명다례원의 다도시연과 함께 서진길 전 울산문화원장과 한국중국차학연구원 짱유화(중국) 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부대행사로는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다도회 30여개 팀이 마련한 차 시음회와 시연회, 전시회 등이 준비된다. 정혜숙 기자

영종불교회관 '땡큐 붓다' 콘서트

정율·도신 스님 출연…마가 스님 강연도

영종불교회관(주지 자명)과 (사)170원의 생명나눔(회장 이만기)에서는 11월 17일 영종도 공항신도시에 위치한 '하늘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영종 주민과 불자들을 위한 '제 1회 자명스님과 함께하는 땡큐붓다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 전에는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의 '자기 행복찾기'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 펼쳐진다. 콘서트에는 정율 스님, 도신 스님(서광사 주지), 자명 스님 등이 출연한다.

여기에 이만기 교수의 공연과 '티 아트'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차 연구가 최송자 명인의 선을 찾는 차와 명상 퍼포먼스 공연도 진행된다. (010)-9343-3001 정혜숙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모든 교법을 모아 一心으로 통하도록 한
회통불교의 백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 · 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스님 번역 · 해설
신국판 | 양장 | 2도칼라 | 348쪽 | 20,000원
출간 즉시 2쇄 돌입!

문 · 사 · 철의 모범이자 비교종교학의 효시
선교쌍수의 종파를 초월한 수행지침서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판석들의 개요를 보였다.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창한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 선사의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하였으며, 논주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二色을 사용하였다. 정원(淨源: 1011~1088) 법사가 『원인론』을 해설한 「발미록發微錄」은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유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약하여 그 근본을 밝히고, 미혹함과 집착함을 비판하여 물리쳤다. 다음은 불교의 교법을 인천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파상교, 일승현성교로 분류하고, 그 교법의 내용과 근본(法)을 밝힌 뒤에, 치우침과 얕음과 깊음을 분별하였다. 또한 선문의 삼종과 교문의 삼교를 비교하여 선문과 교문이 지향하는 정점은 동일함을 밝혔다. 끝으로 인간세계의 근본인 일심을 밝혀서, 모든 교법을 모아 일심으로 통하도록 하였다.여기서 수승한 근기는 이 「논」의 뜻을 단박에 깨달아 얕은 것을 버리고, 성품을 바로 보인 깊은 교법에 의지하여 원대한 일심의 바다로 향하여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토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우주적 생명력의 역동적인 순환구조 상징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卍→卐 ㊦



卐字는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 자세히 나오는데 중국 당(唐)나라의 혜림(慧琳)이 807년에 편찬한 불교용어사전이다. 그 경전에 의하면 卐字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으며 때때로 나의 의견을 덧붙이기로 한다.

1. 卐字之形(今勘梵本卐字乃是德者之相元非字也….)

卐字는 덕자(德者)의 상(相)이지 원래 글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범자(梵字)에 의하면 그 모양에는 네 가지 상(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상들의 본질을 살피면 모두 한 가지 속성으로 귀결하여 감을 알 수 있는데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나 매우 흥미롭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런데 모든 범어 용어를 음사(音寫)한 것으로 범어를 모르면 알 수 없고 이미 범어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해하기 복잡하나 이 글에서는 간단히 밝히려 한다.(그림 ①: 다음에 언급한 나의 설명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기 바란다.)

2. …依梵文有四種相也.(다음에 한자, 한국어, 범어 등의 용어, 그리고 필자가 그 뜻을 해석하여 적어둔다.)

卐에는 네 가지 상(相)이 있다.

① 실리말차(室利靺ǽ): Sravasta, 卐字를 가리킨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卐의 조형 가운데 둥근 원이 있는데 그것은 앞 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보주에서 영기문이 사방으로 발산하되 오른 쪽으로 도는 조형이다.(도 2)

② 난제가물다(難提迦物多): Nandikāvarta, 즉 우선(右旋)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도는 '털' 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털이 아니다. 역시 역동적인 대생명력인 '물의 대순환(大循環)' 을 지극히 가장 간단한 조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바로 제1영기싹이다. 앞 회에서 그것이 '물' 임을 밝혔다.

③색박실저가(塞嚩悉底迦): Swasitka,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卐의 조형으로 앞 회에서 그 역동적인 대생명력인 물의 대 순환이라는 점을 나의 조형언어 읽기로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당(唐)시대의 불교용어사전의 도해는 부적 같아서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①과 혼동하기 쉽다.

④본낭가타(本囊伽ㅂㅋ: Purnaghata에는 세 상(相)이 있음: ㄱ. 鉢特忙: 발특망, Padma(연꽃) ㄴ. 斫訖羅: 적흘라, Cakra(法輪) ㄷ. 拔折羅: 절발라, Vajura(금강저)

본낭가타(Purnaghata)는 이 연재 시작했을 때 맨 먼저 다룬 '만병(滿甁)' 을 가리키는데 '대생명력(즉, 물)이 가득 찬 항아리' 를 뜻한다. 그 항아리에서 영기 꽃이 나오므로 흔히 꽃병이라 부르지만 꽃병이 아니다. 즉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찬 '물' 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만병에는 세 가지 상(相)이 있다고 한다.

ㄱ. 원래 만병은 연꽃에서 탄생하는데(이 문제는 도자기 성립 과정에서 가장 큰 주제이므로 다음 기회에 다룰 것이다), 경전에서도 맨 밑에 연꽃 모양에서 만병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만병에는 padma 즉 '연꽃의 상(相)' 이 있다는 기막힌 해석은 해놓았으나 충분한 해설이 없으므로, 사전이 나온 이래 1000년 이상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근대에 이르러 꽃병(花甁)이란 그릇된 용어를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병(滿甁)으로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ㄴ. Cakra는 법륜(法輪) 혹은 보륜(寶輪)이라 부르지만 그 용어도 인도에서 처음부터 오류를 범하여 썼던 용어이다. 언뜻 보기에 수레바퀴같이 보이지만 수레바퀴가 아니고 큰 원 안의 중앙에 둥근 원이 있고 그 중앙의 둥근 원은 보주로, 보주에서 빛(영기)이 햇살같이 뻗어나가는 조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역시 중앙의 보주(寶珠)는 영기가 충만한 둥근 모양이지 보석이 아니다. 이 보주라는 용어 역시 다음 회에서 다루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보주에서 발산하는 영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ㄷ. 절벌라는 바로 금강저(金剛杵)를 가리키는데 이 금강저 역시 무기나 막연한 깨달음이 아니고, 상징이 매우 큰 만물생성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역시 다음 회에서 충분히 다루려 한다. 금강저라는 용어가 왜 옳지 않은지 자세히 밝힐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경음의〉에서 다룬 여러 상(相)들은 결국 모두 물, 즉 우주의 순환하는 대생명력 즉 만물생성의 근원으로 귀결할 수 있으므로, 모두 경배의 대상으로 될 수 있어서, 그 여러 상(相)들이 불감이나 건축에서 여래나 보살의 자리에, 이슬람 미술에서는 알라 신(神)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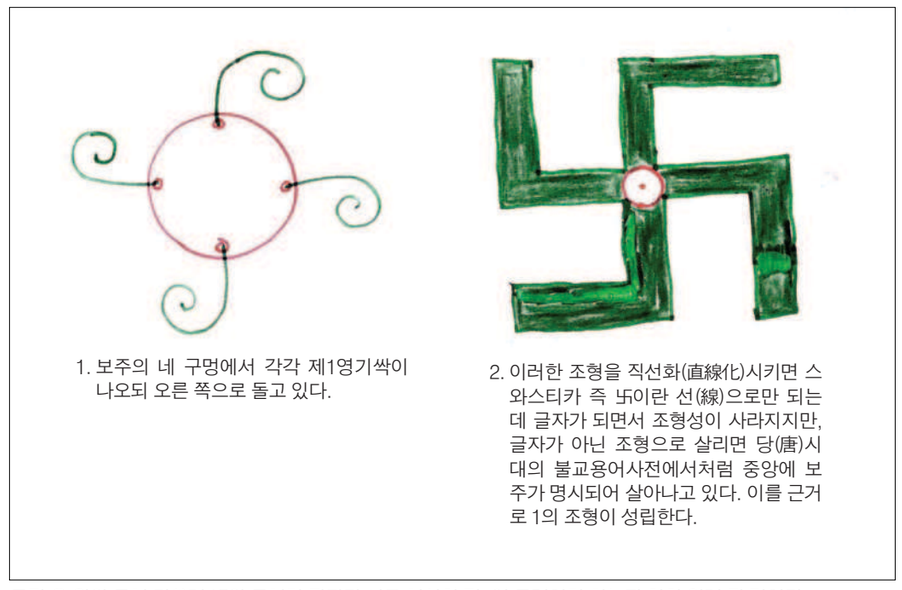
앞 회에서 卐이라는 조형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면 이상과 같다. 근대에 서양에서 펴낸 불교 사전에서 범어와 영어 해석에 의해 겨우 용어의 단서들을 알고 다시 내가 그 약간의 오류들을 바로 잡아 가면서 이 연재를 3회에 걸쳐 쓰는데 한 달이 걸렸다. 卐의 조형은 제1영기싹-보주-용(龍)-금강저 등 큰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런데 〈일체경음의〉에는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원래 卐이 우선(右旋)임을 알 수 있었고 관련된 상(相)들로 해서 卐의 조형적 상징을 비로소 밝힐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卐이란 모양은 우주의 가득 찬 대생명력[물]의 역동적 대순환을 가리키는 만물생성의 근원을 조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그 자리에 도가사상이나 불교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 즉 여래나 보살, 태극[道] 등이 대신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중국 불교용어 사전의 도해(불필요한 것은 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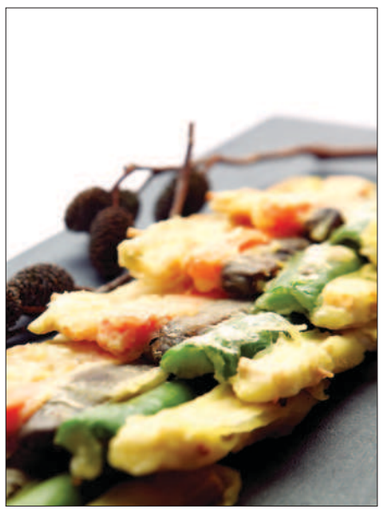
1. 보주의 네 구멍에서 각각 제1영기싹이 나오되 오른 쪽으로 돌고 있다.

2. 이러한 조형을 직선화(直線化)시키면 스와스티카 즉 卐이란 선(線)으로만 되는데 글자가 되면서 조형성이 사라지지만, 글자가 아닌 조형으로 살리면 당(唐)시대의 불교용어사전에서처럼 중앙에 보주가 명시되어 살아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의 조형이 성립한다.

그림 ② 위의 도해 가운데 卐의 도해만 필자가 새로 해석한 것. 왜 그래야만 하는지 차차 알게 될 것이다.

藥이 되는 사찰음식

말린 채소로 먹는 비타민 D 호박고지



호박고지 산적

△재료(4인 기준)

○ 호박고지 300g, 간장 1큰술, 들기름 1큰술, 소금 약간

○ 당근 1/2개, 풋고추 10개, 표고버섯 10장, 새송이 2개

○ 우리밀가루 1/2컵, 메밀가루 1/2컵, 물 250cc, 간장 1작은술, 소금 1/2작은술

△만드는 법

① 호박고지는 찬물에 살짝 씻은 후 표고버섯과 함께 부드럽게 불려 물기를 짠 후 밑간한다.

② 당근은 7cm 정도의 길이로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준비한다.

③ 풋고추, 새송이, 표고버섯도 7cm 정도의 길이로 썬다.

④ 꼬지에 호박고지와 부재료를 색 맞추어 꽂아 부침옷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구워낸다.

파프리카 백김치

△재료(4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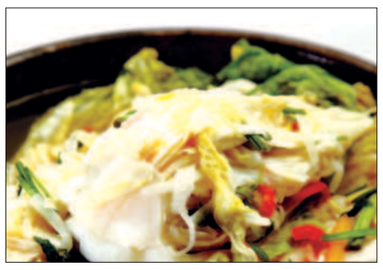
○ 배추 1포기, 소금 2/3컵

○ 배 1/2개, 빨간파프리카 1개, 노란파프리카 1개, 무 200g, 미나리 30g, 생강 20g, 국간장 3큰술, 소금 1큰술, 매실청 2큰술

○ 물 3컵, 소금 1큰술

△만드는 법

① 배추는 2.5kg 정도의 것을 골라 누런 잎 등 겉잎을 다듬은 다음 분량의 소금물에 10시간 정도 절인 후 헹궈 물기를 뺀다.



② 배추소에 들어갈 재료는 모두 0.3cm 정도의 크기로 채썰어 간장과 소금, 매실청을 넣어 골고루 버무린 후 배추 사이사이에 소를 채운다.

③ 물 3컵을 끓인 후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 후 식힌 후, 배추에 부은 후 꼭꼭 눌러 담는다.

자연재료 맛 살린 '파프리카 백김치'

곡식이나 채소를 갈무리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무나 호박 등 갖가지 재료들을 많이 말리고, 그 말린 재료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해 먹는데 그중에서도 호박고지는 찜이나 전, 떡 등 많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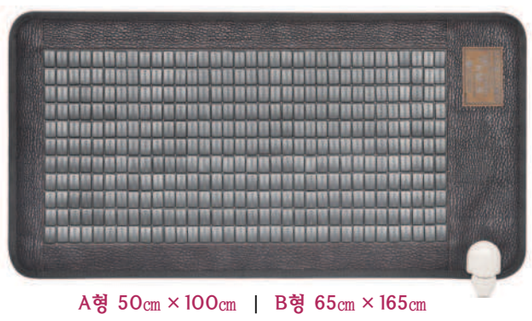
호박을 햇볕에 말림으로써 호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영양성 외에도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지고 그 맛이 농축되어 더욱 깊은 맛을 내게 된다. 산적으로 만들어 먹을 경우는 밑간을 하여 꼬지에 꽂아야 깊은 맛이 나게 되며 여기에 밀가루만 사용하기 보다는 메밀이나 콩가루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 김치의 영양성은 우수하나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한다는 이유로 김치를 많이 먹지 않거나 싱겁게 담아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파프리카 백김치는 자연재료의 단맛과 함께 저염김치로 손색이 없다.

백김치는 일반 배추김치보다는 조금 작고 겉잎은 파랗고 속은 노란 것을 골라 10%의 소금물에 12시간 정도 절인 후 두세번 정도 헹궈 물기를 뺀 다음 소를 채워 넣고 반나절 정도 지나 배추와 소가 어우러져 약간 숨이 죽을 때쯤 국물을 부어 주어야 간이 잘 들며 팔팔 살아나거나 풋내가 나지 않는다. 이는 배추를 버무린 후 바로 물을 붓게 되면 배추의 간이 배이기 전에 염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온에서 2~3일 정도 살짝 익힌 후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 발효가 잘 되어 백김치 특유의 톡 쏘는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제 맛을 낼 수 있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착한 삶’ 이 인류 구할 것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스님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1만3천원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26년째 구도의 여정을 이어가는 청전(60) 스님이 행복의 비밀이 담긴 글과 사진을 들고 돌아왔다.

축복 받은 삶은 무엇이고,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26년째 히말라야 설산 자락에서 지내온 청전 스님은 히말라야를 닮은 맑고 밝은 사람의 얼굴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아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착한 삶’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었다. 어쩌면 끝 모를 욕망을 좇느라 우리가 가장 먼저 내다버렸을지 모를 ‘착한 삶’ 속에 가장 고귀한 행복의 열매가 있음을, 저자의 참스승인 눈 맑은 영혼의 사람들이 들려준다.

저자인 청전 스님은 1972년 유신 선포 때 사회에 대한 자각으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성직자의 길을 선택했다. 신학교에서 신부수업을 받다 1977년에 송광사로 출가했다. 십여 년간 참선수행을 하다가 수행 과정에서 떠오른 의문들을 풀기 위해 1987년에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을 둘러보는 순례길에 나섰다. 그때 마더 데레사 등 여러 성자들과 더불어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게 될 달라이 라마와 만났다. 1년간의 순례여행을 마친 뒤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1988년부터 지금까지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공부하고 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지내며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분 못지않은 많은 이름 없는 스승들이 나의 행복을 이끌었다. 이십년 넘게 단골로 지내는 인도의 푸줏간 삼형제, 이름 없는 뿌자리 노인, 라다크 순례 봉사 때마다 마주치는 눈 맑은 노승들까지, 나를 가르친 참스승은 이름 없는 민중들이었음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책은 신학생에서 승려로, 다시 한국에서 인도로, 참스승을 찾아 10여 년을 떠돌던 청전 스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름 없는 스승들이 전하는 행복의 비밀들이다.

산을 좋아해 험한 고지를 찾아 헤매던 산사람으로서 저자의 업력은 히말라야 자락에 자리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어느 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성산 카일라스(수미산)를 비롯해 히말라야 설산 연봉을 무수히 누비던 순례자의 발걸음이 다다른 곳은 라다크였다. 그곳 곰빠(절)와 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알게 된 후 애타게 깨달음을 갈구하던 ‘코리안 몽크’는 사랑을 전하는 ‘산타 스님’으로 변신했다. 해마다 보따리장사처럼 지프차 가득 가방 여러 개를 싣고 일 년에 단 한 차례 길이 열리는 라다크로 여름 한 달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다. 가방 속에는 곰빠의 스님과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줄 손톱깎이부터 중고 손목시계, 보청기, 돋보기, 각종 영양제와 학용품이 가득하다.

알음알음으로 눈먼 돈을 보내오는 지인들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보내주는 도움의 손길은 그동안 산타 스님을 통해 히말라야 오지 곳곳에서 기적을 낳았다.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가난한 곰빠에 요기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영양사 엄마소를 사주고, 사미승과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영양식도 챙긴다.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나 있는 비포장도로를 한없이 달리고, 해발 사오천 미터의 고개를 몇 개나 두 발로 넘어야 하는 여정은 매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 그래서 해마다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돌아오는 날부터 본능처럼 보따리에 넣을 사랑의 선물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한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나를 기다리는 욕망이 적고, 맑고 밝은 그들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그들이야말로 내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산타클로스이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고백은, 깨달음(수행)과 행복(사랑)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일깨운다.

저자가 26년째 머무는 북인도의 다람살라는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난민들의 거주지다. 그곳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행을 겪으며 히말라야 설산을 맨몸으로 넘어온 난민들의 사연이 수두룩하다.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세 비구니 스님은 중국의 감옥에서 극악무도한 성폭행에 시달리다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왔다. 그 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 스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 평범한 일반 신도로 새 삶을 꾸리고 있다.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위해 몰래 국경을 넘다 양쪽 시력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 이십대 나이에 양로원에 거주하는 스님도 있다.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넘어온 난민들에게 달라이 라마는 “지금 여기서 착하게 살라”고 말한다. 이웃을 위하는 착한 삶이야말로 행복의 요체이자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빛이라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때 묻지 않은 인간의 영혼을 지닌 민족이자 인류의 빛으로서 티베트 민족의 순수한 모습이 지금 그대로 간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티베트의 자유 독립을 간절히 염원한다. 티베트 민족이야말로 지금 여기 나의 존재가 모두 이웃의 덕분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는 마지막 희망임을 믿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달라이 라마의 제자로서 ‘착한 삶’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신념을 품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오늘도 ‘산타 스님’은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람살라 곳곳을 누비며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26년째 히말라야에서 지내온 청전 스님은 히말라야를 닮은 맑고 밝은 사람의 얼굴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아냈다.



저자 청전 스님

순례길에서 달라이 라마 만나 스승으로
26년째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구도
그곳에서 깨달은 ‘행복’ 이야기
오지마을에 선물보따리 전하는 산타
깨달음(수행)과 행복(사랑)은 하나

일흔두 해 보내며 알게 된 이야기들

나 이대로 좋다

맹난자 지음 | 연암서가 펴냄 | 1만5천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자는 책을 건네며 말했다. 더 이상 책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책은 ‘유서’였다.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1, 2〉, 〈주역에게 길을 묻다〉 등의 저자 맹난자〈사진〉의 수필집이다.

“여기까지 살자고 생각했다. 일흔둘. 홀로 되신 아버지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다. 〈중략〉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되었다. 한 나무에서 봄, 가을을 일흔두 번이나 보았다.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충분히 알았다. 대지가 나를 이만큼 키워 열매 맺게 했고 시들게 하는 것, 자연의 흐름이다. 가을도 깊었다. 언제 떠나게 되더라도 바쁘지 않도록 준비해 두고 싶었다. 흩어진 원고를 정리하고 최근의 심정도 적어 두었다. 나머지는 자연에 맡긴다. 벌거숭이로 와서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남의 힘으로 이만큼 왔다. 부모님은 물론 지중한 스승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책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꼭 담고 싶었다. 〈중략〉 지금 세상은 온통 단풍으로 곱다. 그걸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단풍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작가는 이제 자신을 단풍이라고 생각하고, 일흔두 해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숲에서의 이야기를 깊어가는 하늘에 적었다.

문단의 윗줄에서 볼 수 있는 저자는 이화여대 국문과를 수료하고 연극을 하다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편입했다. 서정주, 오영수 등으로부터 사사하고 줄곧 수필 창작과 한국수필진흥에 몰두해 왔다. 그는 어린 시절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이 삶에 끼친 여파를 톡톡히 치러야 했고, 그대로 그녀 삶의 뼈대가 되어버린 ‘죽음’에 대한 의문과 걷게 된다.

책은 그가 그렇게 걸어온 배움과 비움의 여정에 대한 기록으로,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조와 통찰, 불교적 사유, 문학과 인간, 수필과 글쓰기, 그리고 법정 스님, 정창범, 김구용, 오영수, 피천득, 박완서, 홍순길 등 살아오면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풍나무가 한 잎 한 잎 가을에 물들어 가듯 적고 있다.

“요즈음 들어 더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나를 둘러싼 결핍된 사항과 부족한 것들에 대해 그 개선을 요구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끌어모아서 얽어매면, 한 칸의 초가집. / 풀어헤치면 본래의 들판으로 돌아가리. / 바람 부는 언덕에 선 채, 나 이대로 좋다.’ 어느 선사의 시구처럼 허물어져 가는 한 칸의 초가집 같은 나.



언젠가는 본래의 들판으로 돌아가리. 바람 부는 언덕에 선 채, 나 이대로 좋다.”

일흔두 해를 겪은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숲에 미련이 없다. 익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낙과처럼 가을이 물들여 준 나뭇잎들을 내려 놓고 싶을 뿐이다. 글과 글 사이에서 그가 내려놓은 낙엽들이 뒹굴고 있다. 그 낙엽들은 작가가 서문에서 밝힌, “충분히 알았다”고 했던 것들이며, “여기까지만 살자고 생각했다.”로 시작하는 〈나 이대로 좋다〉의 뼈대는 ‘적멸(寂滅)’이다. 충분하게 알았다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작가는 ‘적멸’의 문고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책에 적힌 유언들은 적멸의 문을 향해 걷는 작가의 발걸음이다.

전작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와 개정판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세계 작자 묘지 기행집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1, 2〉에서 작가는 이미 삶과 죽음의 문제를 문학적, 미학적, 주역과 불교문학적인 관점에서 탐색했다. 이번 〈나 이대로 좋다〉도 같은 줄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작가의 미학과 사상이 한층 더 집약된 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작가는 이번 글을 통해 수필이란 장르가 ‘불교’를 쉽고 명징하게 담기에 알맞은 그릇임을 증명하고 있다. 글과 글의 마디마다 스며있는 부처님의 생각과 가르침들이 ‘종교’라는 담장을 거두고 독자들의 가슴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더 이상 그의 새로운 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혹여 이후로 그의 다른 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책은 그의 ‘마지막’ 책이 분명하다. 책 〈나 이대로 좋다〉는 이미 ‘적멸’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다시 그의 책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의 새로운 ‘첫 번째’ 책일 것이다. 맹난자는 불교라는 흙 속에 깊게 뿌리내린 나무다. 그의 글은 그 나무가 키우고 피운 꽃이고 잎이다. 문학 속에 피어 있는 불교와 불교를 담은 문학을 경험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31 ~ 11/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가지 명상	잭 콘필드	불광출판사
7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출판사
8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안경애	운주사
9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비움과소통
10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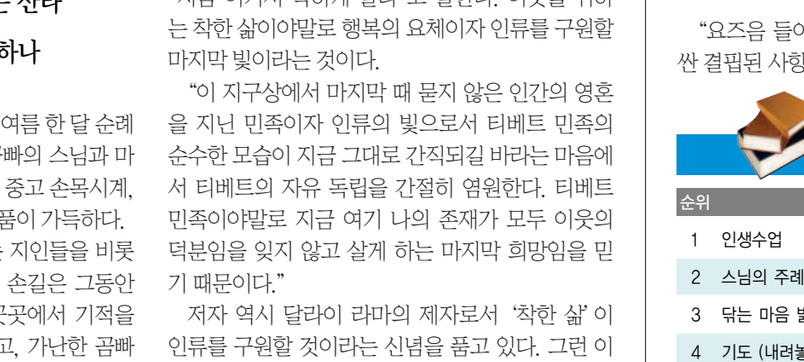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쉽게 성취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심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설산 사자봉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밝은면만 조명한 불교연구 극복 과제”



한국불교사 연구입문 상·하
최병헌 외 지음
지식산업사 펴냄
각권 3만원

“한국의 불교학은 불교가 사적이고 초월적 영역에 속하는 반면, 정치는 공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당연히 불교는 비정치적인 것과 내면 신앙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불교 연구도 자연스럽게 탈 정치적이고 밝은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서구적 종교 개념의 수용에서 말미암은 이런 종교 인식과 방법론은 비판 극복돼야 할 것이다.”

2008년 퇴임한 최병헌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1971년 한국불교사 연구를 시작으로 40여년간을 불교학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다. 최 교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불교학 연구 수준은 미미한 단계이며, 이제는 불교 교학과 교단에 대한 문헌 중심의 이해에서 벗어나 연구 주제도 민속, 여성, 언어, 건축 등 불교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로 확대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본과 서양학계에서 훈련받은 젊은 학자들이 귀국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외국 학계와의 학문 교류가 활발해져 공동 연구가 추진되는 단계로 진입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불교사 연구에 외길을 걸어온 최 교수가 이번에 27명의 중견 · 청년 학자들과 함께 1600년에 걸친 한국불교의 연구 성과를 총정리하고, 앞으로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불교사연구입문〉을 통해서다. 이 책에서는 한국불교에 관한 해외 연구 현황까지 폭넓게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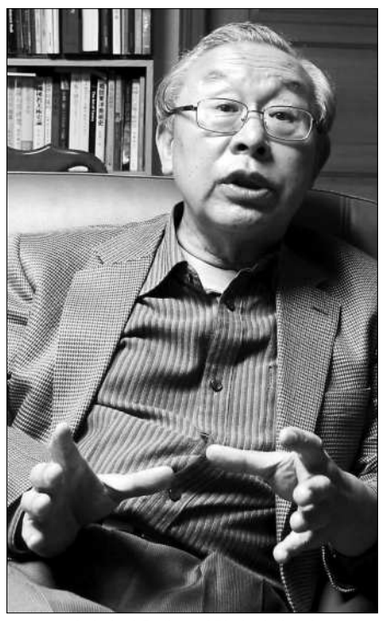
이 책은 한국불교사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으며, 불교사 연구의 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새 연구방법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그래서 한국불교사에 대한 개괄적 소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성하면서 향후 연구 방향을 조망하는 연구입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사상과 역사를 비롯한 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서술해 지금까지의 한국불교사 연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경향을 가늠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통문화의 큰 자산인 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발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위상의 크고 높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국가 문화재 가운데 불교 관련 유적과 유물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증명해 준다.

현재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 · 신화학 · 문학 · 고고학 · 건축학 · 인류학 · 정치학 · 경제학 · 사회학 · 물리학 등 인접 분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주제도 불교교학과 교단에 대한 문헌 중심의 이해에서 벗어나 사회생활과 불교문화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책은 주제를 31개로 나눴다. 상 · 하권에 걸쳐 7부로 구성됐으며,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한국불교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유교는 지배 이념과 사회윤리로서 지배계층 위주로 받아들인 데 반해 불교는 일반 서민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전체 구성원을 포괄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불교는 주류에서 밀려나 교단이 축소되고 승려들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 · 변질함으로써 현대문화 발전의 주역을 담당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작금의 현실에서 불교계의 난맥상과 무기력한 모습은 고대와 고려 불교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의 요인으로 이어져 불교사학 연구는 한국 인문학 분야 가운데 여러면에서 가장 뒤쳐진 분야로 전락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교수는 또한 “역사 속에서 불교는 세속과 격리된 고매한 이상적 모습만이 아니라, 때로는 현실의 모순을 정당화하고 정치 · 경제적 이해를 관철시켜 온 역사를 지녀 불교학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헌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최 교수 등 27명, 한국불교 연구총망라
통 · 호국 불교는 일본제국의 잔재
특성사례 모아 일반화 하는것 제고돼야

최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일본불교의 잔재에 대한 설명도 소개하고 있다. 통불교론과 호국불교론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영향 하에 관심 갖게 됐지만 당시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유린당하면서도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인 생존 의미와 함께 일본 식민지사학에 대항하려는 측면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본서 빌려온 개념으로 침략 세력과 그 불교에 대항한 사실은 한국 근대불교사학이 간직한 역사 인식의 한계점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또한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은 전시체제를 갖추면서 전국의 본사 주지를 불러놓고 시국에 동참해 달라는 주문을 했으며, 총본산 건설을 추진한 것도 바로 일본이 우리 한국 불교계를 유린했던 증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최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호국불교’ 나 ‘통불교’ 라는 개념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특정 사례만을 모아 한국불교의 전체적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는 기존 방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교수는 ‘통불교’ 를 확산시킨 최남선의 안목도 높이 평가했다. 후대의 학자들은 육당의 ‘통불교’ 만 주로 인용했지만 진정으로 육당을 높이 평가해야 될 점은 동아시아불교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개과정에서 한국불교사의 이해를 추구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번 책에서는 △신라말 구산선문 △고려의 천태종 창립 △여말 유불교체론 △근대불교사 등이 빠져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앞으로 철학을 포함한 불교학 연구와 불교사학연구 등에 중점적으로 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된 불교이야기 만화로

석가모니와 불교의 발전

조민숙 글 | 김대진 그림 | 주니어 김영사 펴냄
1만3천원



이 책은 중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역사, 사회, 윤리 등)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역사의 핵심사건을 뽑아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21세기 최대 트렌드인 컨버전스는 사회 각 분야의 융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 여러 영역은 물론 교육과 입시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60년 만에 대폭적으로 바뀐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도입이 그 예이다. 즉,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언어영역, 사회영역, 예술영역의 지식이 필요하며 과학과 언어영역을 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이런 요구에 가장 확실히 답하는 세계사 만화 시리즈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 전반에 널리 전파된 불교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일생과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를 시작으로 나라와 시대별로 불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석가모니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된 불교가 어떤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는지를 역사적 ·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종교 관련 도서와 차별화했다.

불교의 시작은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던 석가모니가 오랜 수행 끝에 얻어낸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석가모니가 입적하자 그의 제자들은 석가모니가 남긴 불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수행법을 낳았다.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기 시작한 불교는 각국의 시대적 ·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국교로 수용되는가 하면 사교라는 이름으로 탄압받기도 했다. 서양의 역사 전반에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듯이 동아시아의 역사 전반을 불교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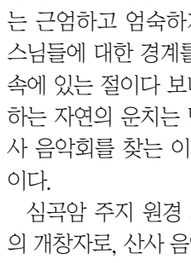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불교가 남긴 예술과 문화의 가치에 주목한다. 동아시아 곳곳에 남아 있는 불교 사원과 불상들,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던 각국의 승려들이 남긴 경전과 책들은 당시 문화와 생활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불교 전파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세 나라의 당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삶에서 죽음까지 모두 행복해지는 45가지 공부

그대 진실로 행복을 바란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세요

원경 스님 지음 | 팬덤북스 펴냄 | 1만3천원
1만6천원



삶의 우여곡절을 뼈저리게 경험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거친 인연을 절박하게 거스르다 상처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 또한 운명과 인연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어느새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물안개처럼 되고 만다. 결국 산다는 것은 운명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지난한 싸움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남이 곧 죽음을 향하는 시작이라는 운명, 사람에게서 상처받지만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인연,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스님과의 만남이 어쩌면 작은 위안을 줄지도 모르겠다. 바로 북한산 형제봉 자락에 있는 작은 절, 심곡암의 주지 원경 스님이다.

매년 봄, 가을이면 전국의 크고 작은 절에서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사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열리는 산사 음악회는 지역민이 향유할 문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불교 신도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산사 음악회는 근엄하고 엄숙하게만 느껴지는 절과 스님들에 대한 경계를 허물기도 한다. 산속에 있는 절이다 보니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자연의 운치는 덤이다. 알음알음 산사 음악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이다.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은 산사 음악회의 개창자로, 산사 음악회를 통해 현실 속에서 진선미를 구현하고자 한다. 다도와 전통 무술에 조예가 깊은 원경 스님은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그대, 꽃처럼〉이라는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기도 하다. 여러 분야에 대한 조예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산사 음악회를 30여 회에 걸쳐 계속 개최하는 원동력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원경 스님이 시집에 이어 첫 산문집 〈그대 진실로 행복을 바란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세요〉를 발간했다. 산문집은 ‘인생 공부’ ‘세상 공부’ ‘마음 공부’ ‘죽음 공부’ 라는 네 가지 공부 주제를 이야기한다.

원경 스님은 네 가지 주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공부하면 자신 안의 의문, 집착, 망상,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삶에서 죽음까지 모두 행복해지는 45가지 공부’ 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의문, 집착, 망상,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한 과정에 대한 성찰을 쉽고 편한 말투로 전달한다.

원경 스님은 우선 태어남에 대한 의문을 버리라고 말한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드는 ‘왜 태어났나?’ 라는 의문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어서,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일어난다. 모든 집착을 버리면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경 스님은 누군가가 ‘왜 사느냐?’ 고 물으면 ‘살아 있으니까……’ 라고 답할 생각이라고 한다. 태어난 업으로, 살아야 되는 업이므로 산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는 문제는 ‘왜’ 가 아니라 ‘어떻게’ 로 바뀌어야 한다는 충고이다. 그렇다면 집착과 망상은 어떻게 뿌리쳐야 할까? 사람들은 평생 집착과 망상에 흔들리며 산다. 조금만 힘들어도 울고불고 야단법석을 떨고, 조금만 즐거워도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마음의 뿌리가 깊고 견고하지 않아서다. 언제나

‘인생’ ‘마음’ 등 네 주제로 서술
‘죽음공부’ 인생서 꼭 필요해

그 자리에서 고요하고 당당하게 서 있으려면 마음 단속이 먼저이다. 설사 마음이 일었다 해도 알아차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맑게 닦아 언제나 진리를 관찰하고, 마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야 한다고 원경 스님은 말한다.

집착과 망상을 어렵게 버린다고 해도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기는 어렵다. 원경 스님은 죽음을 이기는 길이란 모두를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욕망과 미움에 사로잡힌 나를 버리고 내면의 평온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죽음을 극복하면 자유인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못지않게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를 늘 마음에 담고 죽음을 공부해 보라고 권한다. 열심히 죽음을 공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라며, 원경 스님은 죽음 공부야말로 마지막 공부이자 가장 귀중한 공부라고 말한다. 일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휩쓸려 살다 보면 마음의 끈을 놓치게 된다.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 원경 스님은 진정한 행복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부터 먼저 자각하고 실행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성찰하고 집착을 버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죽음마저도 공부하기를 권한다.

김주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강경과 명심보감 ㊦

정대구 교수(前 영산대)

불교 선행 윤리 논리적으로 뒷받침

• 예불자 경불지덕 염불자 감불지은 간경자 명불지리 좌선자 답불지경 득어자 정불지도(禮佛者 敬佛之德 念佛者 感佛之恩 看經者 明佛之理 坐禪者 踏佛之境 得悟者 正佛之道)「성심편」112조

예불을 드리는 것은 부처님의 덕을 존경하는 것이요. 염불하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불경을 보는 것은 부처님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요. 좌선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를 밟아보는 것이요.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교의 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 장심비심 변시불심(將心比心 便是佛心)「존심편」7조

받드는 마음, 따르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 이기지심 탁인지심(以己之心 度人之心)「존심편」7조

자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라

• 천불생무록지인, 지부장무명지초 (天不生無祿之人, 地不長無名之草)하늘은 녹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 공심약비사심 하사불변 도념약동정념 성불다시(公心若比私心 何事不辨, 道念若同情念 成佛多時)「성심편」204조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같이 한다면 무슨 일이고 분명하게 못하랴, 도를 생각하는 것을 정을 생각하듯이 한다면 성불을 해도 여러 번 했을 것이다.

• 인심생일념 천지실개지 선악약무보 건곤필유사(人心生一念 天地悉皆知 善惡若無報 乾坤必有私)「천명편」6조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천지가 모두 이를 안다. 만약에 선악간에 응보가 없다면 하늘과 땅도 틀림없이 사가 있음이다.

• 약의불사병 불도유연인(藥醫不死病, 佛度有緣人)「성심편」142조

약으로 고쳐 죽지 않는다면 부처님은 인연 있는 사람부터 구제할 것이다.

• 유심무상 상축심생 유상무심 상수심멸(有心無相 相逐心生, 有相無心 相隨心滅)「존심편」19조

마음엔 있고 외형이 없다면 외형은 마음따라 생겨나는 것이요, 외형에 있어도 마음에 없으면 외형은 마음 따라 없어지는 것이다.

• 무구승보시 근수승지제(無求勝布施, 謹守勝持齊)「존심편」61조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보시보다 낫고, 삼가지키는 것이 지제보다 낫다.

• 이청선언 불타삼악(耳聽善言 不墮三惡)「계선편」13조

귀로 좋은 말만 들어도 삼악(지옥 아귀 축생)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 제전화상 경세시 간진미타경 염철대비축 종과환득과 종두환득두 경축본자비 원결여하구 조견본래심 주자환타수(濟顚和尙 警世詩 看盡彌陀經 念徹大悲祝 種瓜還得瓜 種豆還得豆 經祝本慈悲 冤結如何救 照見本來心 做者還他受)「성심편」114조

제전화상 경세 시에, 미타경을 다 보고 대비한 주문을 다 통했도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경문과 주문은 본래 자비를 뜻하는 것인데 원한을 맺었으니 어찌 구제될꼬? 본래의 마음에 비추어 보라. 죄지은 자는 타인에게서 그 죄를 돌려받는다.

• 막소타가빈 윤회사공도 막소타인노 종수환도가(莫笑他家貧 輪廻事公道 莫笑他人老 種須還到我)「성심편」225조

남의 집 가난을 비웃지 마라 빈부의 일은 윤회하여 공평한 것이다. 남이 늙었다고 비웃지 마라 끝내 그 늙음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이상 예문들에서 보듯, 명심보감은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 인과응보, 방편, 선행, 번뇌, 지족안분 같은 내용을 곳곳에 품고 있다. 모든 종교가 당연히 선행을 가르치고, 악행을 경계하는데, 불교는 타종교보다 이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논리적이다. 불교의 특성 중 하나인 인과응보를 내세워 선업선과 악업악과를 강조하고 윤회설과 삼세관을 내세워 선행을 하면 내세에 좋게 태어나고 악행을 저지르면 축생으로 환생한다고 설득력 있게 선행의 윤리를 논리적으로 뒤받쳐준다.

이처럼 마음에 새겨 두고 싶은 구절로 가득 차있는 책이 명심보감이다. 불교뿐 아니라 유가를 비롯한 제자백가의 서에서 좋은 문구들만 골라 모아놓았다.

명심보감에는 논어 구절이 많이 보이지만 경행록 · 근사록 · 설원 · 도경 · 소서 · 사기 · 한서충효략 · 안씨가훈 등등 수많은 책과 공자와 공자제자들(안자, 증자, 자하, 자공) 맹자 · 노자 · 장자 · 순자 · 태공 · 사마온공 · 마원 · 양웅 · 포박자 · 이단백 · 소강절 · 소동파 · 굴원 · 명도정호선생 · 횡거선생 · 한소열 · 당태종 · 인종황제 · 신종황제 · 고종황제 · 현제 · 자허원군 등등 실로 각계각층을 망라한 수많은 사람들의 명언총집합체가 명심보감이다.

따라서 자고이래로 명심보감의 많은 구절들이 인구에 회자되어 은연중 자기도 모르게 인격형성에 크게 작용하여 사람들 심성에 올곧고 밝은 바탕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다.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근위무가지보 신시호신지부(勤爲無價之寶 愼是護身之符)
책인지심책기 서기지심서인(責人之心責己 恕己之心恕人)
물이악소이위지 물이선소이불위(勿以惡小而爲之 勿以善小而不爲)

법화경에 이르기를 '어떠한 악도 짓지 말고 선을 많이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라고 했다. 명심보감 계선편에 수록된 불교적 성향의 문구들을 음미하며 읽어보자.

• 선사(善事)는 수탐(須貪)하고 악사(惡事)는 막락(莫樂)하라.(계선편)

선사는 심히 탐해서 하고 악사는 절대 즐기지 말라

> **명심보감 계선편, 성심편에는 자비, 공덕, 방편, 선행, 번뇌 등 불교 기본 내용 담겨있어**
>
> **특히 인과응보, 윤회관, 삼세관 등 선업선과 악업악 강조**

• 일일불념선(一日不念善)이면 제악(諸惡)이 자개기(自皆起)니라.(계선편)

하루라도 선(善)을 금하지 않으면 모든 악심(惡心)이 절로 일어나느니라.

• 어아선자(於我善者)도 아역선지(我亦善之)요 어아악자(於我惡者)도 아역선지(我亦善之)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악하게 구는 자라도 나는 그에게 변함없이 잘해줄 것이니라.

• 아기어인(我旣於人)에 무악(無惡)이면 인능어아(人能於我)에 무선악재(無善惡哉)다. (계선편)

내가 남에게 악하게 안 했다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지 않는다

• 종신행선(終身行善)이라도 선유부족(善猶不足)이요 일일행악(一日行惡)이라도 악자유여(惡自有餘)니라.(계선편)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해도 선은 오히려 모자라다 할 것이요.

단 하루만 악을 행하더라도 악은 절로 남음이 있다할 것이다.

• 위선자(爲善者)는 천보지이복(天報之以福)하고 위불선자(爲不善者)는 천보지이화(天報之以禍)니라.(계선편)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겐 하늘이 그에게 복으로써 보답하고

불선(不善)을 하는 자에겐 하늘이 그에게 재화(災禍)로써 갚는다.

• 물이악소이위지(勿以惡小而爲之) 물이선소이불위(勿以善小而不爲)(계선편)

하찮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말고 별로 생색나지 않는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안 하지 말라.

다음은 계선편에 나오는 비교적 긴 글이다 읽어보자.

• 은의(恩義)를 광시(廣施)하라, 인생하처불상봉(人生何處不相逢)이랴

—은의를 넓게 베풀라, 인생살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그를 만나지 않으랴

수원(讐怨)을 막결(莫結)하라, 노봉협처난회피(路逢狹處難回避)니라.

—원수를 맺지 마라, 외나무다리에서 그를 만나면 피해가기 어렵다.

일일행선(一日行善)에 복수미지(福雖未至)나 화자원의(禍自遠矣)요,

—하루 선행에 비록 복이 이르지 않는다 해도 복은 절로 멀어질 것이요,

일일행악(一日行惡)에 화수미지(禍雖未至)나 복자원의(福自遠矣)니,

—하루 행악(行惡)에 비록 복은 이르지 않겠지만 복이 절로 멀어질 것이니,

행선지인(行善之人)은 여춘원지초(如春園之草)하여 불견기장(不見其長)이나 일유소증(日有所增)하고,

—행선한 사람은 마치 봄동산에 풀 같아서 자라는 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날마다 더함이 있을 것이요,

행악지인(行惡之人)은 여마도지석(如磨刀之石)하여 불견기손(不見其損)이나 일유소휴(日有所虧)니라.

—악을 행한 사람은 마치 칼갈이 숫돌과 같아서 당장은 손실(損失)이 보이지 않겠지만 날로 망가지고 이지러지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나오는 말

속도와 물질로 황폐된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할 길은 최고의 지혜서인 〈금강경〉, 〈명심보감〉, 〈논어〉 같은 동양 고전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 본 강좌에서는 명심보감을 주 텍스트로 하여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 같은 경구명언을 찾아 이해하고 감상했다. 이를 통해 물질적 과욕을 버리고 정신적 안분지족의 삶을 생활방편으로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주 정대구 교수의 약력 중 서울대 사범대학을 서울문리사범대학으로 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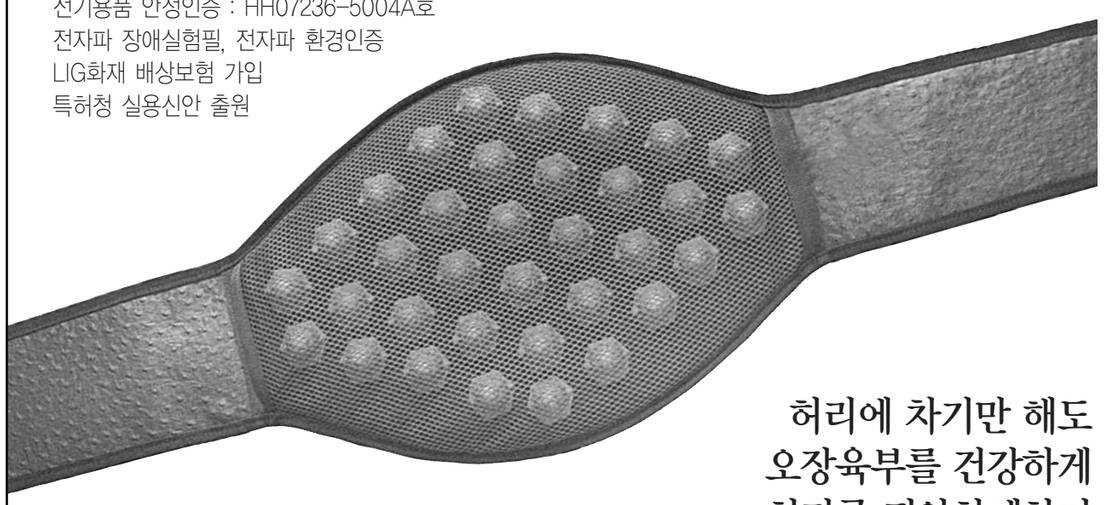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예불을 드리는 것은 부처님의 덕을 존경하는 것이요. 염불하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불경을 보는 것은 부처님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요. 좌선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를 밟아보는 것이요.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교의 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잘 한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는다.
평화로우며 미움이 없고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빙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성불의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교직경력 17년 스님 직강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지장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가천도
환자의 몸속에 숨어있는 빙의령 확인
빙의,우울증,신병,대인기피,암,원인불명,
질환,악성피부질환,아토피,인생상담
지장보살님의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스님,보살님,법사,일반인 치유 및 제자양성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10-9242-5259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반 명리연구반
역학을 하였으나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기문둔갑) 비법을 전수합니다.
무료청강하신 후에 수강신청(무료강의)
매주 토요일 7시부터(2시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67-12번지
(천지암) 창원시청부근
010-6511-5958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영남소리,사물,바라,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산사음악회, 위령제
010-8677-2861

법당화주 겸 종무보살 모십니다
불심 신심이 돈독한 일천불
권선하실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불심으로 귀의 할 출가
여자행자 모집합니다.
(부산 금정구)
010-6390-1899

백발백중 귀장술 수강생 모집
초보자환영,
교재제공
쉽게보는 원판제공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불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악성 피부질환 해결
전통자연치유비법으로
무좀,종기,습진,골수염,
피부염,축농증,아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 무료해결 합니다.
010-3028-6579

부전
스님
모십니다
(영천 개원사)
010-2515-0664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대구 앞산자락)
010-4532-950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1-774-4099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미륵존불 조성불사를 도와 주십시오
월하스님 글씨 병풍포함 3점. 서경보스님 글씨 병풍포함 4점. 일타스님 글씨 2점.
석주스님 글씨 1점. 수안스님 그림 3점. 석정스님 달마 병풍 1점. 경봉스님 글씨 1점.
청광선생 달마, 독수리 병풍 2점. 문화재 인도선생 달마 1점. 천경자 그림 1점.
중광스님 인불상 1점 위의 작품 21점을 미륵존불 조성불사에
큰 인연으로 도와주시고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그림과 글씨도 마음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경북 054)853-3855
시주보시금 : 국민은행 622-24-0064-982.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의를 알고 자비를
이해사시는 분과
수행하고
싶습니다
(토굴 준비하였습니다)
010-6607-5308

부처님 혈사리와
오색정골사리를 모시고
전국순회 친견법회를
무보시로 봉행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0-2506-2425
청하스님

스님을 모십니다
요양원에서 이생을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요양이 필요한 스님**을 모십니다.
파주 약수암스님이 운영하는
거북마을노인요양원에서
스님의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9067-4801

염불선 수행중인
비구입니다
만물을 깨우는
종을 구합니다
(쓰던것이나 크기는 상관 없음)
010-3221-0839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수행할 비구니스님과
초보자 남녀 행자스님
모심니다
(경주지역)
011-534-3345
010-4580-8394

빈 절이나 가난한 암자를
무보시로 운영
관리해 드립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려운 사찰을 구합니다
(법납 40년 비구승, 탄성스님)
010-7534-4848

사찰 전세구합니다
도시안에 있는
사찰전세 구합니다
시골이나 포교당은
하지 않습니다
011-850-0176

스님이 안계신
빈 절이나
작은 암자나,
토굴 구합니다
전세 매입
원합니다
010-5257-9339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앵소암
• 주 지 : 만종 (양오장)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남면 내직리 산 24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지장선원
• 주 지 : 청해 (심길섭)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819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재)한국불교중흥교원
한 국 불 교 조 계 종 총무원장 법하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
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이것저것 세속의 일에 너무 힘쓰지 말라. 사람들을 멀리하라.
자질구레한 인연을 억지로 만들지 말라. 좋은 맛을 탐닉하는 사람은
복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만다. 참된 수행자는 칭찬과 존경에 초연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초연하기 힘들다 달콤한 화살은 뽑아내기 힘든 것이다.
– 장로게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구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80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 사찰
- 이층법당50㎡요사채85㎡
- 토지500m2 이층건물임
- 주차장 텃밭가능함
- 마을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1억7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3천여평
- 보증금 5천만원 월 30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포교원안내

- 위치: 군포역 7분 거리
- 4층 건물에 2층
- 보증금 4백만원 월 30만원
- 삼존불, 신중탱화
- 침실 및 공양간 별도
- 시설비 700만원

010-8781-093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총부지 970평 (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건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양도가액 : 1억 8천만원

사찰(급)안내

- 아파트 8,000세대 신도시
- 총 1200평(대지 700평, 야임 500평)
- 대웅전, 삼선각(목조), 요사채 2층(방 6칸)
- 주차장 200평
- ※ 백화점, 법원 200M 거리내
- 총양도가 : 8억 5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 경남, 강원도 사찰, 토굴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통 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안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건강상 급 안내

010-2008-03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010-3111-9056

전원주택 및 기도처

- 함양군 서하면 노을정 주변
- 대지 230평
- 건물 하우징 목조주택 20평
- 주변이 화려하고 계곡물이 흐르는 곳
- 전원주택 및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천만원

010-8828-371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900만원(청동불상)

010-2251-337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 대지:1239평
- 법당,요사채,공양간
- 시설완벽,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 가액: 2억 3천만원

010-6501-011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위치,시설, 환경 특 A급 (넓은 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조절불가)

010-5667-0577

포교원안내

- 위치 :양산시 평산동
- 2층 건물 중 1층
- 평수 130평 • 법당 시설완벽, 방3
- 상시 온수 제공, 주차시설완벽
- 전세 3천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0-3574-3303
010-5667-5453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837번지
- 부지: 2800평
- 땅 앞과 옆으로 청정한 물이 흐르고 최고의 기도 암자터 컨테이너 1개
- 스님이 기도하다 지금은 비어 있음
- 양도가액: 4천만원

011-257-1601

사찰(급)안내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400평
- 법당건물:40평, 창고30평
- 불상등 비품 및 시설 완비
- 주차건물있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1억 4천만원

010-2542-5858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 부지 : 922평(대지 195평포함)
- 건물: 본채 45평, 부속채 18평 (나머지는 유기농 녹차밭)
- 특징: 정남향, 조망권 탁월, 청정환경
- 가액: 4억 8천(꼭 필요한분 방문환영)

016-565-402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진평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 80평
- 방, 주방, 거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시설비2천 5백만원
- 주차완비

010-6505-0385

포교원안내

- 위치 :용인시 에버랜드 근교
- 부지 1300평 법당 70평, 방8개
- 주차장완비. 일체시설완비
- 용인에서 포교를 원하시는분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보증금 +시설비 포함 8천 5백만원 월 150만원

010-8306-8255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서구 대평리 시장 인근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시설: 최상급 삼존불 중 아미타 3자동불, 양대보살
- 후불,신중,산신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108인연불
- 일부집기 완비 바로 집회 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742-5520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315평
- 가액: 5천만원
- 시설비 500만원 (삼존불 집기류 농기구 일체)
- 주위에 민가가 없고 아주 조용함
- 텃밭과 유실수 다량 있음

011-269-4168

사찰(급)안내

- 양산 원동 사찰최고
- 대지 1350평
- 법당 목조 건물 40평 외 건물4동
- 주차장 50대 전망 최고
- 은행안고 3억 7천 인수

010-3808-4499

절 터 안 내

- 위치 : 싼땅 양도. 감악산 줄기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 3분거리, 작은 야산
- 황둔리 대지, 산 합 945평
- 조용한 위치, 버스길 인접
- 양도가 : 9,000만원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I.c 2분거리 밀양시내10분거리 (약사도량임)
- 종교부지300평 임야300평
- 법당 23평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및 칠성탱화
- 지장보살 원불 후불탱화 산신각5평 미륵.용왕
- 요사채 및 공양간33평1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2천7백만원 대출6천5백만원 포함
- 급양도 가격절충가능(꼭필요하신분만 열락주세요)

010-7183-0114

사 찰 터 안 내

- 위치: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982
- 평수 320평(부지 만들어져있음)
- 포장도로 있고 산세 소나무 울창함
- 옆에 계곡 있음. 사찰 펜션
- 가액: 7천만원
- 전원주택 최적지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 2동
- 용호시장 입구 신협 옆
- 4층건물 중 2층 (자비원)
- 법당, (관음) 방2, 공양간
-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1-597-88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 아랫반송 대로변
- 4층건물의 3층 30평
- 시설완벽
- 시설비: 1천 9백만원 (절충)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4414-03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암 2동 강남약국 건너편
- 3층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2878-338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영도 남항시장 옆 대로변
- 총 38평 법당 사무실 주방 및 거실 욕실
-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소불 108불 에어컨 2대, 인테리어 새로 단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500만원(법사, 보살님도 가능)

010-4880-1533

선원(전원주택)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 부지 : 922평(대지 195평포함)
- 건물: 본채 45평, 부속채 18평 (나머지는 유기농 녹차밭)
- 특징: 정남향, 조망권 탁월, 청정환경
- 가액: 4억 8천(꼭 필요한분 방문환영)

016-565-402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149평,
- 법당: 20평, 기와단청
- 요사: 17평, 요사: 10평
- 가액: 5억 7천만원
- 도심속 포교하기 좋은곳

011-811-54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 대지 120여평 • 임법당 20평
- 요사 15평 • 창고 7평
- 차량 마당 진입 가능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시 구산동산
- 현재 사찰하고 있음
- 평수 650평, 땅값만 받고 양도함
- 평당 40만원 협의 불가 (법당 조립식,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스님 건강문제로 급히 양도함

010-3800-6804

사 찰 안 내

- 서울 근교 수도권 위치
- 총부지 200평위에
- 산세 수려하고 웅장한
- 아름다운 포교 30년된 사찰
- 가액: 9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종단사찰, 복지원, 요양원, 장례 결혼식장 가능
- 교통조건 매우 좋음
- 20억의 50 프로 확보된 분
- 년 후불도 가능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5분거리
- 물 많은 문화재 고찰
- 대지 종교용지 전.답 임야 총 약 2만 5천평
- 건평 총 약 120평
- 가액: 직접 절충 가능

010-8787-20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부평시장
- 약 100평, 방4개, 식당 큼
- 삼존불 각탱화, 연등 400개 에어컨 대형 2대
- 화장실 두개, 시설비 3천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총 4천만원 월 80만원
- 유동인구 많음 시쳘 최상급
-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주차가능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만원, 시설완벽, 답사후 절충가능

010-4747-8796

멋진암자

- 위치 :경북 청도 대구 30분거리
- 대지 344평, 건평 56평 한옥
- 법당 일체 완비, 정원수, 잔디 양호
- 주차 15대 가능
- 가액: 2억 5천만원
- 기타 부동산 교환가능

010-5685-456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시장 입구)
- 6층 건물 6층 85평(옥상 사용)
- 큰법당, 공양실 친견실 방 3개
- 시설 A급, 주차장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월 100만원 시설비(답사 후 절충)

010-6575-1719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5분거리
- 물 많은 문화재 고찰
- 대지 종교용지 전.답 임야 총 약 2만 5천평
- 건평 총 약 120평
- 가액: 직접 절충 가능

010-8787-2013

포교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중심권
- 3층 건물 중 3층 평수 약 100평
- 법당 60평, 큰방 3개, 작은방2개, 거실, 주방, 욕실3개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창고2, 차고
- 최시설, 집기 전세 5000만원, 옥상방수
- 최고시설집기 인연있는분께 싸게드림

010-5883-2255상담비람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티베트 승려)

〈2〉 마음이 마음을 깨달을 때

편견과 집착을 들여다 보는 30초 연습을 하라

변화의 호흡

어떤 사람은 변화가 가져다주는 고통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무상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는 그 이해가 그다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다소 불가사의하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남을 뿐이다. 다행히도 붓다와 그의 뒤를 이은 훌륭한 스승들은 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미세한 변화의 차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연습을 제시한다. 언제 어디서나 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숨을 쉴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일이다.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아 몸의 긴장을 푸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일 눕는 것이 더 편안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눈은 계속 뜨고 있어도 되고 감고 있어도 된다. 하지만 당신이 운전 중이거나 거리를 걷는 중이라면 눈을 감으라고 권하진 않겠다. 다만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라. 그렇게 하면서 숨 쉬는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특히 폐의 팽창과 수축 그리고 아랫배 부위의 근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편안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호흡을 주시해야 한다. 호흡을 주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너무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된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 역시 무상함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일 뿐이다. 만일 어제 일어난 일을 생각하거나 내일에 대한 공상에 잠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금 호흡할 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로 부드럽게 주의를 돌리면 된다. 약 1분 동안 이 연습을 계속한다.

1분이 지나면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무엇을 알아차렸는지 검토해 본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폐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 말고도 다른 것을 느꼈을지 모른다. 콧구멍 안과 밖으로 흐르는 공기의 이동을 더 의식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수십 가지 다른 생각, 감정, 기분들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산만해져서 정신이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신은 미묘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변화를 저항감 없이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일터에서 혹은 식료품가게나 은행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심지어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이 자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단지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가는 이 단순한 일은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에 '채널을 맞추고' 내면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변화들에 생생하게 깨어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더 마음을 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현상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나비 죽이기

서양과학이 발달하기 수 세기 전에 이미 붓다는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하자면 보는 사람의 '눈' 에 달려 있다는 이해에 도달했다. 붓다가 사용한 용어들은 오늘날의 생물학자와 뇌신경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용어들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가 제시한 통찰은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

초기 빨리어로 쓰인 '두 번째 고귀한 진리' 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두카 즉 고통은 '탄하' 곧 '갈망' 이라고 부르는 마음의 근본 조건으로부터 일어난다. 이 초기 빨리어본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근본 원인을 '트리쉬나' 곧 '갈증' 이라고 정의했다. 붓다의 가르침이 티베트로 전해지면서 그것은 다시 '진파' 곧 '붙잡음' 으로 번역됐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용어들은 무상의 반대가 되는 영원과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갈구를 의미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들은 무상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이런 갈망의 가장 근본적인 성향은 '나' 와 '다른 사람' , '주체' 와 '객체' , '좋은 것' 과 '나쁜 것' 등의 모든 상대적 구분들이 본래부터 독립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것을 종종 '무지' 라고 표현한다.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무지는 매운 소스 병에 붙은 상표를 매운 소스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사람, 장소, 사물이 본래부터 독립적으로 견고하게 실재하는 것이라 여기는 관념으로부터 두 가지 강한 충동이 똑같이 일어난다. 욕망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충동은 우리가 '좋은 것' 이라고 정의 내린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고 계속 지니고 있으려는 갈망이다. 혐오라고 알려진 두 번째 충동은 우리가 '나쁜 것' 이라고 정의 내린 것들을 피하고 제거하기 위해 반대쪽으로 달아나려는 욕구다.

무지, 욕망, 혐오를 합쳐서 불교 경전에서는 삼독 즉 '세 가지 독' 이라 부른다. 이것들은 너무도 깊게 뿌리박혀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할 때 구름으로 마음을 가려 독이 되는 습관들이다.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합동해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태도와 감정들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자만심, 완벽주의, 열등감, 자기혐오, 내가 승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료가 승진할 때 느끼는 질투심, 병들고 나이 든 부모를 볼 때 우리를 압도하는 극도의 슬픔과 절망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몇몇 가르침들은 이러한 태도와 감정들을 '번뇌' 혹은 '무명' 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한계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우리의 잠재 능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나' 와 '내가 아닌 것' 이라는 근본적인 구분을 지니게 되면 우리는 '나의 것' 과 '나의 것이 아닌 것' , '내가 소유한 것' 과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 , '내가 원하는 것' 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라는 식으로 모든 경험을 제한하기 마련이다.

당신이 망가진 고물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사고로 차체에 손상을 입은 벤츠나 롤스로이스 같은 멋진 자동차가 옆을 지나간다고 해 보자. 당신은 자동차 주인에게 약간의 안쓰러움을 느끼겠지만 그 차에 대해서는 분명 아무 애착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몇 달이



호흡하며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주의
무상이 존재하는 근본 사실 알게 해
삼독심에 대한 집착 벗어나야 고통 해방

지나 당신은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가 돼 중고차시장에 들른다.

그곳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벤츠와 롤스로이스가 있다. 바로 몇 달 전 당신이 보았던 사고로 손상된 그 자동차이다! 설령 당신이 그 사실을 안다 해도 상관없다. 이제 그 차는 당신 것이다. 하지만 차를 집으로 몰고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때문에 앞 유리창에 금이 가 버렸다. 이런 비극이 있나! '나의 차' 가 파손 된 것이다. '나' 는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것은 몇 달 전 스쳐 지나가면서 본 사고로 파손된 바로 그 차이며, 옆을 지나갈 때는 그것에 대해 별 느낌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의 자동차이며, 만일 앞 유리창에 금이 갔다면 당신은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아마 약간의 두려움까지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중단하면 안 될까? 독과 그 독의 결과물들을 그냥 놓아 버리면 안 될까?

만일 그것이 쉽다면 이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우리 모두는 붓다가 돼 있을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과 여러 스승들의 주석에 따르면 세 가지 독과 그것들로부터 생겨난 모든 심리적 감정적 습관들은 사실 고통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은 그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티베트어 '진파' 의 본래 의미에 가장 가깝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단어는 종종 '붙잡음' 으로 풀이되지만 '고착' 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나는 들었다. 고착이란 병적인 집착을 말한다. 진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시간과 장소 안에 고착돼 있으려는 시도인 것이다.

최근에 나에게서 명상을 배운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다. "그것은 나비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묻자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나비를 잡아서 죽인 다음 나비의 몸체를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장식용 케이스 안에서 핀으로 고정시켜 놓는 취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바라보는 짜릿한 쾌감, 그리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답고 연약한 생명체를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나비들의 운명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 만일 날 수 없다면 더 이상 나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녀의 말이 옳다. 우리가 우리의 견해에 고착화 될 때 우리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

우리의 경험 안에서 미세한 변화들을 관찰하려면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다음에 욕실 거울 앞을 지날 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각도로 서 보라. 그 대신 거울에 비친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 예를 들어 벽의 타일과 정돈된 수건들을. 그다음에 자신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방금 거울에서 본 것들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인 반응에 잠시 주목한다. '배경' 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자신의 얼굴' 에 대한 반응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조금 있다가 같은 거울 앞에서 이 연습을 다시 해 보거나 아니면 다음 날 해보라. 주위 배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당신 자신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약간의 변화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크다. 타일이 닦여 있거나 혹은 약간 얼룩이 묻어 있을 것이다. 수건이나 다른 물건들이 살짝 재배치돼 있을 수도 있다. 이어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 역시 작은 차이를 알아차릴 것이다.

이 연습을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다. 30초 정도면 충분하다. 단, 그런 변화들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인 반응에 주목하라. '오늘은 이곳이 더 깔끔해 보이네.' '내가 피곤해 보이는군.' '내가 늙어 보여.' '뚱뚱해 보이네.'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들은 당신이 가진 편견과 집착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분석하려고 들 필요는 없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연습의 핵심은 눈과 귀로 지각하는 가장 단순한 행위에조차도 즉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생각과 감정의 베일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순수 지각작용과 그것에 바짝 뒤따르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구분하는 일이 차츰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 요소들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거부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험을 고정된 틀에 집어넣는 마음의 역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붓다의 진단 중 두 번째 단계인 '두 번째 고귀한 진리' 는 우리를 세 번째 진리인 '병의 예후' 단계로 나아가도록 준비시켜 준다.

망상과 환상 속에서 살아가기

짙은 초록색 선글라스를 썼다고 상상해 보자.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다 초록색 음영을 띨 것이다. 초록색 사람, 초록색 자동차, 초록색 건물, 초록색 쌀, 초록색 피자…. 심지어 손과 발도 초록색으로 보인다. 선글라스를 벗으면 경험 전체가 바뀔 것이다.

"오, 사람들이 초록색이 아니군! 내 손이 초록색이 아니야! 내 얼굴이 초록색이 아니었어!

하지만 만일 선글라스를 절대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선글라스 없이는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쓰는 것에 매우 집착하게 돼 벗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잠자리에서조차 쓴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당신은 초록색 음영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며 인생을 보낼 것이다. 다른 많은 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는 놓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초록색 음영에서 사물을 보는 데 익숙해져 버리면 잠시 멈추고 초록색이 당신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진다. 당신은 진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초록색이라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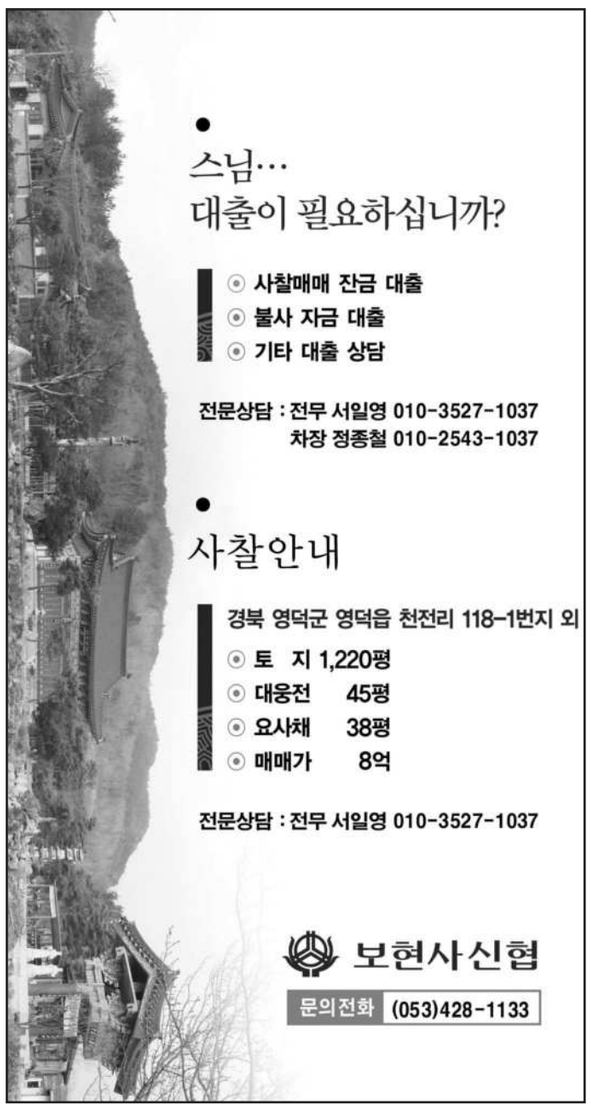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특정한 심리적 습관과 감정적 습관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조건화시킨다. 이른바 '선글라스식 시각' 에 구속돼 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이 그것의 실제 모습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생물학적 경험, 문화적 경험, 개인적 경험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 상대적인 분류가 직접적인 경험만큼 절대적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 근본적인 모순은 거의 예외 없이 늘 마음을 따라다니는 불편한 기분을 만들어 낸다. 이 불편함은 의식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일종의 '막연한' 두카 같은 것으로, 불완전과 고립감과 불안정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의식을 건드린다.

이 근본적인 불편함과 싸우려는 노력으로 우리는 상대적이고 조건 지워진 세상의 주민들인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사물, 상황들에 한층 견고하고 안정된 겉모습을 부여하려고 든다. 하지만 이 전략은 우리의 시야를 한층 더 가린다. 상대적인 구분을 절대적인 진리로 착각하는 일에 덧붙여 우리는 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환영의 층들을 구축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문학의 숲' 에서 펴낸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 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건장사(建將寺)
◇척추,골반,관련 통풍 효과 입증 ◇웰강 상황 쑥뜸방 운영
◇효과가 입증된 훈증침대 (특허출원번호:제10-2011-011722호)
스님은 무보시로 모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2-2000번지 건장사 주지 청진 합장
053)763-7510 / 011-572-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선과 악의 과보는 메아리 같은 것”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5)

두 장사꾼

사위국에 두 장사꾼이 있었다. 한 사람이 생각했다.

‘부처님의 몸은 한 길 여섯 자로서 빛이 나고, 정수리에는 육계(肉)가 있고, 목덜미에는 일광(日光)을 지고 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시다. 부처님은 마치 제왕 같고, 사문은 마치 충신 같다. 부처님께서 밝은 법을 설하시면 사문은 그 법을 외워 널리 펴니, 부처님께서는 가히 밝으시고 높은 어른이시다.’

부처님께서 그의 뜻을 아시고 그를 자세히 보시니,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이 즐거운 것이 마치 보배를 얻은 것과 같았다.

또 한 장사꾼이 생각했다.

‘부처님이란 마치 소와 같고, 제자는 마치 수레와 같다. 그 소가 수레를 동서남북으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러하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나쁜 생각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앙을 얻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이 나쁜 것을 가엾이 여기셨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30리쯤 이르러 정자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술을 사서 마시다가 일 때문에 서로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다. 착한 생각을 지닌 이에게는 사천왕이 선신을 보내어 보호했고, 나쁜 생각을 지닌 이에게는 태산의 귀신을 술과 함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니 마치 불로 몸을 태우는 것 같았으므로 정자에서 나와 밖에서 누워 뒹굴다가 수레바퀴 자국 안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새벽에 어떤 장사꾼들이 수레를 5백이나 끌고 지나가면서 그를 치어 죽게 했다. 벗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낭패구나. 나라로 돌아간들 의심을 사서 물건을 몰수당할 것이고, 이름은 의롭지 않게 되겠다.”

마침내 그는 모든 재물을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떠났다. 사위국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 국왕이 죽고 태자가 없었는데, 참서(讖書)에 이르기를 “장차 미천한 장사꾼이 국토의 왕이 되리라.”고 했다.

어느 날, 신하들이 모여 의논했다.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은 몸에 머리가 없는 것과 같다.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될 일이다. 본디 왕에게 말(馬)이 있었는데 항상 왕에게는 절을 했으므로, 만약 왕이 될 만한 이가 있다면 말이 반드시 절을 할 것이오.”

곧 신하들이 말을 데리고 거리로 나오자 사람들이 길을 메웠다. 이때 장사꾼도 나가서 구경을 했는데, 신령스런 말이 곧장 그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핥았다. 여러 신하들은 기뻐하면서 그를 국왕으로 임명했다. 이리하여 마침내 장사꾼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정사를 보살피게 되었는데, 스스로 깊이 생각했다.

‘나에게는 조그마한 선(善)조차 없는데 어떤 인연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까? 이는 반드시 부처님의 은혜일 것이다.’

그리하여 아침에 어좌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신하들과 함께 사위국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미천한 사람이 세존의 은덕을 입어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국토는 아직 부처님을 모르니, 이 나라 사람들이 듣지 못함과 보지 못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내일 응진 성인들과 함께 왕림하시어 석 달 동안만이라고 계셔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들에게 명하라. 내일 그 왕의 청대로



삽화 · 강병호

모두가 변화하여 거룩하고 높은 덕을 나타내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함께 볼 수 있게 하여라.”

다음 날, 부처님과 응진들이 정전에 앉으시자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

“저는 본래 미천한 사람이라 업이 훌륭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인연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왕이 장사꾼이었을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 그대의 생각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국왕과 같고 사문은 신하와 같구나.’ 했었습니다. 왕께서는 모종을 심어 열매를 거두는 사람처럼 그때 가졌던 바른 마음의 공덕이 왕이 될 모종이 된 것이고, 이제 공덕의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다른 장사꾼은 ‘부처님은 소와 같고 제자들은 수레와 같다.’ 고 했던 생각이 수레에 치어 죽을 모종이 되어 태산에서 불의 수레에 깔려 죽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각자의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선행을 하면 복이 따르고, 악행을 하면 화가 좇는다. 메아리에 소리가 응하듯 선과 악은 음성과 같으니, 하늘, 용, 귀신이 준 것도 아니고 선조가 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은 것은 마음이요, 이루는 것은 몸과 입입니다.”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은 법의 근본이어서 / 마음은 어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다. /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면 / 곧 말로 하게 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 /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나니 / 수레가 바퀴 자국을 따르는 것 같다. // 마음은 법의 근본이어서 / 마음은 어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다. /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면 / 곧 말로 하게 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 / 복과 즐거움이 저절로 따르나니 /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다시 왕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악의 죄에서 가장 무거운 다섯 가지가 있다. 불효불충으로 어버이를 죽이고, 임금을 죽여 집이 멸망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짐이 중한 죄에서 첫째이다. 아라한의 행으로 공(空)과 소원 없음(不願)과 생각 없음(無想)의 선정을 얻어서 부처님과 뜻이 같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어리석게도 그를 해치는 것이 무거운 죄 중에서 둘째이다. 부처님께서는 온갖 허물이 이미 없어졌고 큰 복이 모여 이루어졌으며, 상호와 10력과 법으로 중생을 인도하며, 자(慈), 비(悲), 희(喜), 호(護)의 마음은 인자한 어머니보다 더한데, 어리석게도 부처님을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중한 죄에서 셋째이다. 맑고 깨끗한 사문은 뜻이 고요하고 행이 높으며 경법을 품어 안고서 부처님을 도와 어리석은 이를 교화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서로가 잇고 중생이 제도되는 것은 모두가 대승 승가로 말미암은 것인데, 비구를 괴롭히는 것이 중한 죄에서 넷째이다. 부처님의 높으신 탑묘의 보물과 수토는 중생들의 정성된 마음으로 3존께 바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헐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중한 죄에서 다섯째이다. 이 다섯 가지를 범하면 죄의 사함을 청할 것도 없으니 부디 범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자, 왕과 여러 신하들은 모두가 수다원을 얻었으며, 백성들 중엔 사문이 된 이도 있었고, 마침내 5계와 10선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니, 여러 하늘들이 도와서 나라는 흥성하게 되었다. (〈백애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㊺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일타 스님 법문

오늘 지인의 49제에 갔었다. 지극한 장엄염불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함께 축원했다. 공양을 마친 후 영가의 가족은 책과 타올을 봉투에 담아 손님들에게 선물했다.

책은 일타 스님이 지은 광명진언이었다. 스님은 생전에 우리 연꽃모임회원들의 지도 법사였다. 항상 웃는 얼굴과 인자하신 목소리로 법문해 주셨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스님이 가신지도 어언 13년이란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생전의 법문만은 가슴에 남아있다. 오늘, 스님의 책을 보니 다시금 스님을 만나 뵙는 듯 반가웠다. 첫 페이지부터 스님의 음성을 듣는 듯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일은 없었다.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들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나 사라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훌륭한 내생을 만들자
가진 것 없이도 가슴 깊이 감사함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묘법

그래서 옛 성현들은 죽음을 옷 갈아입는 일처럼 받아들였다. 옷을 오래오래 입어 낡았으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생전에 들었던 법문이지만 책으로 다시 보니 스님을 뵙는 듯 새롭게 다가왔다. 스님이 그리웠다. 지금 나는 새삼스럽게도 스님의 글속에서 생전의 그 환한 미소를 다시 만나보고 있는 느낌이다. 가셨어도 가신 것이 아니리라.

책은 영가천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있는데, 스님은 책에서 본인이 살아생전 불경을 공부하고 참선, 염불 등의 수행을 하게 되면 미혹에 휩싸이지 않아 스스로 태어나야 할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타력의 천도재는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인연처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니 망자가 미혹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염불과 법문으로 마음을 밝혀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하셨다.

누구나 절에서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법한 법문이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깨워 주시는 말씀이다. 바로 깨달음이란 구하는 것이 아닌, 기억하는 것임을 상기하여 이미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 스님께 감사하며 합장 했다. 저녁 찬이 걱정 될 때 고민 말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집으로 가서 한 끼를 먹어보면 내가 즐겨먹던 음식을 그 집 밥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 가슴마다 숨어있는 신심의 법문도 내가 아닌 누구로부터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심견고(信心堅固)의 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생전에 스스로 예수재를 실천하여 타력이 아닌 자력으로 훌륭한 내생을 만들 수 있기를 서원하며 정진해야 하겠다.

진정한 사랑

우연히 보게 된 TV의 한 장면이 마음에 꽂힌다. 아주 깊고 높은 산속에 전기도 없는 외딴집에서 부부가 살고 있다. 그 부부는 그 동안 해오던 사업의 실패로 그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백년도 더 된 집인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된 지도 벌써 20년이나 된다고 했다.

그리고 부부는 이곳에서 네 자녀를 낳아 키웠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인의 모습은 평범한 주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도시의 어느 부인이나 다를 바 없는 품위 있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런 여건에서는 더 잘 할레야 더 잘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짠하여 계속 보게 되었다.

얼마나 정성이 지극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엄마라고 꼭 한번 불러 주고 싶다.”고 하셨단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애틋함과 감동으로 가슴 가득 차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 말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이 말을 했다면 이만큼 감동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해 주신 마지막 말이라니 참으로 고맙고 귀이한 선물이 아닌가 싶다.

그 깊은 숲속의 삶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로선 이해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힘들었을 상황인데도 천사와 같은 밝은 얼굴로 불만 없이 살며,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한 모습으로 잘 적응하고 가슴으로 안아주며 사랑으로 채워 살고 있음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하고 산다. 그런데 가시고 안 계신 시어머니를 이처럼 그리워하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세상을 향한 큰 법문이 아닐 수 없다.

가진 것 없이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가슴깊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고, 그 고귀한 사랑은 묘법(妙法)의 세계일 것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대행 스님

내일 생각 말고 그저 태연하게 웃고 사세요

일부러 잡아다가 방생한다는 것이…

문) 예전에 아는 사람이 방생하러 간다고 하기에 따라간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엔 고기를 일부러 잡아다가 방생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이런 방생도 부처님 뜻에 맞는 것인지요.

답) 그건 놀부의 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에만 넣으면 사는 줄 알지 마십시오. 물도 몫몫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물이면 물, 그냥 다 똑같은 줄 아시지만, 우리가 또 어떤 동네라도 영등포가 있고 종로가 있듯이, 또 그 어구에 들어가면 지게꾼도 "야,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여기 구역은 내 구역이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그렇듯이 고기도 다 자기 자리를 알고 고향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방생을 한다고 고기를 다 집어넣으면, 개흙에서 사는 게 있고, 또는 모래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있고, 또 자기 고향 찾아서 가는 게 있고, 거북이도 그렇고 붕어도 그렇고 자기 고향을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 붙잡는 데 죽고 갖다가 놓는 데 죽고 또 담아 가지고 가는 데 죽고 갖다 넣는데 죽는단 말입니다. 또 갖다 넣으면 저 놀던 데로, 저희 집으로, 십 리가 되든 오백 리가 되든 그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찾아가느라고 허기가 져서 죽기도 하고, 또 그 물에 넣어서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거기다 이름을 쓰고 온통 야단을 해서 거북이도 넣고 그러지마는 그거는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일입니다. 달리 살생이 아니라 그게 살생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 원리를 안다면 너무 고생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서 탄광으로 붙잡아 갔거든요. 탄광으로 가 가지고서는 8·15해방 때 딱 놔놓으니까는 제 집 찾아가느라고 전부 그러다가 삼분의 이가 죽었습니다. 그 짝이에요, 딱 아주. 그러니 여러분이 방생이라고 해도 그건 방생이 아닙니다.

방생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하면, 그전에는 많은 미꾸라지와 남생이, 뭐 자라, 새우, 또는 붕어 이런 것들이, 지렁이 뭐 할 것 없이 그냥 산중에도 비가 오면 쭉 널렸었어요. 그러면 스님네들이 어떡한 줄 아십니까? 깡통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거기다가 죄 흙바닥에서 펄펄 뛰는 거를 담아서 이렇게, 어떤 땐 손으로도 집고 그러는데 손으로 집으면 그 비늘이 없어지면 죽을까 봐 이거를 그냥 어떠한 그 체로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 가지고서는 쏟고 쏟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에다 갖다 넣어 준 게 그게 아마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부처럼 잡아다가, 남 잘 사는 걸 잡아다가 그렇게 물에다 도로 놔 주는 게 방생이 아니라, 고기가 물을 잃고 바닥에 나와서 펄펄 뛸 때 그때 집어넣어 주는 게 방생이에요. 그리고 방생이 무슨 고기 방생만 해서 방생이 아니고요, 방생이라는 것은 어머니 없고 아버지 없는 고아가 정말 학교에도 못 가고 또 먹을 것도 못 먹고 고독하게 이리저리 저거 한다 할 때, 그때 참 보살펴 주는 게 방생이요 둘째, 또 사람이라는 것이 그 먹지 못해 부황이 나고 이럴 때 보태 주는 게 방생이요. 있는 것을 가서 내가 그냥 이름나게 하느라고 방송국에 갖다 내고 그러는 건 방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내 주머니에 오백 원이 있으면 가다가 차비가 없어서, 백 원이 없어서 앨 쓰는 사람이 있다면 백 원을 주시되, 주시는 사이 없이 주시면 그 백 원은 이자가 늘어서 삼백 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그 묘법을 모르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 법계를 돌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몰라서, 요 물질 하나만 가지고선 요러니 이게 나가서 이자를 붙여 올 수가 있어야죠. 장속에는 금이 있어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면 그 금이 늘어나갑니까. 그러니 점점 좁아지고 그저 곶감 꼬치 빼먹듯 빼먹기만 하니 점점 줄어갈 수밖에요. 그러니 마음이 가난하면 집안도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또 죽을 사람 있으면 살려 주고, 또 줄 사람 있으면 주고, 또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을 살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또 나를 살려 주게 됩니다.

또한 방생이라는 건 물질만 방생이 아니라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주는 방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남이 괴로워 할 때 마음의 안위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서 한마디 해 준다면 그것도 방생이요, 모든 게 마음 한생각을 잘 내 주는 것도 이게 방생입니다. 마음 하나하나 내 주는 게 전부 방생입니다. 이 도리를 공부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서 이끌어 주는 것도 역시 방생입니다. 우리가 방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우연히도 없고 공짜도 없습니다.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생한답시고 억지로 잡아다가 놔 주는 놀부 방생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인의롭게 써서 전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버리는 마음, 일체 방생하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가재가 살겠다고 길을 막고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선 오똑하게 서 있습디다. 길을 가니까 밟을까 봐. 그것도 살 양으로 하는 거죠. 내가 그걸 보고선 껄껄 웃었습니다. "야, 가재야. 너는 왜 가재라고 이름을 했지?" 하면서 "너도 살겠다고 그러는데 연쇄적으로 전부, 생명이 있는 거는 전부 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구나. 내가 너를 왜 밟니? 미리 그렇게 좌절하고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 풀이 파리로다가 이렇게 끌어서 물에다 넣어 주곤 지나갔습니다마는, 그게 방생입니다. 방생이 어떤 것이 방생인지 그것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물이 강이나 어떤 연못이나 이런 데서 수증기로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스미는 것도 있고 강으로 흘러서 그 바다로 들어가는 물도 있고 연못에 그냥 고이는 물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절간에 그냥 많은 미꾸라지나 거북이나 새우 뭐, 이런 거 고기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엔 물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질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마당에, 도량에 그냥 펄펄 펄펄 펄 뛰었습니다. 그럼 스님네들이 "야, 방생하자." 하고선 통을 들곤 주어 담아서 물에다가 갖다 넣어 주곤 했습니다. 그게 방생이지, 도대체 여러분은 왜 물에 가만히 노는 걸 잡아다가…. 자꾸 갖다가 사 가지고 넣으니깐 자꾸 잡아오죠. 그 어린 것들을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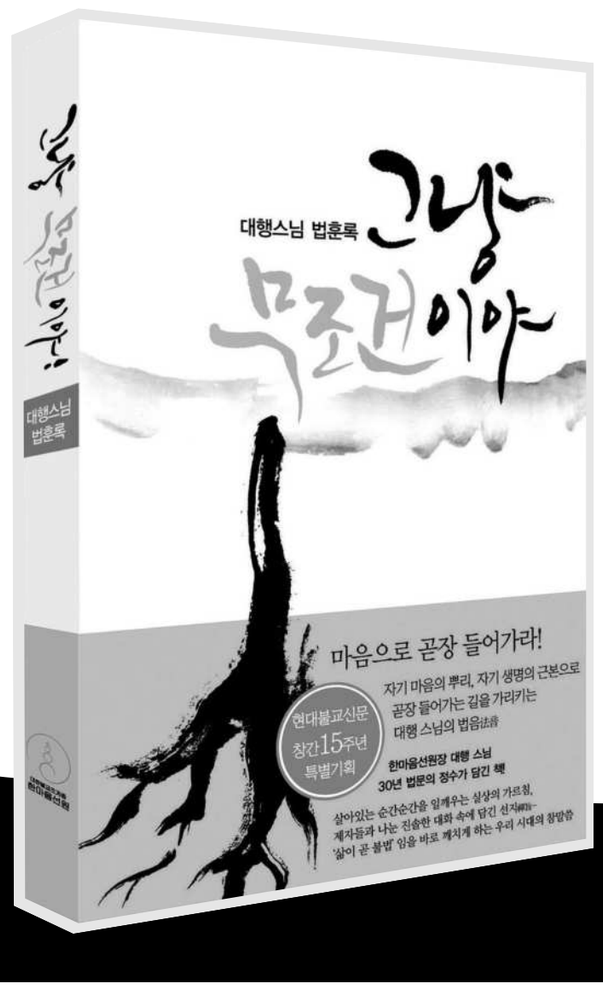
방생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방생을 하는 게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어떠한 문제라도 한생각에 완화가 되고 뒤집어집니다

☞ 29면에서 계속

아니라, 억지로 방생을 하려고 놀부처럼 잡아다가 또 넣는 게 방생이 아니라 스스로서 남이 괴로워할 때 마음을 내서 한마디 해 줘서 바로 마음의 안위를 가질 수 있어도 그것도 방생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없어서 참 애들이 등록금을 못 낸다거나 이래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어서 그 학비를 내게 해 주면 그것도 방생입니다. 물이 없어서 물 바깥에 나와서 펄펄 뛸 때에 물에 넣어 주는 것이 방생입니다. 마음 하나하나 내 주는 것도 전부 방생입니다. 우리가 방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과 통신이 안돼서 답답해요

문) 공부를 하느라고 하는데도 부처님과 통신이 안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겨울에 눈 온 거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딱 묻혀서 함박꽃이 희게 피고 모두 덮여서 전후사를 다 덮었으니까 뿌듯한 게 안 보이죠? 억울한 것도 보이지 않고 악초도 보이지 않고 선초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서 눈 온 산을 볼 때 하얗게 덮었으니깐, 악초니 독초니 이런 나쁜 초식이 없고, 죄 덮였으니깐 인젠 공부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인연줄이란 그게 아니라 알면 아는 대로 붙들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내면처에 공마당을 만들어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공이 있어야 공을 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 방귀씨를 얻었느냐고요. 귀신 방귀씨를 얻지 못하면 공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개인이 못났든 잘났든 다 가졌습니다. 이거는 누가 억울하고 누가 덜 주고 더 주고도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따져 보면은 우리가 한 치도 움죽거릴 수가 없죠, 그게 없으면. 그래서 에너지 주장자라고도 하고 자불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을 왜 자꾸 하느냐. 거기에 미묘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깐 정신계에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마음이 둘 아니게 들지를 않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다 죽어야 당신들을 본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보려면 세 번 죽어야 당신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깐 눈이 싹 덮이면 아주 깨끗하죠, 뭐. 조금 이렇게 납득이 돼서 좀 마당을 골라서 이 공 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야 그게 도리천하고도 둘이 아니요, 삼세하고도 둘이 아니요, 우주 천지 삼세가 다 둘 아니게 공굴려지는데 그게 공굴려지지를 않거든요. 하다못해 밭에 초식을 심어도 굵은 돌은 골라내고 모두 호미로다가 김을 매서 이렇게 초식을 심어야 제대로 초식을 먹는데 하물며 일생을 공부해서 세세생생을 얻어라 이렇게 한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듣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죽는다 산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나를 버리면은 두려움도 무서움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를 버리지 못해서 모든 결과가 벌어지고 말죠. 지금 우리 스님네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공부하는 율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지만, 공체로써 따로따로 있지만 공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움죽거리고 있는 사실은 그건 말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는다 산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나를 버리면
두려움도 무서움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애가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보니깐 과거로 돌아가서 서류를 다 없애야 걔를 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 저승엘 가야죠. 저승엘 가서 그 서류를 세 군데서 다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어야 나를 건지지 내가 할 수 없다면 나를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집니까. 그래서 남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공생이다. 우리가, 우주 천지 삼세가 다 어우러져서 다 공생이다 이러는 겁니다. 작게는 내 몸 하나가 공생이지만 크게는 우주 천지 삼세가 다 어우러지는 그 한마당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모두가 이 자리부터 만들어야 이게 자꾸 거기다, 즉 말하자면 한군데다가 일거수일투족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갈 때에 비로소 오색이 영롱한, 이 세상의 천지를 뒤집는 색색 가지가 화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바로 자불한테로 가면은 위 부처님으로 하나가 되고 자로 내려오면은 바로 법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는 도리를 또 생생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서 이거는 대신 누가 공부해 주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자기만이 자기가 앉았는지 섰는지 누웠는지 일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하다못해 밥을 한 숟가락 떠먹든지 변소엘 가든지 뭐를 하든지 생명의 근본을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지금 물질적인 모습은 정신적인 모습 없는 자기를 지금 찾는 겁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둘 아니게 만드는 요리죠. 그 요리들을 못하면은 부처님 도량처에 통신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진실로서 한발 한발 딛는 도리를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해요

문) 몸이 계속 아파서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큰스님께서 '죽든지 살든지 맡겨 놔라.' 하시는 법문을 듣고부터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하면 탁 맡겨 놓을 수 있을는지요.

답) 우리가 이 사람 모습이 사는 게 아니라 모습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가 모습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 모습을 살리는 자기, 즉 선장이 있는데 이건 부처님께서 배로 비유를 했죠. 배가 떠가는데 모두들 그냥 아우성을 치고 야단들인데 어느 스님이 가만히 앉아서 아우성도 치지 않고 그냥 내리니까 배가 잔잔해지고 전부 괜찮아지더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진정코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이 세상 누굴 믿어요? 법당의 저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 계셔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저분이 정말 넉넉해.' 이런다면 정말 넉넉하게 활용을 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도 어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항상 거죽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생각에 의해서 꼭 거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안 그렇다 해도 이 사람이 속으로부터 거죽으로 나오지 거죽으로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죠.

그러니깐 항상 그저 태연하게 웃고 살고, 어저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살 생각을 말입니다. 살 생각을 한다면 노냥 그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습관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이 습관이 되면은요, 걱정하지 않을 것도, 하루 걱정 안 할 것도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한생각에 불과해요, 모두가. 모두 문제가 있는 것도 한생각에 다 완화가 되고 한생각에 그냥 뒤집어지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문) 요즘은 자연 자원이 많이 고갈되면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마음공부를 통해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

답) 우리가 생활이 그냥 도(道)예요. 생활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도도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도도 있고 도가 바로 생활이에요. 근데 생활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잘 나오고 잘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에너지 통이에요.

바로 말한다면 에너지 통인데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주장자가 되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주장자.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에너지라는 게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도 있어요. 전체 가까운 데 먼 데서 이게 빨아들이면 그냥 이렇게 빨려오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에너지에요.

그래서 정신계를 무시하지 마라. 정신계를 무시하면은 에너지와 전체의 그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도 다들 통신이 되질 않는다. 선신도 통신이 되질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그냥 살아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좁쌀만 해질 수도 있고 좁쌀만 한 것이 커질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여기 이 공기에 담겨서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모자라서 못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시대가 변천하면서 이 에너지가 모자라던 것이 잘 자라서 쓸 수 있게끔 돼요. 우리 인간도 몸이 이렇게 공체로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뭐가 모자라고 참 힘이 든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자라는 걸 생각하는데 이 속의 의식들도 다 한생각으로 뭉쳐요.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병 증세라도, 지금 진실하게 그렇게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병 증세라도 그건 단호히 고칠 수 있다. 이건 전부 이 인간에게도 에너지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부처님께서 전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를 그냥 해야지, 만약에 깨달았다고 해서 안 죽거나 깨달았다고 그래서 안 아프거나 늙지를 않는다거나 이런다면 혼란이 온다. 그래서 혼란이 오게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비가 와도 너만 비가 오지 않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상스럽게 또 혼란이 또 온다. 그렇게 아주 무척 제시를 했죠. 그럭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깐 이 사람이라는 게 살아나가면서 고통을 받아 봐야 고통의 구석구석의 이유를 알게 되고, 아파 봐야 아픈 사람의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좀 어려운 지세에 좀 살아 봐야 어려운 문제를 빨리 생각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시대가 변하는 대로 그대로 먹고 살게 되고 또 에너지 쓰게 되고, 걱정 없이 쓰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공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에 아무 걱정, 내일 걱정 하지 말고, 어저께 지나간 거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사는 데에, 찰나찰나 돌아가는 데에 평화스럽게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살아라 이 소리예요. 어저께 지나간 거를 생각하면 골칫덩어리고 내일 걱정을 한다면 또 하루에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외려 고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 고생도 자기가 만들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제브라붓펜 3호 입하!
50자루 이상@2100원
정가 3000원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0부@600원 • 100부@800원
• 규격:9.5cm × 13.4cm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2000부@400원 • 100부@600원 @ 450 원
• 규격:8.9cm × 9.5cm • 매수:16장

불자 세상보기

스마트한 사회 위해 2030부터 건강을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슬픈 기록들이 많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물론 전체적인 삶의 질이 아쉬웠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목표가 굶주림에서 헤어나는 일이다. 소위 보릿고개로 통칭되던 가난한 시절을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에 올인했었다.

노동환경도 열악했지만 소위 넥타이 부대로 통칭되는 사람들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40대에 급사하는 율이 높았다. 일하던 도중 아니면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횡사하는 율이 아주 높았다. 모두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급사였다. 그 급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30~40대 사람이었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할 것 없이 모두 고달픈 시절이었다. 산업화 초기 100$도 안 되던 것이 지금은 24,000$를 넘어가고 있다. 1억$을 수출했다고 흥분해서 자축했던 경험도 생각난다. 밤낮이 없이 일했던 당시와 주5일제를 지키는 지금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세대는 예나 지금이나 30~40대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초기와 같은 습관으로 일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일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아무렴 초기와 같은 모습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그런 모습으로 일하길 강요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스마트한 나를 내가 가꾸어야 한다.

그 동안 변화된 모습은 많지만 40대의 급사현상에서 지금은 성인병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에 많이 시달린다. 이 성인병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식습관의 변화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적어도 배고픔에선 벗어나 오히려 과잉 영양으로 생기는 성인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자기 관리다. 습관의 관리다.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육체의 건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병이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 올바르게 마시고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쉴 때 쉬어야 하고 여가 선용을 하며 될 수 있는 데로 자주 그리고 멀리 걸어야 한다.

둘째로는 마음이 튼튼해야 한다. 매사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분노를 조절하며 융통성 있는 사고와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몸의 주인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일을 즐겨야 한다. 우리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작던 크던 사회적인 역할이다. 이 역할을 죽지 못해 한다는 것 보단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습관의 실현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함께 나누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나눔이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미 나눔의 시작이다. 이런 지적을 놓고 독자들은 너무 원론적이란 반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맞다. 원론적이다. 하지만 이 원론적인 가치와 기준을 멀리 하고 자기관리의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야금야금 축적된다. 당장은 눈에 뜨이는 결과를 볼 수 없지만 세월이 가면 서서히 나타난다. 관리한 사람과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낸 사람은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의 편차는 아주 크다는 사실을 진작 깨달아야 한다.

위에 적은 쉽지만 행하기 어려운 웰빙 기준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 준다면 경험적 몇 가지를 보너스로 드리고 싶다.

하나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골고루 먹을 것을 권한다. 골고루 먹는 것이 다이어트의 요체다. 둘은 운동인데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운동 보다는 어슬렁어슬렁 자연과 접한 운동을 권한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치유능력을 준다.

셋은 규칙성을 권하고 싶다. 규칙성이란 긴장과 이완의 규칙성이다. 넷은 우리 몸과 마음에 해로운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좋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추세인데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좋다는 것을 챙기기 전에 해로운 것을 삼가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검정되지 않은 많은 좋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권한다.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은 내가 챙긴다.

30~40세대가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마음먹고 실천해 보면 50~60가까운 장래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언대

수능 후 수험생 관리

11월 7일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성적 여부를 떠나 많은 학생들의 마음이 헤이해지기 쉬운 상황이다. 수능 후 학생과 학부모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부모와 함께 긴장 풀고 여유 갖길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 문학박사

수능시험에는 장사가 없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마찬가지이다.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도, 원서를 내고 마지막 대학입학합격증을 받기 전까지는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불안과 초조의 연속이다. 수험생의 기대치가 높을수록,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실망과 고통도 크다. 어른이 되어가는 통과의례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험생들은 3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시험을 잘 치루고 못 치룬 것을 떠나 자녀를 꼭 껴안고 격려하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능점수도 중요하지만 수능이 끝난 후 자녀의 우울증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성적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자녀의 실망과 절망을 받아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다. 끝까지 인욕보살의 자애로움과 넉넉함을 가져야 한다.

시험을 막 끝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단 긴장을 풀고 쉬라고 말하고 싶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 잠시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는 휴헐(休歇)이 영약이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둘레길과 호숫가를 걸으며 여유와 낭만을 잠시라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평상시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수험생 자녀에게 관세음보살의 가피이다.

몸과 마음 업그레이드하는 '休명상'



선업 스님
행복치유센터 원장

시험을 끝낸 수험생과 그동안 뒷바라지로 힘들었던 학부모들에게 '휴(休)명상'을 권한다.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이 명상은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권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나의 아바타(반영)라는 것을 명료화하기 위해 '걷고 보고 듣기'를 하는 것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거리도 걸어보면서 주변의 사물들을 돌아보고 소리도 다시 들어보면서 내 모습이 반영된 것임을 느껴본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소리명상'이다. 큰소리로 소리를 내어 책을 읽어보자. 이때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이 가슴에 탁탁 걸려오고 꽂히면서 속이 확 풀린다. 무엇보다 육체적으로도 몸의 기가 통하면서 호흡이 된다. 그러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서서, 앉아서 혹은 누워서 1분도 좋다. 이는 '마음의 낚시'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망상들은 다 떠내려가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올라온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주보고 합장 인사를 하며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10개씩 물어보는 방법도 좋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서로를 보듬다 보면 수험생들의 진로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학생도 부모도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社說

동국대 불교 교양과정 축소 안될 일

인문학을 '학문의 왕'이라고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상아탑이 아닌 교육 사업장으로 변질된 대학 시스템에서 인문학은 언저리로 밀려났다. 국가에서 '인문한국(HK)' 등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중적 저변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인문학에서도 불교학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불교 종립대학이 적은 것도 있지만 종립대학 내에서도 왠지 '서자'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런 분위기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표 종립대학 동국대학교의 교양 과정에서 불교 관련 수업을 축소시킨다는 소식이다.

현재 동국대는 학구대학설립추진단을 통해 새로운 교양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 안에 불교관련 과목은 '자아와 명상'과 '불교와 인간' 2개에 불과하다. 애초에도 4% 밖에 안되는 비중이었는데도 학교 측은 이를 더욱 축소시킨 것이다.

5월부터 시작한 추진단의 10차례 회의에서도 불교대학은 철저히 배제됐다. 정작 시행을 앞두고 비판이 일자 학교 측은 9월 말이 돼서야 불교대학 교수를 참여시켰다. 학교 측은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고 최종안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했지만 이를 명쾌한 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미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불교학과를 정리하는 사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맡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는 불교계가 삼보정재를 출현해 세운 종립사학이다. 그 목적도 '불교소양을 지닌 인재 양성'에 있다. 스펙 쌓기와 경쟁에 매몰된 학생들에게 불교를 접하게 자신이 가야할 방향을 삼게 해주는 것은 교양과정에 이뤄내야 할 일이다.

동국대가 이제라도 이번 교양과정 개편에 종립대학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수화 동영상, 또 다른 역경불사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종교였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불자청각장애인들이 법음을 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희소식이 들린다. 이들을 위한 불교 수화동영상이 제작됐다. 제작된 콘첸츠들은 삼귀의、반야심경、청법가 등 불교의식 10종을 비롯해 최신 찬불동요와 봉축주제가 등 46종이다. 연내에 전국사찰 및 복지관 등에 보급된다니 조만간 청각장애들이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불교수화 동영상은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와 광림사 연화원(원장 해성)이 전법단 지원으로 1년 여 동안 제작했다. 동영상에는 김경환 제 1기 청각장애인 조계종 포교사 등 30여 수화 전문가들이 출연해 부처님 가르침을 수화로 표현했다.

전국에는 청각장애인이 40만명이 있다. 이중 중 10% 정도가 불자인데 322개의 청각장애인 전용교회를 지닌 기독교계에 비해 불교계는 그 역할이 미약하다. 그래서 이번 수화동영상 제작 소식을 접한 불자 청각장애인들은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다. 불교단체에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 때문일 것 같다.

수화는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을 정도로 조금씩 다르다. 불교 수화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동안 불교수화는 통일된 부분이 없어 의역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불교의식이 통일 될 것으로 기대도 된다.

이번 작업을 위해 원심회와 연화원은 청각장애인 4인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수화협의회를 구성해 각기 다른 불교의식에서의 수화용어를 정리했다.

범어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역경불사를 통해 불교를 전했듯, 장애인전법단의 수화 작업도 또 다른 이름의 역경불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의 수화 동영상들이 제작배포되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연꽃 같은 정수기, 시걸포!

연꽃이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듯 시걸포는 내 몸에 물을 정화합니다



www.seagull4.co.kr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고 객 문 의
080-007-0980